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

남영신

한국인은 조사 '은'(는)과 '이'(가)의 의미를 구별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이와 같은 현재적 질문에서 시작하는 저자의 문제 제기는 김소월의 「산유화」를 텍스트로 하여 '에'와 '에서'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한다. 그의 한국어 연구의 결론과 바로 쓰기 운동의 실천적인 명제는 '바로 쓰는 것이 아름답게 쓰는 것이다' 곧 '바른 문장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까지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

남영신

저자 남영신(南永信)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국어 문화 운동 본부 회장
 한국 문장사 협회 상임 고문
 문화관광부 '우리말 바로 쓰기' 추진 위원
 불교방송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 중 "말을 찾아서" 출연 중
 저서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한마당)
 『말 잘하려면 국어부터 잘하고』(리수)
 『문장 비평』(한마당)
 편찬
 『우리말 분류 사전』(1, 2, 3)
 『우리말 분류 대사전』
 『우리말 용례 사전』
 『훈 국어 사전』
 『훈 국어 대사전』
 편집-교정 한승희(韓承希)

© 남영신 2002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

저자 / 남영신
 발행처 / 까치글방
 발행인 / 박종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27-5
 전화 / 735-8998, 736-7768
 FAX / 723-4591
 홈페이지 / www.kachibooks.co.kr
 e-mail / editor@kachibooks.co.kr
 유니텔 ID / kachisa
 등록번호 / 1-528
 등록일 / 1977. 8. 5
 초판 1쇄 발행일 / 2002. 4. 5
 9쇄 발행일 / 2006. 4. 20

값 / 뒤표지에 쓰여 있음

ISBN 89-7291-310-3 03710

차례

머리말 9

들머리 : 한국어 바르게 쓰기의 중요성 13

보태기 21

Ⅰ 조사 23

1. ‘이’와 ‘은’ 26

- 1) ‘이’와 ‘은’의 구별법(1): 주어에는 ‘이’,
주제어에는 ‘은’ 29
- 2) ‘이’와 ‘은’의 구별법(2): 새로운 정보가 주어에 있으면 ‘이’,
서술어에 있으면 ‘은’ 34
- 3) ‘은’의 사용법(1): 주제어는 문장의 첫머리에 나온다 38
- 4) ‘은’의 사용법(2):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 40
- 5) ‘은’의 사용법(3): 대조적 기능을 가진 ‘은’ 46
- 6) ‘은’의 사용법(4): 한국어의 카리스마 ‘은’ 51

2. ‘에’와 ‘에서’ 55

- 1) ‘에서’ 사용법(1): 활동하는 장소에 58
- 2) ‘에서’ 사용법(2): ‘에서’는 동사를 활성화한다 59
- 3) ‘에서’ 사용법(3): ‘에서’는 분리시키는 조사 64
- 4) ‘에’를 잘못 쓰는 두 가지 사례 69

보태기 72

② 어미 77

1. 어미 ‘-고’와 ‘-며’ 79

- 1) ‘-고’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80
- 2) ‘-며’에는 동작을 나열하는 기능이 없다 83
- 3) ‘-며’와 ‘-면서’ 85

2. 어미 ‘-므로’와 조사 ‘-으로’ 87

3. 구별해서 쓰면 좋을 기능어 92

- 1) ‘이라’와 ‘이라서’ 93
- 2) ‘-아/-어’와 ‘-아서/-어서’ 95

보태기 97

③ 호응 101

1. 호응이란 제약에 순응하는 것 105

2. 통사적 호응 108

3. 어휘적 호응: 어휘들도 서로 사랑을 한다? 124

4. 논리적 호응 143

5. 호응과 은유 154

보태기 162

④ 생략 169

1. 조사 생략 171

- 1) 서술격 조사의 생략 177

- 2) 조사 생략의 한계 설정 178
- 2. 성분 생략 181
 - 1) 주어 생략 182
 - 2) 서술어 생략 188
 - 3) 기타 성분 생략 196
 - 4) 아주 특별한 생략 200
- 3. 현대 사회와 한국어의 생략 204
 - 1) 생략의 한계 설정 205
 - 2) 생략하지 말아야 할 경우 211
- 4. 준말 227
 - 1) 준말 표기를 인정해도 되는 경우 228
 - 2)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준말 230
 - 3) 막아야 할 준말 표기 231
- 5. 축약 235
 - 1. 문장 축약: 한국어는 자칫하면 지루하게 되는 언어 236
 - 1)부사어 축약 240
 - 2)관형어 축약 243
 - 3)서술어 축약 247
 - 2. 문단 축약 249
 - 3. 어휘 축약 254
 - 보태기 263

□6□ 높임말 265

1.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 265
2. 높임의 등급 267
3. 겸양 270
4. 높임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271
 - 1) 방승 언어에서의 높임법 271
 - 2) 무분별한 높임 272
 - 3) 압존법 해체의 문제 274
 - 4) 높임의 중복 277

보태기 281

□7□ 시제 283

1. 현재 시제 286
2. 과거 시제 293
3. 미래 시제 300
4. 시제의 일치 303

맺음말 311

머리말

『토지』의 작가 박경리님은 ‘언어란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배’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는 ‘피안’을 ‘진실이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비록 그 배가 피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언어 자신은 진리가 될 수 없어도 진리에까지 우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연장임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이는 불가(佛家), 특히 선가(禪家)에서 말이 끊어진 자리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는 배치되지만, 나는 그의 생각이 소설가로서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매우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고 싶다.

만일 언어가 ‘배’라면, 나는 피안까지 우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두 종류의 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상당한 비바람 속에서도 인간을 안전하게 빨리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있을 수 있고, 대단치 않은 비바람 속에서도 난파의 어려움을 겨우겨우 넘기면서 어렵게 실어 나르는 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통나무배 언어, 돛단배 언어, 증기선 언어, 원자력선 언어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배라도 잘 사용한 배와 잘못 사용한 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싣고 가는 한국어라는 배는 성능이 어느 정도

일까? 영국인을 싣고 가는 영어, 일본인을 싣고 가는 일본어, 중국인을 싣고 가는 중국어 등과 한국어는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 혹시 이들 언어에 차이가 있어서 피안에 가는 데에 어떤 언어의 배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를 갈아타야 할까, 아니면 한국어라는 배의 성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까? 영어라는 배나 일본어라는 배로 갈아탄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생각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갈아타지 않음만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 한국인이 한국어라는 배를 버리고 영어나 일본어라는 배를 타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클 것이다. 그 배를 운행하는 기술이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서 몹시 서투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인은 한국어라는 배를 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어라는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모든 한국인이 하나의 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각자 자기가 만든 한국식 배를 타고 피안을 향해서 항해해야 한다. 영국인은 각자가 만든 영국식 배로 항해하고, 일본인은 각자가 만든 일본식 배를 타고 항해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만든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자기의 배를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인이 한국식 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만들어 항해한다면, 일본인이 낡은 일본식 배로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피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이 낡은 한국식 배를 타고 항해한다면 성능이 우수한 일본식 배로 항해하는 일본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인

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한국식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낡고 삐걱거리는 한국식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을까?

이 책은 한국인이 타고 항해하는 한국어라는 배 — 이 배는 모두 한국식으로 기본 설계가 되어 있지만 개인의 건조(建造) 솜씨와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그 성능이 천차만별이다 — 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한국인의 모든 배가 최고의 성능을 갖추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지어진 책이다. 만약 그 배가 돛단배라면, 배의 겉을 싸고 있는 삼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널과 널 사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박(대갈)이 완벽하게 메워 있는지, 명에목은 배를 잘 지탱하겠는지, 돛대는 바람에 부러지지 않겠는지, 돛은 쉽게 찢어지지 않겠는지, 개밥통은 돛대를 잘 받칠 만하고 마룻줄은 손쉽게 돛을 오르내릴 수 있게 잘 묶여 있는지, 키 따리의 한쪽이 쪼개져서 배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는지, 노(櫓)는 노쥔에 알맞게 걸려 있어서 저어 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잘 관리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허술하게 관리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니까 말이다.

나는 이 책에서 한국어라는 배의 성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이 점검의 결과로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어가 좀더 차원 높은 언어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인용한 많은 문장들은 좀더 완전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는 데에

매우 유용한 것들이다. 이 문장들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나에게 이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원고를 꼼꼼히 교정, 교열해 준 한국 문장사 협회의 조경숙, 구혜영님에게 감사한다. 이 책은 원래 까치글방의 박종만 사장의 권유로 쓰게 되었다.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한 박종만 사장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노고가 한국어 발전에 한 밑거름이 되기를 충심으로 비송한다.

남영신

2002년 3월 1일

국어 문화 운동 본부 사무실에서

남영신 씀

들머리 : 한국어 바르게 쓰기의 중요성

한국어는 한국인의 언어이다. 새삼스럽지만 우리가 이 언어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생각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 등 수많은 일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 니,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언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한국어는 바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길러 주는 어머니의 언어이다. 그 한국어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그 한국어를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을까?

—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유치환, 「행복」에서)

시인 유치환은 평생 연모하던 이영도 시인을 향하여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유치환에게 이런 간절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도록 한 한국어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언어인가?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가 그의 유명한 글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서 ‘언어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인간이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갈파한 것처럼,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곱게 순화되었는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의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김구, 「나의 소원」에서)

한국어로 이러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김구 선생의 고매한 인격과 그의 사상을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국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문장을 쓰는 한국인을 더는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돌고래 사회에서는 적령기의 수컷들이 늘 삼삼오오 떼를 지어 돌아다닌다. 은밀한 골목길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서 암컷을 얻으려면 수컷 서넛이 앞뒤 좌우에서 함께 몰려다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암컷 꿈무늬를 따라다녀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면 패거리 중의 한 수컷이 그 암컷을 취하는 영광을 얻는다. 다음날 또다른 암컷의 허락을 받아내면 이번엔 다른 수컷의 차지다.

이렇듯 돌고래 수컷들은 그들간의 차례를 지키면서 가까운 친구들끼리 협동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최근 동물행동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아무리 같이 다녀도 별 볼일 없어 보이면 설령 친구라 할지라도 버리고 자주 패거리를 옮겨 다니는 약삭빠른 수컷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지조 없는 친구로 낙인 찍히면 아무리 차례가 와도 다른 수컷들의 방해로 암컷을 얻지 못할뿐더러 결국 집단 따돌림을 면치 못한다.(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에서)

위의 글은 우리에게 신비한 돌고래의 짝짓기와 공동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한국어가 일정한 틀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런 정보를 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 사이에 한국어라는 표준화된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매우 손쉽게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어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품위 있고 바른 문장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한국어 문장도 술하게 많다.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 문장, 문맥이 서지 않은 문장,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문장 등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문장을 보면 우선 그 속에 녹아 있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의미가 훼손됨을 느끼고, 나아가서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짜증이 나게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점점 후퇴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부적절한 어휘 사용과 틀린 문장, 비논리적인 문장의 범람은 결국 한국어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지식과 정보 교환의 통로를 질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한국인의 지적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질그릇이 땅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고 들렸는데, 마당에는 아무도 없다. 부엌에 쥐가 들었나? 샛문을 열어 보려니까, “아 아이 아이 아아 아아!” 하는 소리가 뒤란 곁으로 들려온다.(계용묵, 「白痴 아다다」에서)

위의 글을 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소리가 났다고 들렸는데’라는 부분이 바로 그렇다. 어떤 경우에 ‘소리가 났다고 들렸는데’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지, 이 표현과 ‘소리가 났는데나 ‘소리가 들렸는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표현의 옳고 그름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결국 독자가 작품의 내용에 빠져드는 데 걸림돌을 만들어 놓은 셈이 되고 말았다. 아래 문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좀 기울어질 무렵이라야, 차례를 치러야 했고 성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이때부터 타작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뜨기 시작하고 — 남정네 노인들보다 아낙들의 채비는 아무래도 더디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구들 시중에 음식 간수를 끝내어도 제 자신의 치장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벼 이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는, 마음놓은 새 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박경리, 『토지』에서)

위의 글은 논리적으로 차분히 쓰지 않고 감각적으로 쓴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때부터’가 언제를 가리키는 지, ‘이 바람에’가 어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다. ‘무렵이라야’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치러야 했고’나 ‘성묘를 해야 했고’와 ‘나누다 보면’에서 과거 시제가 현재 시제로 바뀐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어른들의 행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표현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한나절은 넘는다’를 ‘한나절이 넘는다’나 ‘한나절을 넘긴다’와 비교하면서 특별히 골라 쓴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또 ‘타작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뜨기 시작하고’와 그 뒤에 오는 ‘남정네 노인들보다 아낙들의 채비는 아무래도 더디어지는데’의 연결이 별로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세 문장은 온통 알 수 없는 이상한 한국어로 차 있다. 『토지』의 위대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문장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아래 문장은 더욱 해괴하다.

春園(춘원)과 金東仁(김동인) 및 대부분의 문인들이 일본 유학생이라는 계층적 문제, 春園·東仁의 처녀작이 모두 日語가 먼저였다든 점, 金東仁의 한국어 첫 작품 「약한 자의 슬픔」이 한국적 배경과 거의 무관심하다는 점 등도 문제되겠지만 소설 창작법, 묘사 방법조차가 일본식으로 착상되고 다만 그것이 거의 朝鮮語로 번역한 것이었다는 점의 인정은 바로 林和(임화)의 저 문학사 방법론의 인정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다.(김윤식, 『韓國近代作家論攷』에서)

이 글은 한국어를 잘못 쓸 수 있는 모든 실수들이 들어 있는 이른바 ‘한국어 오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처녀작이 日語가 먼저였다’, ‘한국적 배경과 거의 무관심하다’, ‘소설 창작법, 묘사 방법조차가 일본식으로 착상되고’, ‘다만 그것이 거의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같은 표현에다, ‘점의 인정’, ‘임화의 방법론의 인정’에서 쓰인 조사 ‘의’ 등을 보면 이 글도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 쓴 것 같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우리 문학가의 이런 글들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나는 한국 문학가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논평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 문인들이 쓴 수많은 소설(신소설부터 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에는 앞에서 든 것처럼 명백하게 잘못 쓴 문장이 수없이 널려 있다. 문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펴낸 책에도 비문법적인 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 국

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고, 한국인의 언어 능력 내지 지적 능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문학가들조차도 이렇게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게 만들 정도로 한국어에 까다롭거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내어 이를 많은 국민들이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국어가 까다롭거나 특별히 더 어려운 언어가 아닌데도 한국인에게 어렵게 인식되는지도 모른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한국어 능력이 6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다. 성인의 ‘어문 규정 능력’이 평균 30점에 머물렀는데, 이는 6년 전의 결과보다 21점 낮아진 수치이다. 이 조사는 단순히 어문 규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조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국인에게 한국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결론이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의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문 규정이나 어법이 까다로워서 한국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문 규정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문 규정이나 어법에 맞게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니 한국어가 어렵거나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 배우지 않고 막연히 언어들은 대로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게 쓰기보다는 자기 언어 습관대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뿐 아니라 모든 언어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말을 글자로 적는 경우는 어느 언어이든지 쉽지 않다. 한국어의 맞춤법, 영어의 철자법, 중국어의 간체자(簡體字), 일본어의 훈독법(訓讀法) 따위는 한국인, 영국인, 중국인, 일본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은 끊임없이 배워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느 언어에나 모국어 화자(話者)가 익히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 높임말과 호칭 및 지칭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것이고, 미국인에게는 영어의 시제, 단수, 복수 등과 관련된 일치와 호응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며, 프랑스인에게는 프랑스어의 성(性) 구별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각 모국어에 있는 이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언어를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단계적으로 꾸준히 익히고 학습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히 많은 모국어 화자가 모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모국어를 어려운 언어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앞의 문화관광부 조사 결과 성인의 37%가 한국어를 어려운 언어로 응답했다는 사정은 한국인이 언어 생활을 매우 방만하게 해 왔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문화가들의 글에는 어문 규정과 관련된 잘못보다는 어법에 관련된 잘못이 대부분이었다. 어문 규정을 몰라서 틀린 문장은 문화가들의 어문 규정 능력이나 출판사의

교정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독자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법을 모르거나 오해하여 쓰는 경우, 깊은 생각 없이 어휘를 나열하는 데 급급하면 수많은 비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인의 지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어에 있는 까다롭고 틀리기 쉬운 어법을 찾아 이를 정확히 익히고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자기의 중요한 뜻이 문장 구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해되거나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가장 어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바르게 쓴 언어와 문장 속에 아름다움과 참됨이 깃든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말이다.

보태기

미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박사는 사람에게는 언어 능력이 있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열두 살이 되면 대체로 모국어 문법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교수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는 언어 유전자가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모국어 화자(話者)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분들의 언어 이론과 연구 성과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엉뚱한 모국어 사용자가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언어학자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잘못을 저지르

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아래의 한국어를 한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 * 매일 지금 출근하는 길인건가요. 이 지하철이?(이윤석, 케이비에스, 2001. 6, 「TV책을 말하다」에서)
- * 요리가 는 거 보며는 집으루 이렇게 친구들도 와서 요리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으세요?(유정현, 에스비에스, 2001. 6, 「두 남자 쇼」에서)
- * 우리 집사람도 지끔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옵기를 빌어마지 아니옵니다.(이주일, 케이비에스, 2001. 6, 「시사터치 코미디파일」에서)
- *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연예계 중에서 가장 더위를 터프하게 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박경림, 엠비시, 2001. 6,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 * 소질이 많은 친구를 어렸을 때 만나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수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이죠.(박진영, 에스비에스, 2001. 6, 「일요일 만세」에서)
- * 제가 처음으루 섹션 티브이에 엠씨로서 시작이 됐는데 벌써 백회가 됐다니깐 참 감회가 새롭구요.(황수정, 엠비시, 2001. 6, 「섹션 TV」에서)

1

조사

한국인들은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대개 높임법을 든다. 상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고 세밀하게 써야 하는 높임법은 어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높임법은 주로 대화에서 나타나므로 문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오히려 조사(助詞)와 어미(語尾)를 포함한 기능어 사용법이 더 까다로운 문제이다. 사람들은 조사와 어미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문장이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문장의 맛이 달라지거나 의미가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서구의 언어는 어순에 따라서 문법적인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국어는 어순에 의하지 않고 어휘에 조사를 붙이거나 어미를 사용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하게 하므로,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물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기능이 다른 조사를 붙여 엉뚱한 문장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다. 즉 ‘나는 밥을 먹는다’를 ‘나를 밥이 먹는다’나 ‘나를 밥에게 먹는다’처럼 쓸 사람은 거의 없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장편 소설 대계가 없는 나라다.”(성기조, 『문단기행』에서)처럼 엉뚱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체로 주어나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를 혼동해서 쓰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기능이 비슷한 조사를 오해하여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런 조사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어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조사란 체언(體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에 붙어서 체언을 문장 안에서 일정한 기능(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등)을 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조사에는 체언을 주격이 되게 하거나 목적격이 되게 하거나 부사격 또는 관형격이 되게 하는 격조사가 있고, 격조사 기능을 하되 일정한 의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보조사(또는 특수 조사)가 있으며, 어휘와 어휘를 연결하는 접속 조사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격조사와 보조사의 기능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의도와 다른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조사는 문장에서는 일정한 격조사처럼 사용되지만 격조

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의미를 첨가하는 노릇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를 잘못 쓰면 ‘격에는 맞지만 상황이나 의미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조사 가운데에서 특히 주격 조사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은(는)’의 사용법이 까다롭다. 이 보조사와 주격 조사 ‘이(가)’가 어떻게 달리 쓰이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은(는)’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같은 부사격 조사이면서도 의미 기능이 다른 ‘에’와 ‘에서’를 구별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먼저 보조사 ‘은(는)’과 주격 조사 ‘이(가)’의 사용법을 살펴보고,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에’와 ‘에서’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자.

조사의 종류

격조사: 문장의 성분이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 알려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 주격 조사(가/이), 서술격 조사(다/이다), 목적격 조사(를/을), 보격 조사(가/이), 관형격 조사(의), 부사격 조사(에/에서/에게/로/으로)로 나뉜다.

보조사: 격조사가 아니지만 격조사처럼 쓰이면서 앞말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조사. 대표적인 보조사로 ‘는/은’, ‘도’, ‘만’, ‘부터’, ‘까지’, ‘야’, ‘마저’, ‘조차’, ‘라도’, ‘나마’ 등이 있다.

접속 조사: 어휘와 어휘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조사. ‘와/과’, ‘랑/이랑’, ‘하고’ 등이 있다.

1. ‘이’와 ‘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조사 ‘이’와 ‘은’을 구별하여 쓴다. 왜 그렇게 구별하느냐고 물으면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이 두 조사의 쓰임새가 서로 다름을 안다. 아래의 두 문장을 어떤 경우에 쓰게 되는지 모르는 한국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a: 이게 뭐야?

b: 이걸 뭐야?

그러나 어떤 경우에 왜 그렇게 쓰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a는 조사 ‘이’를 쓴 문장이고 b는 조사 ‘은’을 쓴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을 보면 조사 ‘이’와 ‘은’을 쓰는 경우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에 각각 ‘또’라는 부사어를 추가하면 좀더 명확하게 이 두 조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a1: 이게 또 뭐야?

b1: 이걸 또 뭐야?

한국인은 이 두 문장 가운데에서 어떤 문장이 틀린 문장인지 금방 알게 된다. ‘또’가 들어가는 문장은 a1이 아니고 b1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안다. 도대체 조사 ‘이’와 ‘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될까?

수 있고, a1과 b1 가운데에서 틀린 문장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한국인이면서도 평소에는 ‘이’와 ‘은’을 제대로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은① 바람의 흐름을 타고 너울대다가 방향을 바꾸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줄은② 끊어질 듯 팽팽히 당겨졌다. 멀리 간 연을 불러오려고 힘껏 열레를 돌렸지만 줄은③ 감기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그의 몸을 무서운 기세로 끌어당겼다.(오정희의 「얼굴」에서)

위의 문장은 실제로(글에서는 비록 꿈속이지만) 어린이가 연을 날리는 장면을 묘사한 글이다. 따라서 ①, ②의 ‘은’은 주격 조사 ‘이’로 바꾸는 것이 좋다. 위 문장을 아래 문장과 비교하여 보자.

연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너울대다가 방향을 바꾸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줄이 끊어질 듯 팽팽히 당겨졌다. 멀리 간 연을 불러오려고 힘껏 열레를 돌렸지만 줄은 감기지 않고 오히려 작은 그의 몸이 무서운 기세로 끌려갔다.

이처럼 ‘이’와 ‘은’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여 글을 쓰는 것이 한국어를 좀더 정확하게 사용하는 길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조사의 차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자.

연습

아래 문장의 보조사 ‘은’을 검토해 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은① 세차게 불어 방안으로 들어왔다. 하늘을 쳐다보니 달은② 몹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웬지 모르지만 마음은③ 점점 상쾌해졌다. 가을은④ 되었나 보다.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로 사용한 글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묘사하면서 보조사 ‘은’을 쓰니 어색해 보입니다. ①-④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할까요?

■ 답

①-④의 보조사 ‘은’을 모두 주격 조사 ‘이’로 바꾸어야 한다.

1) ‘이’와 ‘은’의 구별법(1): 주어에는 ‘이’, 주제어에는 ‘은’

영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문장에 주어만 있으면 되었지 주제가 왜 필요하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영어에서야 [주어+동사]를 한 문장의 기본 단위로 삼고 주어 아닌 것이 동사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런 도식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는 행동의 주체를 알리기보다는 설명의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 구조가 매우 많다. 행동의 주체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주어라면 설명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주제어이다.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에는 주격 조사 ‘이’(또는 ‘가’)가 붙는다. 그러나 설명의 대상이 되는 주제어에는 보조사 ‘은’(또는 ‘는’)이 붙는다. 아래 문장을 검토하면서 주어와 주제어 그리고 ‘이’와

‘은’의 차이를 알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자.

말은 혼자 간직하고 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기 위해 있다. 그만큼 내 말이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의 말이 또 나에게 영향을 준다.(이익섭, 『방언학』에서)

위의 문장에서 ‘은’과 ‘이’가 쓰인 부분의 아래에 적힌 정보를 분석해 보자. ‘은’ 다음의 정보는 ‘주고받기 위해서 있다’라는 정보이다. 이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글쓴이가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주제어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이’가 쓰인 부분의 아래에 적힌 정보를 분석해 보면,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정보이다. 이 정보는 사실 정보이다. 지금 그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기의 생각을 보태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이 없이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은’ 아래에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들어 있는 서술어가 쓰였지만, ‘이’ 아래에는 글쓴이가 보거나 알고 있는 사실대로 표현한 서술어가 쓰였다. 여기서 우리는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개입하여 무엇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은’을 썼고, 단순히 사실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이’를 썼음을 알 수 있다.

a: 사람이 누워서 잔다.

b: 사람은 누워서 잔다.

a는 사람의 현재 행위를 묘사한 문장이다.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묘사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쓸 수

없다. 이 문장은 ‘누워서 자는’ 주체가 무엇인지 알려 주는 문장이다. 따라서 ‘사람’에 주격 조사 ‘이’를 썼다. b는 ‘사람이란 어떤 동물인가’에 관심을 가진 문장이다.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b의 ‘사람’을 주어로 보지 않고 주제어로 보는 것이다. 만일 사람을 누워서 자는 동물로 보지 않고 생각하는 갈대라고 본다면 b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처럼 쓴다. 이로써 우리는 ‘이’와 ‘은’의 차이에 관한 첫번째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는 묘사문에 쓰이고, ‘은’은 설명문에 쓰인다.

■ 연습

아래 글에서 밑줄 친 ‘은’ 가운데에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① 정해 놓고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생원, 시침을 떼두 다 아네……충주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② 비죽이 웃는다.(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서)

■ 답

②의 ‘조선달은’이 잘못이다. ①은 저녁의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므로 ‘은’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②는 ‘조선달’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므로 주어로

보고 ‘조선달이’로 써야 한다.

주제어 만들기

‘이’와 ‘은’의 사용법을 묘사문과 설명문으로 도식적으로 구별하여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묘사문이라도 글쓴이가 주어를 주제어로 삼으려고 한다면 ‘은’을 쓸 수 있고, 설명문이라도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문장이라면 ‘이’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장이 묘사문인지 설명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넣어 특별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쓴이는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가운데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성분을 주제어로 삼을 수 있다. 이 때에 ‘은’을 사용하는 것이다.

a: 영수는 누워서 잔다.(영수가 누워서 잔다.)

b: 연설은 대표가 했다.(대표가 연설을 했다.)

c: 그곳에는 오막집이 있었다.(오막집이 그곳에 있었다.)

위의 세 문장은 모두 괄호 속에 있는 본래의 묘사문의 일부를 주제어로 바꾸어 만든 것이다. a는 주어를 주제어로 바꾼 것이고, b는 목적어를 주제어로 바꾼 것이며, c는 부사어를 주제어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묘사문을 주제어로 만들 때에는 특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a의 경우는 영수 아닌 다른 사람은 누워서 자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영수가 누워서 잔다’에는 객관적 사실만 묘사되어 있

지만, ‘영수는 누워서 잔다’에는 글쓴이의 개인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조사가 보조사이고, ‘은’은 글쓴이가 그 문장 성분을 주제어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붙이는 보조사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문장 성분을 특별히 주제어로 삼는 이유는 독자가 그것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초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주제어는 글쓴이나 독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여야 하고, 설명 내용(서술어)은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여야 한다. 이 점이 서술어의 내용을 글쓴이와 독자가 안다고 전제하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 알리는 주어의 기능과 다른 점이다.

■ 연습

아래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주제어로 바꾸어 보세요.

(1)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다.

(2)미국이 우주 개발 사업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다.

(3)우리가 이 일에 나서야 한다.

(1)은 ‘공을 차는 사람’이 ‘아이들’임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눈앞에서 지금 공을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알려 주는 문장이지요. 그런데 목적어를 주제어로 만들면 중요성이 바뀝니다. (2)는 ‘우주 개발에 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미국’임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주 개발 사업’을 주제어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3)은 ‘이 일에 나설 사람’이 ‘우리’임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제어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제어를 설정하고 각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 답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주어는 격조사 대신에 ‘은’을 붙여서 주제어로 만들 수 있다. 각 문장을 주제어화한 문장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다.

(1)공은 아이들이 차고 있다.

(2)우주 개발 사업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다.

(3)우리는 이 일에 나서야 한다.

(1)은 ‘공’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려 주는 문장이다. 상황의 내용은 ‘아이들이 차고 있음’이다. (2)는 ‘우주 개발 사업’에 어떤 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문장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씀’을 그 내용으로 삼았다. (3)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는 글이다.

2) ‘이’와 ‘은’의 구별법(2): 새로운 정보가 주어에 있으면 ‘이’, 서술어에 있으면 ‘은’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고 주어가 새로운 정보이다. 반면에 주제

어는 처음부터 글쓴이와 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어를 사용하고, 이미 알고 있는 서술어의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쓰면 된다.

한빛소프트 등 9개 기업이 12일 코스닥 등록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엑스토, 시스폴, 다코스정보통신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조선일보 기사에서)

위 문장에서 ‘9개 기업’에는 조사 ‘이’를 붙였고, ‘다코스정보통신’에는 조사 ‘은’을 붙였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조사를 달리 붙였을까? 첫 문장은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리기 위한 문장이다. 다시 말하면 서술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격 조사 ‘이’를 썼다. 그러나 뒤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엑스토 등 3개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서술어가 새로운 정보인 것이다. 그래서 보조사 ‘은’을 썼다.

① ‘한빛소프트 등 9개 기업’이……심사를 통과했다.

② 다코스정보통신은……보류 판정을 받았다.

①에서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는 ‘한빛소프트 등 9개 기업’이다. 말을 듣는 사람은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이름이나 숫자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통과했다’의 주어가 새로운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②에서는 ‘다코스정보통신’은 이미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

사에 대한 판정 결과가 새로운 정보가 된다. 9개 회사가 통과 했다는데 이들 3개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 주는 것이 이 문장이다.

■ 연습

아래 문장에서 ①-③의 주제어가 가리키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밝히세요.

동해안의 사빈(沙濱)들은① 태백 산맥의 동사면(東斜面)을 흘러 내리는 급경사의 하천으로부터 홍수 시에 모래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어 좋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황해안은②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차가 커서 사빈이 발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태안 반도는③ 바다로 돌출하여 있고, 겨울철의 강한 북서 계절풍에 의한 파랑(波浪)의 영향을 받아서 규모가 큰 사빈이 발달해 있다.(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 답

① ‘사빈들은’을 제외한 모든 요소. ② ‘황해안은’을 제외한 모든 요소. ③ ‘태안 반도’를 제외한 모든 요소.

■ 연습

아래 문장의 ‘은’①-⑥을 검토하고 알맞게 고쳐 보세요.

불행히도 석담 선생은① 외아들을 호열자로 잃고 또 특별히 제자를 택해 의발(衣鉢)을 전한 것도 아니어서, 임종 후로는② 줄곧 석담의 고가를 지킨 고죽에게는③ 비교적 스승의 유품이 많았다.

그러나 장년을 분방히 떠다니는 동안 돌보지 않은 데다 동란까지 접쳐 남아 있는 진적은④ 몇 점 되지 않았다. 언젠가 고죽은⑤ 병석에서 이제 머지않아 스승을 뵈을 터인즉 후인(後人)의 용렬함을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하며 탄식한 적이 있는데 그 속에는⑥ 자신의 그와 같은 소홀함에 대한 뉘우침도 있었을 것이다.(이문열, 「금시조」에서)

■ 답

위 문장에서 ‘은’이 자연스럽게 사용된 곳은 ④와 ⑥뿐이다. ①과 ⑤의 ‘은’은 ‘이’로 바꾸어야 하고, ②와 ③의 ‘는’은 구태여 필요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①과 ⑤에 ‘은’을 사용한 것은 몹시 아쉽다. ①이 포함된 문장의 무게 중심은 ‘고죽에게 스승의 유품이 많다’에 있다. 그 앞에 있는 ‘불행히도……아니어서’까지는 종속절로서 주절에 이유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즉 ‘석담 선생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절의 결과가 일어난 형태가 되어야 자연스럽다. 여기에 ‘은’을 쓰면 ‘석담 선생이 어떤 일을 한 이인지 궁금해져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강조되고 만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재산을 분배하신 것도 아니어서 장남인 그가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에 재산을 분배하신 것도 아니어서 장남인 그가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를 비교하면 ①의 ‘은’이 왜 부자연스러운지 좀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⑤의 ‘은’도 적절하지 않다. ‘고죽’이 무엇을 어떻게 했지가 주관심이라면 ‘고죽은 무엇을 했다’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고죽의 탄식 속에 뉘우침이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관심이다. 따라서 고죽이 어떤 탄식을 했는지를 [주어+서술어] 형식으로 평이하게 적는 것이 옳다. 위 문장에서 쓰인 ‘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문장을 아래와 같이 바꾸면 된다.

불행히도 석담 선생은 외아들을 호열자로 잃었으면서도 특별히 제자를 택해 의발(衣鉢)을 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줄곧 석담의 고가를 지킨 고죽에게 스승의 유품이 비교적 많이 있었다. 그러나 장년을 분방히 떠다니는 동안 돌보지 않은 데다 동란까지 겹쳐 남은 진적은 몇 점 되지 않았다. 언젠가 고죽이 병석에서 “이제 머지않아 스승을 뵈을 터인데 후인(後人)의 용렬함을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하며 탄식한 적이 있었다. 그 탄식 속에는 자신의 그와 같은 소홀함에 대한 뉘우침도 있었을 것이다.

3) ‘은’의 사용법(1): 주제어는 문장의 첫머리에 나온다

주어도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지만 주어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되거나 문장의 가운데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주제어는 언제나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고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온다.

- (1)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한다.
- (2)김치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 (3)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1)은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된 문장이다. 주어가 앞에 와 있

고 목적어가 그 다음에 와 있으며 서술어가 맨 뒤에 있다. 이 문장의 어순을 (2)처럼 바꾸면 좀 어색해진다. 이렇게 어순을 바꾸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반찬 가운데서 무엇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는 (2)의 어순을 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3)의 어순은 매우 자연스럽다. ‘김치’가 목적어이지만 ‘는’이 붙어서 주제가 되자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고, 글자를 익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마련이다.(서정수,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에서)

위의 문장에서도 똑같은 목적어가 ‘은’을 통해서 주제가 되면 주어 앞으로 나오고, 그냥 목적격 조사 ‘을’을 쓰면 주어 뒤에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제는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속성이 있다.

■ 연습

아래 문장을 읽으면서 주제의 위치를 검토해 보세요.

야산 나무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시인 조이스 킬머가, ‘나 같은 바보도 시는 쓰지만 신(神) 아니면 나무는 만들지 못한다’고 읊은 까닭이 헤아려지고는 한다.(이윤기, 『손가락』에서)

‘시는’과 ‘나무는’은 목적어 ‘시를’과 ‘나무를’이 주제로 바

편 형태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성분을 주제어로 바꾸면 그는 우선 주제어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주제어를 설명하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문장의 앞으로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시는’과 ‘나무는’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일까요?

■ 답

‘시는 나 같은 바보도 쓰지만, 나무는 신 아니면 만들지 못한다’

4) ‘은’의 사용법(2):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

주제어 문장은 언제나 주제어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핵심 서술어는 언제나 문장의 맨 끝에 온다. 핵심 서술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에 따라서 아래의 세 형태로 나뉜다.

(1)(주제어)는 + (부사어, 목적어) + (동사)한다

(2)(주제어)는 + (부사어) + (형용사)하다

(3)(주제어)는 + (관형어) + (명사)이다

위의 각 구성에 따른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1)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2)세상은 요지경과 같이 어수선하다.

(3)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처럼 어떤 문장이 주제어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주제어에 호응되는 설명이나 선언 또는 규정(規定)이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제어 문장에서 주제어 이외의 정보는 모두 주제를 설명하는 것들이다. 즉 주제어 문장은 주제어와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하는 부분의 핵심어는 서술어이고 나머지는 그것의 목적어나 그것을 꾸미는 부사어 또는 관형어이다.

■ 연습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의 핵심어와 핵심어를 꾸미는 부사어 또는 관형어를 찾아 보세요.

현대의 한국 사학은① 日帝의 어용 사가들이 이루어 놓은 식민주의적 한국 사학과와의 투쟁 속에서 성장하였다. 일제의 침략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여 준 그들 어용 사가는② 항상 한국사의 타율성이나 정체성을 강조하여 왔다. 그들의 주장은③ 한국사에 작용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과대 평가하고, 반면 한국의 사회나 문화의 자주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었다.(이기백, 『韓國史新論』에서)

■ 답

①(주어)현대의 한국 사학은……(부사어)/에서……(핵심 서술어)성장하였다.

②(주어)어용 사가는……(목적어)/을……(핵심 서술어)강조하여 왔다.

③(주어)주장은……(관형어)/평가하고, 부정하는……(핵심 서술어)것이었다.

주제어가 문장 첫머리에 나타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술어를 찾아야 한다. 한국어의 서술어는 문장의 맨 끝에 오므로 당연히 문장의 끝에 나오는 말이 주제어를 설명하는 서술어이다. (3)의 경우는 [의존 명사+이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포함하여 서술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대 평가하고, 부정하는 것이었다’가 ‘주장’의 서술어이다.

■ 연습

아래 문장을 분석하고 주제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호응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첫해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배움은 계속된다.(이규호, 『말의 힘』에서)

■ 답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어 있다.

이 문장의 주제어는 ‘인간은’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인간’에 대한 설명이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읽어 나가게 된다. 먼저 주제어 ‘인간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술어를 찾기 위해서 문장의 뒤로 눈을 옮기다 보면 다시 ‘배움은’이라는 주제어가 나온다. 서술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서

술어가 나오지 않고 다시 주제가 나오는 것은 글쓴이가 앞에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었기 때문이다. 문장의 끝에 있는 ‘계속된다’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배움은’을 서술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는 주제가 ‘인간은’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따라서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 된 것이다. 위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바꾸면 주제어와 서술어가 명확하게 호응이 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첫해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배움을 계속한다.

■ 연습

아래 문장에서 주어와 주제어에 호응되는 핵심 서술어를 찾아서 이들의 호응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한복은① 몸을 여유롭게 한다. 옷이② 몸을 감싸 주지만 몸집을 조이게 하지 않는 한복은③ 옷과 몸 사이의 공간을 살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바지통의 외곽선은④ 완만한 타원처럼 곡선을 이루고 거들치마는⑤ 끝자락을 끌어올리고 통치마는⑥ 허리춤에 잔주름을 잡아 치마통의 중간을 부풀리게 하여 곡선을 살린다.(윤재근, 『문화 전쟁』에서)

■ 답

주어 또는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못한 곳이 있다. ②의 ‘옷이’는 불필요한 주어이다. ‘몸을 감싸 주

지만 몸집을 조이게 하지 않는’은 ‘웃이’의 서술어가 아니고 ‘한복’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의 호응은 아래와 같다.

- ①한복은……여유롭게 한다
- ②웃이 : 불필요한 주어
- ③한복은……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 ④외곽선은……곡선을 이루고
- ⑤거들치마는……끌어올리고
- ⑥통치마는……곡선을 살린다

④, ⑤, ⑥의 세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 사이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위치럼 분석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가 호응되는데 핵심 서술어인 ‘곡선을 이루고’, ‘끌어올리고’, ‘곡선을 살린다’는 서로 호응되지 않는다. ‘끌어올리고’와 다른 핵심 서술어가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주제어인 ‘외곽선’, ‘거들치마’, ‘통치마’가 서로 이질적이다. ④가 바지 이야기이고 ⑤와 ⑥이 치마 이야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장은 바지통의 외곽선과 치마통의 중간 곡선이 대비되도록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주제어가 있는 문장은 그 핵심 서술어를 찾아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잘못 구성된 부분이 쉽게 드러난다.

■ 연습

아래의 글에서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 사이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세요.

문명의 ‘진보’는① 지난 약 한 세기 동안에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② 지적 차원에서③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빅뱅을 비롯한 우주학 등 물리학에서의 놀라운 새로운 발견과, 기술 공학적 차원에서④ 생명 공학, 전자 공학,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가속적 발전, 경제적 차원에서⑤ 자연의 기술적 정복으로 가능해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물질적 부의 창출, 그리고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⑥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및 전체주의적 평등 사회를 지향했던 동구권의 붕괴로 무한 경쟁적 시장 경제 및 개인주의적 자유 민주 사회를 고집하는 서구권의 최종적 승리가 확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후쿠야마와 함께 ‘역사의 종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박이문, 「진보는 진보적인가?」, 『당대비평』 제5호에서 옮김)

■ 답

위의 글에서는 주제어①의 핵심 서술어를 찾을 수 없다. ‘문명의 진보는 어떻게’의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대비의 기능을 가진 주제어②에 대비되는 다른 주제어가 없다. 즉 ‘한 세기 동안에 목격할 수 있는 것으로는’과 대비되는 문구가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의 뒷부분인 ‘주장이 나올 수 있다’가 어디에 걸리는 서술어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자.

주제어①: 문명의 진보 — 핵심 서술어: 알 수 없음

주제어②: 한 세기 동안에 목격할 수 있었던 것 — 핵심

서술어 : 아래 네 가지

- ㉠ 지적 차원 —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빅뱅을 비롯한 우주학 등 물리학에서의 놀라운 새로운 발견
- ㉡ 기술 공학적 차원 — 생명 공학, 전자 공학,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의 가속적 발전
- ㉢ 경제적 차원 — 자연의 기술적 정복으로 가능해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물질적 부의 창출
- ㉣ 사회 정치적 차원 —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및 전체주의적 평등 사회를 지향했던 동구권의 붕괴로 무한 경쟁적 시장 경제 및 개인주의적 자유 민주 사회를 고집하는 서구권의 최종적 승리가 확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렇게 분석하면, 네 개 차원의 발전이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설명만 있을 뿐, ‘문명의 진보’에 대한 서술은 고스란히 빠졌음을 알 수 있다.

5) ‘은’의 사용법(3): 대조적 기능을 가진 ‘은’

‘은’에는 주제어를 나타내는 기능 외에 대조적 기능이 있다. 대조적 기능이란 다른 것과 비교하여 주어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리킨다. 대조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a: 얼굴이 참 예쁘군요.

b: 얼굴은 참 예쁘군요.

a는 여자의 얼굴이 예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은 아마도 상대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것이다. a에는 얼굴 이외의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얼굴이 예쁘다는 사실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b의 인사를 받은 사람은 a의 인사를 받은 사람처럼 곧바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b에는 말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경우에 얼굴 이외의 다른 곳은 예쁘지 안 예쁜지 모르지만, 얼굴은 예쁘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은’의 의미 특성과 기능에 관해서 연구한 김진호 박사가 그의 책 『국어 특수 조사의 통사·의미 연구』에서 설명해 놓은 바에 따르면 ‘은’은 다른 것과 구별하여 그것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⁵⁾ 따라서 b는 얼굴 외의 곳은 예쁘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얼굴 외의 곳이 예쁘지 안 예쁘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러나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에서 얼굴을 특별히 선택하여 예쁘다고 하는 것은 그 외의 부위가 그렇지 않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 문장을 검토해 보자.

a1: 얼굴이 참 예쁘군요. 다리도 예쁘고요.

b1: 얼굴은 참 예쁘군요. 다리도 예쁘고요.

a1의 두 문장은 매끄럽게 이어지지만, b1의 두 문장은 매끄럽지 못하다. b1에서 ‘얼굴은 참 예쁘군요’ 속에는 다리가 예쁠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얼굴과 다리가 예쁜 여자를 보고 ‘얼굴이 참 예쁘군요’라고 말하지, ‘얼굴은 참 예쁘군요’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리도 예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1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인사 b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않지만, 다른 부위는 얼굴만큼은 예쁘지 않음을 암시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조사 ‘은’은 여러 요소(이를 어학자들은 자매항(姊妹項)이라고 한다) 가운데에서 어떤 요소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른 자매항은 그렇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은’의 이런 기능을 대조 기능이라고 부른다.

c: 그 여자는 얼굴이 예쁘다.

d: 그와 함께 여행은 할 수 없다.

e: 뉴욕에는 가 보았다.

c는 자매항(여러 여자들) 가운데에서 ‘그 여자’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낸다. 선택된 그 여자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이와 대비되는 다른 여자를 선택하여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c1처럼 쓸 수 있다. d는 자매항(여러 행위) 가운데에서 ‘여행’을 선택한 뒤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와 대비되는 다른 자매항을 선택하여 그것은

할 수 있는지 어떤지 말할 수 있다. d1이 다른 자매항을 선택하여 말한 것이다. e는 자매항(여러 도시) 가운데에서 ‘뉴욕’이 선택된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다른 도시를 하나 선택하여 말하면 e2처럼 된다.

c1: 그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저 여자는 다리가 날씬하다.

d1: 그와 함께 여행은 할 수 없지만, 영화는 볼 수 있다.

e1: 뉴욕에는 가 보았지만, 파리에는 가 보지 못했다.

c1-e1은 c-e 문장의 주제어와 대비되는 하나의 자매항을 선택하여 만든 문장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매항을 선택하여 긴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c-e의 주제어로 선택된 것 외의 자매항을 한꺼번에 선택한다면 c2-e2처럼 된다. 이 문장에서 선택된 외의 자매항에 관한 정보를 c-e의 함의(含意, implication)라고 한다.

c2: 그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다른 사람은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 없다.

d2: 그와 여행은 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2: 뉴욕에는 가 보았지만, 다른 곳에는 가 보았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은’은 여럿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그것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된 요소를 지적하는 기능, 그 요소에 한정하는 기능, 다른 요소와 대비하는 기능, 다른 요소보다 강조하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 ‘은’의 대조적 기능에 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친다.

■ 연습

‘은’의 대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 다음 문장이 가지는 함의(含意)를 말하십시오.

“이 환자에게 물은 주어도 괜찮다.”

■ 답

이 환자에게 물 이외의 음식을 주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물만은 주어도 된다. 만일 주어진 문장이 ‘이 환자에게 물 이외의 음식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면, ‘이 환자에게 물만은 주어도 괜찮다’라는 뜻을 포함한다.

■ 연습

‘은’의 대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 다음 문장이 가지는 함의를 말하십시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이 어떤 동물에 속하는지 설명하는 문장이다. 이런 경우에 개미나 꿀벌 같은 동물이 사회적 동물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판단만 한 문장이다.

■ 답

다른 동물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람을 정의한다면) 사람

은 사회적 동물이다.

■ 연습

아래 밑줄 친 부분을 검토하여 주제어와 핵심 서술어를 찾아 보세요.

‘어느 멋진 날’의 홀아비 정치 칼럼니스트는① 일에 쫓겨 머리는② 새집 같고 아이는③ 학교에 지각하게 만들기 일쑤다.(조선일보, 2001. 9. 15에서)

■ 답

‘는’①은 주제어이고 그 핵심 서술어는 ‘지각하게 만들기 일쑤다’이다. ‘는’②와 ‘는’③은 주제어가 아니고 대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조하는 단어가 자매항을 이루기 어렵다. ‘머리’와 ‘아이’가 한 자매항에 들기가 몹시 곤란하다. 따라서 ‘는’의 대조적 기능을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 ‘칼럼니스트는 일에 쫓겨 자신은 새집 머리를 하고 다니고 아이는 학교에 지각하게 만들기 일쑤다’처럼 고치면 한국어다워진다.

6) ‘은’의 사용법(4): 한국어의 카리스마 ‘은’

또래 아이들 네 명이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묻고 그들이 답한 내용을 적으면 아래와 같다.

주인: 무엇을 드릴까요?

아이1: 자장면 주세요.

아이2: 전 우동으로 하겠습니다.

아이3: 전 간짜장요.

아이4: 전 짬뽕입니다.

위의 말 가운데에서 ‘전 우동으로 하겠습니다’, ‘전 간짜장요’, ‘전 짬뽕입니다’라고 한 문장은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문법적인 말을 아무 스스럼없이 하고, 또 상대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한국어가 비문법적인 언어라거나 한국인이 비논리적이라는 비난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문법적’이라는 말이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달리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는 문장 성분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전통적인 언어 인식이 있다. 만일 상대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웬만한 것은 다 생략하려고 한다.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동사에는 목적어를, 불완전 자동사에는 보어를 반드시 써야 문장이 성립하는 영어의 눈으로 본다면, 한국어는 몹시 불완전한 언어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 한국어를 보면 한국어는 매우 자유 분방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보다 더욱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하는 문장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 ‘은’과 접미어 ‘들’이다. 접미어 ‘들’은 한 사람에게 할 말을 여러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는 요소이다. 예컨대 ‘어서들 오시오’, ‘그럼 잘 있게들’처럼 ‘들’을 아무 성분이나 붙여서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들’은 문장의 구성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의미만 더해 주는 데에 비해서, ‘은’은 한국어에서 가장 독특한 문장 구성을 선보이는 데에 쓰인다. 지금부터는 한국어를 가장 한국어답게 하는 조사 ‘은’이 만들어내는 기상천외한 문형을 감상해 보자.

a: 나는 빨간 장미가 좋다.

b: 달은 모양이 둥글다.

위의 문장은 모두 두 개의 주어를 가지고 있다. a는 ‘나’와 ‘장미’, b는 ‘달’과 ‘모양’이 주어이다. 이런 문장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다. 따라서 의역을 하여야 한다. a는 ‘나는 빨간 장미를 좋아한다’로, b는 ‘달의 모양이 둥글다’로 생각하고 번역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은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문장을 구태여 만들어 쓰는 것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언어는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는 ‘나는’과 ‘달은’을 주어로 보고 ‘빨간 장미가 좋다’와 ‘모양이 둥글다’를 서술어로 본다. 서술어가 절(節)로 되어 있으니 서술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장미가’와 ‘모양이’는 서술절의 주어로 보고, ‘좋다’와 ‘둥글다’는 서술절의 서술어로 본다. 이를 그림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주제어	서술어(서술절)		
(주어)	수식어	주어	서술어
나는	빨간	장미가	좋다.
달은		모양이	둥글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주제어를 나타내는 ‘은’이다. 문장의 머리에 ‘은’이 나타나면,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은 주제어와 분리되면서 주제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총동원된다. ‘은’은 한국어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은’은 그 뒤에 단어가 오든, 구가 오든, 절이 오든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연습

아래 문장은 ‘은’의 카리스마적 성격이 잘 드러난 글입니다. 이 문장에 있는 주제어와 주어가 어떤 서술어를 지배하는지 말해 보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① 부동산 임대 소득·사업 소득·일시 재산 소득·기타 소득 또는 산림 소득이②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③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 41조)

■ 답

①은 주제어로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어의 서술어는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계산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이 긴 문장도 ‘지방 국세청장은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문장이 뼈대가 되어 있다. ②의 서술어는 ‘있는’이고, ③의 서술어는 ‘인정되는’이다. 이것들은 모두 핵심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주제어 안에 들어 있는 주어들이다.

2. ‘에’와 ‘에서’

여러분은 아래의 시를 잘 알 것이다. 우리 민족의 최고 서정시인이라고 할 만한 김소월의 「산유화(山有花)」라는 시이다. 시의 제목이 너무 단순하고 막연하여(‘산유화’는 ‘산에 있는 꽃’을 의미한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지만, 내용이 마음을 편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어서, 나는 젊은 시절에 이 시를 무척 좋아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내가 오십대가 된 지금 다시 읽어도 여전히 젊은 날의 신선한 느낌은 내 마음에 그대로 전해 온다. 내가 여기에 갑자기 시를 적은 것은 김소월이 시를 쓰면서 ‘에’와 ‘에서’를 구별한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에는 산과 꽃과 새가 등장한다. 꽃은 ‘산에’ 피고, 새는 ‘산에서’ 산다고 했다. 꽃은 식물이라 움직임이 없고, 새는 동물이라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꽃은 언제나 산의 일부를 이루지만, 새는 그렇지 않다. 김소월은 이런 꽃과 새와 산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에’와 ‘에서’를 사용했다. 만일 이 시의 첫 연에 있는 ‘에’를 ‘에서’로 바꾼다면 어떤 느낌이 날까?

산에서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러면 산과 꽃이 밀착되지 않고 꽃이 ‘피는 행위’를 산에서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다시 말하면 꽃이 산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산에서 분리된다. 이렇게 되면 산의 일부가 되어 소리 없이 피어 있는 꽃의 느낌을 담아낼 수 없다. 이런 느낌은 꽃과 대비되고 있는 새로 인해서 더욱 강화된다. 새는 ‘산에서’ 산다고 했기 때문이다. 꽃은 산의 일부로서 존재하지만 새는 산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이다. ‘에서’라는 조사가 새의 ‘삶’에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적극성’을 부여한다. 이 얼마나 섬세한 조사 선택인가! 그러나 지금의 문인들은 ‘에서’를 써야 할 곳에 습관적으로 ‘에’를 쓰는 경우가 많다. ‘에’와 ‘에서’의 사용법을 공부해 보자.

연습

‘에’와 ‘에서’에 유의하면서 아래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 (1)이 집에도 사람이 산다.
- (2)이 집에서도 사람이 산다.

■ 답

(1)은 집이 비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지 않게 하는 표현이고, (2)는 사람이 활동하며 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1)의 집은 존재의 장소이고 (2)의 집은 활동의 장소이다.

1) ‘에서’ 사용법(1): 활동하는 장소에

동사는 일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품사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동사는 없다. 그러나 동사를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동사는 동사이면서 실제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있다’, ‘계시다’, ‘살다’, ‘머무르다’와 같은 동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동사는 장소와 밀착되어 그 장소에서는 그 행동이 지속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동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조사 ‘에’가 장소에 붙어 사용된다.

이에 비하여 비교적 활동이 강한 동사는 ‘에’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에서’와 어울린다. 이들 동사는 비교적 단시간에 그 활동을 마치는 것들이어서 그런 활동이 눈에 쉽게 보인다. ‘달리다’, ‘놀다’, ‘보다’ 따위가 이런 동사들이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이 눈에 보이는 동사는 그 활동 장소에 ‘에서’를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 장소에서 그런 활동이 끝나고 다른 활동이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소와 행동이 밀착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동사가 존재의 의미를 띠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에’를 붙이고, 활동의 의미를 띠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에’를 붙이는 것이다. 아래 예문을 보면 우리가 이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에’와 ‘에서’를 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 (1)돈은 지갑에 있다.
- (2)우리는 스위스에 머물고 있다.
- (3)어머님은 집에 계신다.

-에서-

- (1)아이들이 마루에서 논다.
- (2)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달린다.
- (3)어젯밤 꿈속에서 엄마를 보았다.

2) ‘에서’ 사용법(2): ‘에서’는 동사를 활성화한다

‘까치글방’의 박종만 사장이 언젠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서울에 산다가 맞습니까, 서울에서 산다가 맞습니까. 나는 ‘서울에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서울에’가 옳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서울에서 산다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뿐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대답하게 되었다. ‘살다’를 정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인식하면 ‘서울에’를 쓰고, 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서울에서’를 쓴다. 아래의 대화에서 ‘살다’의 의미는 ‘있다/거주하다’의 의미와 같다.

“서울로 유학 간다고? 서울에 누가 사니?”

“예, 형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대화에서 ‘살다’는 ‘생활하다/활동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다.

“형이 언제부터 서울에서 살았니?”

“5년 전부터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교통난 때문에 서울에서 못 살 터인데, 앞으로 서울에서 살 작정이니?”

“예, 가능하면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다’는 ‘에’, ‘에서’ 모두와 친한 동사이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고 인식하면, 사람과 장소가 밀착됨으로써 분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에’를 쓰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행동이 있다고 인식하면, 사람과 장소가 분리되고 사람이 장소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용한다. 이를 역으로 말한다면 ‘에서’는 동사를 활성화하고, 주체가 장소를 선택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살다’와 ‘에’, ‘에서’의 관계는 우리가 ‘살다’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다르게 된다. ‘살다’를 태어난 이후 줄곧 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관점에서 보면 장소의 교체는 별 의미

가 없다. 따라서 ‘서울에 산다’, ‘미국에 산다’처럼 ‘에’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살다’를 그렇게 정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생활로 본다면 ‘서울에서 산다’, ‘미국에서 산다’처럼 장소를 지정하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에서’는 ‘살다’를 활성화하고 주체가 장소를 선택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인들이 ‘살다’에 ‘에서’를 붙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에’를 붙인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살다’를 활동하는 개념보다는 거주하는 개념으로 간주한 것 같다. 문인들의 사용 실태를 조금 분석해 보자.

(1) ‘(누구는) -에 살다’의 형태

* 20년 전쯤에 선생님은 어디에 살았습니까?(이인화, 「초원을 걷는 남자」에서)

* 가루라(迦樓羅)외다. 용을 잡아먹는다는 상상의 거조(巨鳥)요. 수미산 사해(四海)에 사는데(이문열, 「금시조」에서)

* 그는 오십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최인석, 「모든 나무는 얘기를 한다」에서)

* 그래서 우리는 어찌면 달은 없고 손가락만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이윤기, 「손가락」에서)

* 불행히도 나는 잘려나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정호승, 「종메」에서)

(2) ‘(누구가) -에 살다’의 형태

* 나는 내가 지구 위에 살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가 질풍신뢰의 속력으로 광대무변의 공간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허망하였다.(이상, 「날개」에서)

* 게다가 자꾸 토하기까지 하니 그 놈의 냄새에 곁에 사람이 살 수가 있나?(이광수, 「무명」에서)

* 15평의 이 작은 아파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하성란, 「곰팡이꽃」에서)

* 고양이와 한 집에 살면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조은, 「생명력이 강한 집」에서)

(3) ‘-에 사는 사람’의 형태

* 손님은 근방에 살고 있는 읍장님의 막내딸이었는데.(심상대, 「미」에서)

* 서울에 사는 놈들 구십구 프로가 시골에서 온 놈들이야.(한승원, 「검은댕기두루미」에서)

* 아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의 원주민일 것이다.(신경숙, 「부석사」에서)

* 집들이가 있는 다음날 나는 이층에 사는 사내를 찾았다.(박성원, 「댈러웨이의 창」에서)

* 내가 아주 어릴 때 당산나무 앞집에 살던 할머니가.(김윤영, 「영영」에서)

* 607호에 사는 호랑이 할머니가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타

였습니다.(김경옥, 「엘리베이터 안의 비밀」에서)

(1)은 주제어를 설정한 문장들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제어는 반드시 뒤에 핵심 서술어를 취하는데, 이 핵심 서술어가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된다. 주제어의 서술어로 쓰이는 ‘살다’는 단순히 ‘생명이 있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활동의 공간을 지적하는 조사인 ‘에서’를 쓰는 것이 좋다. 이처럼 ‘에’와 ‘에서’에는 ‘살다’의 의미를 바꾸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대중 가요 「서울의 찬가」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립니다”는 이런 점에서 주어의 의지를 잘 살린 가사임이 분명하다.

(2)의 형태는 [주어+부사어+동사 서술어]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동사 서술어 ‘살다’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살다’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붙여넣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존재함’의 의미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문인들은 쉽게 ‘에’를 많이 사용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에서 쓰인 ‘에’처럼 정적인 환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문인들이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다’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넣어 줄 수 있고, 주어에도 생동감을 넣어 줄 수 있는 ‘에서’를 적극적

으로 사용하여 ‘살다’를 ‘살려내어’ 보기를 권한다.

(3)의 형태는 [부사어+동사 관형어+체언]의 구조이다. 동사 ‘살다’가 관형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2)보다 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시된 문장처럼 당연하게 ‘에’를 사용하게 되었다. (1)과 (2)의 형태에서 ‘에서’를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3)의 형태에서는 자연히 ‘에서’가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3) ‘에서’ 사용법(3): ‘에서’는 분리시키는 조사

동사 가운데는 동작의 결과로 자연히 어떤 장소에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에 그 장소에 쓰이는 조사의 기능이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에’가 붙으면 그 장소로 다가가거나, 그 장소를 향해서 움직이거나, 그 장소를 목표로 하는 의미를 주지만, ‘에서’를 붙이면 그 장소에서 출발하거나 그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의미를 나타낸다. ‘에’와 ‘에서’는 서로 반대의 방향에 있는 장소를 나타내게 되는 셈이다.

a: 그는 서울에 왔다.

b: 그는 서울에서 왔다.

에: 접근(도착, 향해 감, 가까워짐) → 장소 ←

에서: 분리(출발, 벗어남, 멀어짐) ← 장소 →

위의 두 문장은 ‘그’가 있는 장소가 전혀 다름을 잘 나타내 준다. (1)은 그가 지금 서울에 있음을 나타내고, (2)는 전에는 서울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을 떠나 거기에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문장의 의미가 구별되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에’와 ‘에서’의 용례를 좀더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에-

- (1)영화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 (2)몸에 균이 들어가면 항체가 생긴다.
- (3)서울에 도착해 보니 산에 눈이 쌓여 있었다.
- (4)아이가 금방 잠에 빠져들었다.
- (5)진흙이 옷에 묻었다.
- (6)범인들은 동굴 속에 숨어 있다.
- (7)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라.

-에서-

- (1)영화관에서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다.
- (2)몸에서 독한 냄새가 난다.
- (3)서울에서 출발하여 이곳으로 오는 중이다.
- (4)아이가 잠에서 깨어났다.
- (5)진흙이 옷에서 떨어졌다.
- (6)범인들은 동굴 속에서 생활했다.

(7)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래 문장은 ‘에서’를 쓸 자리에 ‘에’를 쓴 것들이다.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장을 비문(非文)이라고 한다.

(1)형은 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에’→‘에서’

(2)그 광경은 꿈에 본 것과 다르지 않았다. ‘에’→‘에서’

(3)이 정보를 인터넷에 찾아라. ‘에’→‘에서’

■ 연습

‘에’①-③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꼭 우리 중에② 뽑아야 하나?”

“아마, 우리 중에③ 뽑힐 만한 사람은 없을 걸.”

‘에’는 접근의 장소에 쓰이고, ‘에서’는 분리, 멀어짐의 장소에 쓰인다고 했다. 위의 문장들은 선택의 장소를 나타낸다. 선택이란 일정한 숫자나 무더기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숫자 또는 그 무더기에서 하나가 분리되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에’①-③은 모두 잘못된 것일까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의 용도

접근하는 조사: 에, 에게, 한테, 로

벗어나는 조사: 에서, 에게서, 한테서,로부터

■ 답

선택의 의미가 명확한 두 문장에 쓰인 ‘에①과 ‘에②는 모두 ‘에서’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중에서 누구’, ‘우리 중에서 뽑아야’처럼 반드시 ‘에서’를 써야 한다. 그래야 일정한 무더기에서 분리되어 하나가 선택되기 때문이다. ‘에③은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이다. ‘뽑힐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없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우리 중에서’ 뽑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포함한 더 큰 집단에서 뽑히는 것을 생각한 말이다.

■ 연습

‘에②과 ‘에②를 검토해 보세요.

“눈에① 다래끼가 났구나? 눈썹을 뽑아 줄게.”

“안 돼! 지금 뽑으면 눈에② 눈물이 나잖아.”

두 문장이 모두 동사 ‘나다’를 썼지만 하나는 ‘나서’ 아직 그 자리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나는 분리되는 상태이다. 어느 문장이 분리되는 상태를 나타내는지 검토하고 잘못 사용한 ‘에’를 바로잡으세요.

■ 답

‘에②가 잘못이다. 다래끼는 언제나 눈에 붙어 있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눈물은 눈과 분리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눈

물은 ‘눈에서’ 난다고 해야 한다. 만일 눈물이 일반적인 속성
격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계속 고여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면
마땅히 ‘에’를 써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처럼 쓴다.

■ 연습

‘에’와 ‘에서’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곳의 번호를 적고 그
이유를 말하세요.

시내 곳곳에서① 있던 사람들이 하나들 공원에서② 모여들기 시
작했다. 공원에서③ 의자에④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에서⑤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신호가 울리자 모든 사람들이 자
리에⑥ 일어나서 한 곳에서⑦ 모였다. 사람들 사이에⑧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⑨ 서 있는 한 사
람을 바라보았다.

■ 답

①, ②, ③, ⑤, ⑥, ⑦, ⑧, ⑨

(1)은 존재의 의미와 어울리도록 ‘에’를 써야 하고, ②는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이므로 ‘에’를 써야 한다. ③과 어울리
는 서술어는 ‘있었다’이므로 존재의 의미와 어울리도록 ‘에’를
쓰는 것이 옳다. ④는 ‘앉다’의 도착점이므로 조사가 제대로
쓰였고, ⑤는 눕는 행위의 도착점이므로 ‘에’가 옳다. ⑥은 앉
아 있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출발점을 나타내는 ‘에서’
가 옳다. ⑦은 모이는 행위의 목표 지점이므로 ‘에’가 옳다.

⑧은 웅성거리는 소리가 출발한 곳을 가리키므로 ‘에서’를 써야 한다. ⑨는 ‘서다’의 도착점이므로 ‘에’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의 글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다.

시내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원에 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신호가 울리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곳에 모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4) ‘에’를 잘못 쓰는 두 가지 사례

이제까지 ‘에서’를 쓸 자리에 ‘에’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세히 설명했다. ‘에’와 ‘에서’의 특성을 인식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는 한 음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에’를 쓰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편의적인 글쓰기보다는 정확한 글쓰기를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에’와 ‘에서’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쓰는 잘못이 아닌, 엉뚱한 잘못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주로 외국어를 직역하여 읽거나 쓰던 버릇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한국어를 외국어처럼 쓰는 잘못이 자주 나타난다. ‘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 잘못을 설명해 보겠다.

‘에 다름 아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어에 ‘무엇에 다름 아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99년에 국어 문화 운동 본부가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많은 언론인들이 이 표현을 쓰고 있었다.

* 관-민 인사 교류는 관료 사회 곳곳에 ‘민간인 선생’을 투입하고자 하는 구상에 다름 아니라고 총무청 관계자는 설명한다.(조선일보, 99. 1. 14에서)

* ‘하반기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 빨리 시장으로 오시오’하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동아일보, 99. 4. 15, 데스크 칼럼에서)

* “여권의 대화정국 복원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한나라당의 ‘장내 복귀’ 단서는 “여차하면 다시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는 엄포 농기에 다름 아니었다.(한국일보, 99. 2. 8, 기자의 눈에서)

* 여당이 단독청문회를 예정한 오늘 야당은 수원에서 장외 집회를 갖기로 했다는데 이는 말하자면 서로간의 기세 싸움이요, 당리당략 다툼에 다름 아니다.(중앙일보, 99. 1. 18, 사설에서)

* 인터넷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훔쳐내고 교란하는 해킹은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에스비에스, 99. 7. 28, 8시 뉴스, 김형민 앵커)

* 이는 전적으로 정치 보복이며 부산 경제 죽이기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케이비에스, 99. 7. 7, 박종웅 의원)

위의 예를 보면 대개 ‘무엇은 무엇이다’는 뜻을 멋지게 표현

하기 위해서 ‘무엇은 무엇에 다름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에 다름 아니다’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조사 ‘에’는 ‘다르다’나 ‘아니다’와 함께 쓰이는 일이 없다. ‘다르다’와 함께 쓰이는 조사로는 ‘와/과’가 있다. ‘이것은 내 것과 다르다’처럼 쓰인다. 또 ‘아니다’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부사격 조사를 취하지 않는다. ‘너는 친구가 아니다’처럼 쓰인다. 따라서 ‘에 다름 아니다’는 어느 모로 보나 잘못이다. 이를 한국어답게 표현하려면 ‘과 다름(이) 없다’처럼 써야 한다.

‘에 틀림없다’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다’나 ‘분명하다’에도 ‘에’를 쓴다. ‘에’는 ‘이 약은 몸에 좋다/나쁘다’의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형용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특정 형용사를 사용할 경우에 ‘에’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외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 돈되는 일이 최우선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식한 사람에 틀림없다.(한국일보, 99. 4. 2, 정달영 칼럼에서)

* 부채 비율을 200%까지 끌어내리는 일은 무척 난해한 작업임에 틀림없다.(한국일보, 99. 4. 3, 기자의 눈에서)

* 김교수는 “청나라 황제를 대신한 사신과 조선의 왕이 참여한 의전행사에 조선의 삼각 태극깃발과 청의 삼각 용깃발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양국 왕실을 상징하는 깃발임에 틀림없다”

고 주장한다.(동아일보, 99. 7. 14, A13쪽에서)

* 여기에 이미 예고된 노동계의 파업과 일본 엔화의 약세 지속 가능성 등도 악재임에 분명하다.(중앙일보, 99. 4. 16, 사설에서)

위 예문에서 쓰인 ‘틀림없다’는 ‘그렇다’를 확신에 찬 표현으로 바꾼 것들이다. 즉 ‘무엇이다’를 ‘무엇임에 틀림없다’ 또는 ‘무엇에 틀림없다’처럼 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앞에서 설명한 ‘무엇에 다름 아니다’와 같은 표현으로서 같은 이유로 한국어답지 않은 표현이다. ‘에 틀림없다’, ‘에 분명하다’를 한국어답게 표현한다면 ‘이 틀림없다’, ‘이 분명하다’가 된다.

보태기

우리 나라 근대시의 효시로 알려진 최남선의 「海에게서 少年에게」를 독자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묘하다. 「海에게서 少年에게」는 통사적으로 보면 ‘영희에게서 영수에게’와 같은 구조이다. 이 구조는 ‘무엇이 영희를 거쳐 영수에게 이동함’ 또는 ‘영희에게 있던 무엇이 영희를 떠나 영수에게 이동함’을 가리키는 경우에 쓰인다. 즉 ‘영희’나 ‘영수’는 같은 자격의 부사어이고, 주어는 ‘무엇’이다. 따라서 「海에게서 少年에게」의 경우도 ‘海에게서’나 ‘少年에게’는 부사어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해당하는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海’가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마지막 연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철썩 철썩, 썩아
 저세상 저사람 모두 미우나
 그중에서 딱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膽 크고 純眞한 少年輩들이
 才弄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너라 少年輩 입맞춰주마.
 철썩 철썩 추르릉 콧.

이런 시의 제목이라면 당연히 ‘海’를 주어로 삼고 ‘少年’을 부사어로 삼아서 ‘海가 少年에게’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물론, ‘海에서 少年에게’로 해도 통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하면 주체가 ‘海’가 되지 않고 작가(시적 화자)가 되므로 이 시의 제목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 우리의 위대한 학자며 시인인 최남선이 모국어의 조사를 이처럼 이상하게 사용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제목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海’란 한국어에 없는 어휘라는 점을 최남선은 인식하지 못했다. 한국어에는 ‘해’와 ‘害’, ‘解’, ‘亥’는 있지만 ‘海’는 없었고 지금도 없다. ‘해’는 태양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害’는 ‘해를 끼치다’에 쓰이는 어휘이며, ‘解’는 방정식의 값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어휘이고, ‘亥’는 돼지띠를 나타내는 어휘이다. 일본어에서는 ‘海’라고 적어도 이것을 일본어 ‘우미’라고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海’는 ‘해일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海’는 마땅히 ‘바다’로 적어야 했다. 이와 같은 잘못은 이인직의 「血의 淚」에 사용된 ‘血’, ‘淚’, 「鬼의 聲」에 사용된 ‘鬼’, ‘聲’에도 나타난다. 이런 사정은 이 시대에 글을 썼던

대부분의 문인들에게서 한결같이 보이는 현상이다. 이로써 당시의 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관과 모국어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제목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다. 이효석의 큰딸이 자기 아버지를 회고한 글에 '모밀꽃 필 무렵'을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한 글이 적혀 있다. 잠깐 읽어 보자.

‘모밀’이라는 단어가 방언이라 하여 작가가 붙여 놓은 제목까지 표준어라고 하는 ‘메밀’로 임의로 바꾸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나미, 『마지막 날의 아버지 이효석』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선 작가의 의도를 무시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것이 안타깝고, 글의 제목을 고쳐야 할 정도로 어휘를 소홀하게 사용하는 우리 작가들의 태도가 안타까운 것이다. 물론 이효석의 경우는 아직 표준어로서 어떤 어휘가 선택되었는지 불확실한 시대에 ‘모밀’을 사용하는 지방에 살던 작가가 자기 언어로 적은 것이므로 최남선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모밀’이 아닌 ‘메밀’이 표준어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교 육상으로 이 소설의 제목을 「메밀꽃 필 무렵」으로 고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은 작가나 모든 사람들이 양해해야 할 것이다. ‘메밀’과 ‘모밀’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효석의 소

설 이름을 「메밀꽃 필 무렵」으로 적는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일이다. 김유정의 「동백꽃」이나 한승원의 「검은댕기두루미」도 이런 점에서 재검토 대상이 되는 제목이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먼저 정확한 어휘와 어법을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어미

백마강은 공주 곶나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제 홍망의 꿈 자취를 더듬어 흐른다. 풍월도 좋거니와 물도 맑다. 그러나 그것도 부여 전후가 한참이지, 강경에 다다르면 장꾼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 비린내에 고요하던 수면의 꿈은 깨어진다.(채만식, 『탁류』에서)

이 인용문은 장편 소설 『탁류』의 들머리에 나오는 것으로서, 금강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지금은 강경에서 장꾼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채만식의 금강은 오늘날도 유유히 공주, 부여, 강경을 거쳐 군산에 다다라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 위의 글에는 금강을 묘사하기 위하여 많은 동사와 형용사가 동원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더듬어’, ‘흐른다’, ‘다다르면’, ‘흥정하는’, ‘깨어진다’ 등은 동사이고, ‘ 좋거니와’, ‘맑다’, ‘고요하던’ 등은 형용사이다.

이들 동사와 형용사를 분석하면 뜻이 드러나는 부분과 문법적인 기능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이들은 ‘시작하+여’, ‘더듬+어’, ‘흐르+ㄴ다’, ‘다다르+면’, ‘흥정하+는’,

‘깨어지+ㄴ다’, ‘좋+거니와’, ‘맑+다’, ‘고요하+던’처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의미는 앞 부분에 실려 있고, 기능은 뒤 부분에 실려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는 언제나 이처럼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간(語幹),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미(語尾)라고 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간과 어미의 관계는 어간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미를 바꾸어 사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간이 어미를 부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간 자체를 동사나 형용사로 보아야 하겠지만(이 관계는 명사가 조사를 부리는 관계와 같다), 어간이 어미 없이 사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고 해서 ‘옷을 입은 사람’만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다. 비록 문법에서는 어간과 어미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이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어미를 단순히 동사나 형용사의 꼬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문법 요소로서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1. 어미 ‘-고’와 ‘-며’

아래의 동요는 어른들이 아이들과 놀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이다. 일본 동요를 누군가가 번역해서 만든 노래일 테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으니 구태여 국적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에서 한번 소리를 내어 불러 보기 바란다.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 계신 곳에
엽서 한 장 써 주세요.

아마 어렸을 적에 불렀던 동요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것을 옳은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그들이 어른이 되면 당연한 것처럼 같은 잘못을 자기 아이들에게 물려주어 결국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으로 자리잡게 되는 법이다. 여러분은 ‘울고 가는 저 기러기’를 상상할 수 있는가? 아마 틀림없이 ‘끼룩끼룩’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상상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기러기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모양을 묘사해 보기 바란다. 이번에는 ‘기러기가 끼룩끼룩 울고 간다’라고 말할 것인지 ‘기러기가 끼룩끼룩 울며 간다’라고 말할 것인지 검토하면서 말이다. 아마 대부분은 ‘기러기가 울고 간

다'라고 하지 않고 '기러기가 울며 간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은 어미 '-고'와 '-며'의 차이를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고'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한 주체가 동시에 두 동작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는 동사이므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 두 동사를 어떻게 연결하면 두 동작이 동시에 진행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어떤 어미를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미 '-고'를 쓰지 않고 '-며'를 쓴다.

a: 여기서 먹고 가자.

b: 결과를 보고 와라.

c: 친구 상가에 가서 실컷 울고 왔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미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주체가 두 동작을 할 때에 그 두 동작을 나열하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고'이다.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로 연결되는 동작은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어미 '-며'는 한 주체가 두 동작을 동시에 함을 나타낸다.

d: 시간이 없으니 먹으며 가자.

e: 결과를 보며 말했다.

f: 너무 아파서 줄곧 울며 왔다.

‘-고’와 ‘-며’의 기능을 좀더 뚜렷이 하기 위하여 아래 문장을 검토하여 보자. a1, b1, c1은 ‘-고’의 기능보다 더 확실하게 동작의 선후를 나타내는 어미 ‘-고서’를 사용한 것이고, d1, e1, f1은 ‘-며’의 기능보다 더 확실하게 동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면서’를 사용한 것이다.

a1: 여기서 먹고서 가자.

b1: 결과를 보고서 와라.

c2: 친구 상가에 가서 실컷 울고서 왔다.

d1: 시간이 없으니 먹으면서 가자.

e1: 사태를 보면서 말했다.

f1: 너무 아파서 줄곧 울면서 왔다.

이처럼 한 주체가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에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내려면 ‘-고’나 ‘-고서’를 써야 하고,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려면 ‘-며’나 ‘-면서’를 써야 한다. 행위의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두 문장이 독립적으로 이어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문장을 잇는 데 쓰이는 연결 어미 ‘-고’를 쓴다.

g: 아버지는 발을 가시고, 어머니는 빨래를 하신다.

h: 지금은 바람도 세차게 불고, 눈도 많이 내린다.

■ 연습

아래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어미로 ‘-고’와 ‘-(으)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해 보세요.

- (1) 동생은 하던 일을 멈추() 나에게 달려왔다.
- (2) 동생은 싱글거리() 나에게 달려왔다.
- (3)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웃() 말했다.
- (4) 영화는 큰소리로 대답하() 주위를 돌아보았다.
- (5) 아내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 돌아서서 울기 시작했다.
- (6)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이가 눈을 뜨() 나를 쳐다보았다.
- (7) 나는 그의 눈을 바로 보() 물었다.
- (8) 웃() 사는 것이 건강에 좋다.
- (9) 어머니가 나가시() 뒤편에 아버지도 나가셨다.
- (10) 종로에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 자동차도 많이 다닌다.

■ 답

(1)은 한 동작이 끝난 뒤에 다음 동작을 한 것이므로 ‘-고’가 맞다. (2)는 싱글거리는 동작과 달려오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므로 ‘-며’가 맞다. (3)도 웃는 동작과 말하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으며’가 맞다. (4)는 ‘-고’와 ‘-며’를 다 쓸 수 있다. ‘-고’를 쓰면 대답을 마친 뒤에 주위를 돌아본 것이 되고, ‘-며’를 쓰면 대답을 하는 도중에 주위를 돌아본 것이 된다. (5)는 한 동작이 끝난 뒤에 다른

동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가 맞다. (6)은 동작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가 맞다. (7)은 보면서 묻는 동작을 할 수 있으므로 ‘-며’가 맞다. (8)은 ‘-으며’와 ‘-고’를 다 쓸 수 있다. ‘-으며’를 쓰는 경우에는 사는 동안 줄곧 웃는다는 의미가 되고, ‘-고’를 쓰면 사는 동안의 한 순간순간에 웃는다는 의미가 된다. (9)와 (10)은 주체가 다른 두 행위를 연결하는 경우이므로 ‘-고’를 써야 한다.

2) ‘-며’에는 동작을 나열하는 기능이 없다

‘-며’는 어떤 동작을 하는 동안에 다른 동작도 함께 함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따라서 ‘-며’는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닌 두 동사를 잇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a: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b: 마음껏 먹고 마시자.

a1: 으며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b1: 마음껏 먹으며 마시자.

a의 ‘오고 가는’은 ‘오’와 ‘가’를 나열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의 의미를 가진다. 만일 ‘오고 가는’을 a1처럼 ‘으며 가는’으로 바꾸면 말이 되지 않는다. 오는 동작과 가는 동작은 동시에 할 수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어미 ‘-며’가 어울릴

리가 없다.

b는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를 권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을 b1처럼 ‘먹으며 마시자’라고 한다면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를 모두 권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마시는 하나의 행위만 권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나열할 때에는 a나 b처럼 ‘-고’를 쓰지 ‘-며’를 쓰지 않는다.

다만,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에 ‘-고’가 잇달아 나오는 것을 꺼려서 ‘-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이 명확한 여러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에 이런 방법이 사용된다. 아래의 예에서 쓰인 ‘-며’는 ‘-고’를 대신해서 동작을 나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c: 우리는 함께 극장에도 갔고, 음악회에도 갔으며, 때로는 무도장에도 갔다.

d: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함께 하며, 잠도 함께 잔다.

■ 연습

괄호 속에 ‘-며’ 또는 ‘-고’를 넣어 보세요.

- (1) 여행하면 보() 듣는 것이 많아진다.
- (2) 일하() 쉬는 것을 구별해라.
- (3) 이곳은 내가 놀(), 싸우(), 배우() 어린 시절을 지낸 곳이다.
- (4) 우리는 만나면 서로 헐뜯(), 욕하(), 할퀴() 싸운다.
- (5) 어제는 비가 내렸(), 바람이 불었(), 기온도 내려갔다.

■ 답

(1)에는 나열의 기능이 있는 ‘-고’가 들어가야 한다. (2)에도 나열의 기능이 있는 ‘-고’가 들어가야 한다. 만일 ‘일하며 쉬는’이라고 하면 일을 하면서 틈틈이 쉬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3)은 ‘놀고, 싸우고, 배우며’가 맞다. 이것은 원래 ‘놀며, 싸우며, 배우며’의 뜻인데 나열의 기능을 가진 ‘-고’를 써서 몇 개의 동사를 나열하게 한 것이다. 만일 ‘배우고’라고 한다면 ‘논 곳’, ‘싸운 곳’, ‘배운 곳’, ‘지낸 곳’처럼 나열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4)는 ‘헐뜯고, 욕하고, 할퀴며’가 맞다. 만일 ‘할퀴고’라고 한다면 ‘헐뜯음’, ‘욕함’, ‘할퀴’, ‘싸움’이 독립적인 행위가 된다. (5)는 ‘내렸고, 붙었으며’가 맞다. 이 경우의 ‘-며’는 ‘-고’와 같이 나열의 기능을 한다.

3) ‘-며’와 ‘-면서’

이 두 어미가 동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뜻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a: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b: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휘에 매우 민감한 사람은 ‘-며’보다 ‘-면서’가 더 행동을 잘 드러내는 어미라고 보고, a의 ‘웃으며’보다 b의 ‘웃으면서’

가 웃는 행위를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미미하다.

‘-며’와 ‘-면서’의 의미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은 형용사의 어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며’는 단순히 두 형용사를 나열하는 기능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에 ‘-면서’는 두 형용사를 아우르는 기능으로 쓰인다. 이때 ‘-면서’는 ‘-고’와 같은 기능을 한다.

c: 그의 다리는 굵고 짧다.

d: 그의 다리는 굵으면서 짧다.

c와 d의 두 문장에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면서’는 조사 ‘이다’의 어미로도 훌륭하게 쓰인다. 이 경우에는 ‘-고’보다 ‘-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e: 배우이고 가수인 사람들이 모였다.

f: 배우이며 가수인 사람들이 모였다.

g: 배우이면서 가수인 사람들이 모였다.

e는 배우와 가수가 모였다는 말이고, f는 배우 겸 가수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이다. g는 f보다 더욱 확실하게 배우 겸 가수들이 모였다는 뜻을 나타낸다.

연습

다음 괄호 속에 ‘-고’, ‘-며’, ‘-면서’를 골라 넣어 보세요.

- (1) 민족주의자() 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셨다.
 (2) 여기는 가수() 작곡가인 사람들만 오는 곳이다.
 (3) 동생이 울() 나에게 숙제를 부탁했다.
 (4) 젊() 아름다운 여자들이 다 모였다.
 (5) 가을 산이 붉() 파랗게 채색되어 있다.

■ 답

(1) 신채호 한 사람을 꾸미므로, ‘-며’가 적절하다. (2) ‘-고’를 쓰면 ‘가수와 작곡가’를 나타내게 되고, ‘-며/-면서’를 쓰면 ‘가수 겸 작곡가’를 나타내게 된다. (3) ‘-며’가 적절하다. ‘-면서’를 써도 좋다. (4) ‘-고’가 적절하다. 젊은 여지들과 아름다운 여자들의 뜻이다. ‘-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5) ‘-고’가 어울린다. ‘-고’는 ‘붉은 색과 파란 색’의 의미를 나타낸다.

2. 어미 ‘-므로’와 조사 ‘으로’

한글 맞춤법 제57항에는 비슷하게 소리가 나지만 의미나 쓰임새가 다른 어휘들이 용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런 어휘 가운데 어미 ‘-므로’와 조사 ‘으로’가 포함되어 있다. 규정에 제시된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b: 그는 믿음으로 산 보람을 느꼈다.

a의 ‘믿음으로’와 b의 ‘믿음으로’가 소리가 같기 때문에 어미 ‘-므로’와 조사 ‘으로’를 자칫 혼동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믿음으로’는 ‘믿+으로’의 구성으로서 동사 ‘믿다’의 어간에 연결 어미 ‘-(으)므로’가 붙은 형태이다. 이에 비해서 ‘믿음으로’는 명사 ‘믿음’에 수단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은 형태이다. 위 용례가 썩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형태가 가지는 의미의 차이는 구별해낼 수 있으니 잠깐 설명을 하겠다.

a의 문장은 ‘그가 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믿는 대로 된 두 개의 문장이 어미 ‘-므로’에 의해서 한 문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잇는 역할을 하는 어미를 ‘연결 어미’라고 한다. ‘-므로’는 바로 연결 어미의 하나로서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b의 문장은 ‘그는 믿음을 가졌다. 그것으로 산 보람을 느꼈다’의 두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한데 모아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믿음’은 산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조건이고, 조사 ‘으로’가 조건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c: 그는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c는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서술어를 이루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가 ‘으로’이다. 따라서 ‘믿으므로’와 ‘믿음으로’는 전혀 다른 구성과 쓰임새를 가지는 어구이다. 다른 동사에 붙는 어미 ‘-므로’와 그 동사의 명사형에 붙는 조사 ‘으로’를 검토해 보자.

d: 영수는 열심히 노력하므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e: 영희는 열심히 노력함으로 성공하려고 한다.

d는 영수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한 문장이다. ‘노력하다’의 어간에 조건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므로’가 붙은 것이다. e는 영희의 결심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즉 영희가 돈이나 연줄을 동원하여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인 ‘열심히 노력함’에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를 붙이게 된 것이다.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로 ‘으로써’가 있다. ‘으로써’는 ‘으로’를 강조하는 부사격 조사인데, 아래와 같이 쓰인다.

f: 돈과 권력으로써 사람을 회유하려고 한다.

g: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써 국민을 설득했다.

위의 예문에 쓰인 ‘(으)로써’는 ‘(으)로’와 같이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h: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i: 젊은이들은 죽음으로써 나라에 봉사하고자 한다.

위의 예문은 ‘사랑함’과 ‘죽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무엇을 함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본다.

j: 영수는 열심히 노력하므로써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k: 영희는 열심히 노력하므로써 성공하려고 한다.

위 예문의 ‘노력하므로써’는 연결 어미 ‘-므로’에 ‘씨’를 붙인 것인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 연결 어미 ‘-므로’는 ‘씨’를 붙여서 강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므로’에 ‘씨’를 붙여도 강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미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므로씨’라는 어미는 한국어에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조건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를 설명한 김에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서’와의 구별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으)로써’와 ‘(으)로서’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적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한글 맞춤법 제57항에 이 두 조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l: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m: 닭으로써 꾹을 대신했다.

l은 사람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부사격 조사 ‘(으)로서’가 쓰인다.

이에 비해 m은 닭이라는 사물을 이용하여 꺾을 대신했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여기서 ‘닭’은 이용된 사물, 곧 수단이 되었는데,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부사격 조사 ‘(으)로써’가 쓰였다. 이 두 조사의 기능을 좀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용례를 하나 더 제시하여 보겠다.

n: 그는 자기 회사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o: 쌀로써 빚은 술은 몸에 유익하다.

위의 예문을 읽음으로써 조사 ‘(으)로서’와 ‘(으)로써’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줄 믿는다. 그런데 위의 두 조사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n: 그는 자기 회사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o: 쌀로 빚은 술은 몸에 유익하다.

즉 ‘(으)로서’와 ‘(으)로써’를 모두 ‘(으)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조사는 예문에서처럼 ‘(으)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조사 ‘(으)로’를 강조하는 말이 ‘(으)로써’이고, ‘(으)로서’는 ‘(으)로’에 보조사 ‘서’가 붙어 자격의 의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써’와 ‘서’가 어떤 기능을 하든, 원래 ‘(으)로’에 덧붙은 것들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써’나 ‘서’는 모두 사족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더 강조하거나 강화하려고 덧붙인 것이 자칫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나치게 어지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써’와 ‘서’를 구별하기 어렵다면

그냥 ‘(으)로’만 사용하고, 강조를 위해서 굳이 쓰려면 ‘(으)로써’는 사물을 수단이나 재료로 표현하는 조사이고, ‘(으)로서’는 사람을 자격이나 지위로 표현하는 조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연습

아래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세요. 문장의 끝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를 붙이거나 그 명사형에 조사를 붙이면 됩니다.

- (1) 우리는 서로 ()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사랑하다)
- (2) 이 옷은 너무 () 추운 날은 입을 수 없다. (얇다)
- (3) 누구나 () 남을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강하다)
- (4) 어려운 일을 ()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해내다)
- (5) 보궐선거에서 () 국회의원이 되었다. (당선하다)

■ 답

- (1) 사랑하므로 (2) 얇으므로 (3) 강함으로(써) (4) 해냄으로(써)
(5) 당선함으로(써)

3. 구별해서 쓰면 좋을 기능어

조사와 어미 가운데에는 의미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구별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들이 몇 개가 있다. 이것들은 현재 의미 분화 내지 차별화를 시도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인데, 기능을 좀더 정확하게 하거나 의미를 좀더 세분하여 지적하기 위하여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이라’와 ‘이라서’

a1 : 그가 경찰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a2 : 그가 경찰이라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b1 : 그가 경찰이 아니라 안심했다.

b2 : 그가 경찰이 아니라서 안심했다.

a1과 a2는, b1과 b2는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a1의 조사 ‘이라’에 비해서 a2의 조사 ‘이라서’가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b1의 어미 ‘-라’에 비해서 b2의 어미 ‘-라서’가 이유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런 경우에는 ‘이라서’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우선 ‘이라서’는 확실하게 이유를 제시하는 조사인 데 비해서, ‘이라’는 한편으로는 ‘이라서’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3 : 아이들이 그를 병신이라 놀려 먹는다.

a4 : 아이들이 그를 병신이라고 놀려 먹는다.

b3 : 나를 돼지라 불러 다오.

b4: 나를 돼지라고 불러 다오.

a3과 a4의 조사 ‘이라’와 ‘이라고’는 모두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런데 a4의 ‘이라고’가 ‘이라’보다 인용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낸다. 조사 ‘이라’에는 ‘이라서’와 ‘이라고’의 의미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라’를 쓰지 말고 ‘이라고’를 쓰는 것이 좋다. b3과 b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5: 그가 나에게 빨리 가라 독촉했다.

a6: 그가 나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했다.

a5와 a6의 의미 차이는 별로 없다. 어미 ‘-라’와 ‘-라고’가 모두 인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에는 ‘-라고’와 ‘-라서’를 의미하는 두 의미가 있으므로 ‘-라’를 ‘-라서’의 의미로 쓰기보다는 처음부터 ‘-라서’를 쓰는 것이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a7: 동생이 “난 학교에 안 가겠다”라고 말했다.

a8: 동생이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a9: 동생이 “난 학교에 안 가겠다”라는 말을 했다.

-
- 1) ‘-라’는 ‘-라고’와 ‘-라서’의 준말이다. 따라서 ‘-라고’나 ‘-라서’를 쓸 자리에 ‘-라’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말 ‘-라’를 쓰지 말고 ‘-라고’와 ‘-라서’를 쓰자는 말이다. 구어에서는 준말을 쓰더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문어에서는 문장의 전체 의미가 파악되기 전에는 ‘-라’가 ‘-라고’의 뜻인지 ‘-라서’의 뜻인지 분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10: 동생이 “난 학교에 안 가겠다”는 말을 했다.

직접 인용문을 쓸 때 인용 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잠시 설명을 덧붙인다. a7은 직접 인용문을 나타내는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한 문장으로서 정상적이다. 그런데 가끔 a8과 같은 문장을 쓰는 경우를 본다. 이것은 틀린 문장이다. 인용문 뒤에는 반드시 인용 조사가 와야 하는데 직접 인용 조사로는 ‘라고’, ‘라며’ 등처럼 ‘라’로 시작하는 몇 개의 조사뿐이다. ‘로’는 인용 조사가 아니므로 쓸 수 없다. 다만,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종결 어미의 끝에 붙어서 인용을 나타낸다. ‘동생이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의 경우에 쓰인 ‘-다고’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간접 인용문과 직접 인용문을 쓰는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용 조사를 쓸 것인지 인용 어미를 쓸 것인지²⁾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9는 정상적인 문장이고, a10은 틀린 문장이다. a10을 맞게 쓰려면 ‘그는 오늘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처럼 고치면 된다.

2) ‘-아/-어’와 ‘-아서/-어서’

어미 ‘-아/-어’와 ‘-아서/-어서’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래 두 문장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2) 인용 조사: 라고, 이라고, 인용 어미: -다고, -나다고, -는다고.

a: 시험지를 찢어 버렸다.

b: 시험지를 찢어서 버렸다.

a는 시험지를 찢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고, b는 시험지를 찢은 다음에 그것을 버렸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a의 ‘찢어 버렸다’는 한 동작이고 b의 ‘찢어서 버렸다’는 두 동작이다. 문법에서는 어미 ‘-아/-어’는 뒤에 보조 동사를 데리고 오는 어미라는 뜻으로 보조적 연결 어미라고 부른다. 즉 이 어미는 동사(또는 형용사)와 보조 동사(또는 보조 형용사)를 연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에 비해서 ‘-아서/-어서’는 한 동작이 끝난 뒤에 다른 동작을 하는 경우에 이 두 동작을 나열하는 어미로 쓰인다. 이런 어미를 병렬적 연결 어미라고 부른다. 따라서 ‘-아/-어’와 ‘-아서/-어서’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어미의 쓰임새가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

a1: 도둑을 잡아 묶었다.

a2: 도둑을 잡아서 묶었다.

a3: 도둑을 잡아서 때리지 않고 그냥 묶었다.

a1과 a2의 의미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a1은 ‘잡자마자 곧바로 묶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a2는 동시 동작의 의미보다는 두 동작이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 표현이다. a1은 ‘잡은 다음에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묶는 행

위에 가깝고, a2는 ‘잡고 한숨을 돌린 뒤에 묶은 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두 동작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거나 두 동작이 시간차를 두고 여유 있게 진행됨을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써야 한다. a3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a4: 나는 몹시 아파 울음을 터뜨렸다.

a5: 나는 몹시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다.

a6: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a7: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a4와 a5, a6과 a7은 모두 의미가 같은 듯이 보이지만, a4와 a6은 잘못된 문장이다. 까닭을 나타내는 종속절을 주절에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연결 어미는 ‘-아서/-어서’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아/-어’를 쓰면 안 된다. a4와 a6처럼 써도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적인 문장을 쓰려면 a5와 a7처럼 써야 한다.

보태기

신춘 문예 당선 작품에서부터 각종 문학상을 받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문장을 검토하면 ‘과연 이런 문장으로 된 작품을 문학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평론가들의 번지르르한 평을 등에 업고 서점에서 선량한 독자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소설과 수필을 보면서 가끔 우리 작가와 평론가들이 독자들을 상대로 부정직한 노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문장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의

중견 작가로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심사하고 거기에 그럴 듯한 말로 심사평을 늘어놓는지 생각하면 분노 같은 것이 치미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최근 그에 대한 조그만 대답을 듣게 되었다. 작가 서영은의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문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면 지금 각종 문학상을 받은 작품의 문장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신인상 응모 작품 심사를 하는 경우에, 문장은 머뭇거리지만 인생을 사유하는 힘이 엿보이는 작품에 더욱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거기에 문장까지도 유려하다면 더욱 점수를 주게 되지요. 머뭇거리는 문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저절로 가지런해지고 유려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무얼 담느냐 하는 사유의 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속에서 조금씩 터득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서영은, 「작가는 스스로 태어난다」에서)

서영은이 말한 ‘문장의 머뭇거림’은 ‘유려한 문장’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문장이 거침없는 필치로 표현되지 못한 상태를 ‘문장의 머뭇거림’이라고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문장의 정확성도 포함될 것이다. 즉 정확성에 미적 감각이 물 흐르듯이 묻어난 문장을 ‘유려한 문장’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서영은은 이런 문장을 쓰지 못하더라도 사유의 힘이 엿보이면 점수를 준다고 했다. 나는 서영은이 이 둘을 함께 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유의 힘은 있지만 문장이 머뭇거리는 사람과, 문장은 유려하지만 사유의 힘이 부족한 사람을 같은 값어치로 보지 않은 이유가 합당하

지 않다는 것이다. 문인은 어차피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작가의 연륜에 따라서 완성되는 성질의 것들이다. 사유의 힘은 지금 있어야 하고, 문장이나 문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본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문체도 작가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연륜에 따라서 ‘저절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수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장이란 것은 ‘자, 이제 쓰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지는 게 아니다. 우선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하는 스타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부터 자신에게 어울리는 내용이나 스타일이 발견되기는 천재가 아닌 한 힘든 일이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내용이나 스타일을 빌려와, 적당히 해쳐나가게 된다. 이미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쉬운 법이라서, 재주가 많은 사람 같으면 주위에서 “와, 제법인폐” 하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게 되고, 자기도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 좀더 칭찬을 듣고자 하여 그렇게 하다가 영 그르친 사람들을 난 몇 명이나 보았다. 분명히 문장이란 많이 쓰면 능숙해지기는 한다. 그러나 자신 속에 분명한 방향 감각이 없는 한, 그 능숙함의 대부분은 ‘재주’로 끝나고 만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 감각은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 요는 문장 운운은 나중 일이고, 어찌됐든 살아가는 일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대충 같다.(무라카미 하루키, 「코끼리 공장의 해피 엔드」에서)

다시 말하면 문장(문체와 내용)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여 쓰다가 연륜이 쌓임에 따라서 천천히 방향 감각을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루키의 문체 속에도 정확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성 작가들의 문체를 모방하면서 문장 공부를 하되 거기에 맛을 들이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자기만의 개성을 갖춘 문체를 발전시켜 나가라는 충고로 들린다. 내가 우리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체(정확한 문장과 개성 있는 문체)는 연륜이 쌓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명작이지만 서투른 문장 때문에 옥에 티가 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다.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곧 어떻게 서로 호응(呼應)을 하는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순식간에 한다.

“넌 그런 맘자릴 먹다간 쫄 받느니라. 네 댁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 넌 걸핏하면 말상이라지만서두 사람이 인물만 고우면 뭇하냐. 심덕이 그만하구 대갓집 자식이라 범절이 본데 있겠다, 우으로 어른 공경할 줄 알구 아래로 하인을 거느릴 줄 알겠다. 너 만일 아버지가 그런 소릴 들으셨다간 당장 큰 벼락이 내린다.”

“그래 말두 못하구 내 속만 푹푹 썩이는 거 아니어요? 어머니 걸핏하면 양반 양반 하시지만 양반의 집 자식된 죄가 이렇게도 크다면 차라리 상놈의 천덕구리 자식으로 태어났드라면 오죽 좋았을까 싶어요.”(이무영, 『농민』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순식간

에 주고받을 수 있을까? 물론 몇 가지 핵심어는 머릿속에 들어 있었겠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솜씨는 정말로 놀랍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많은 어휘 가운데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다 보면 실수해서 아래와 같은 문장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다.

눈부신 햇빛이 비치는 밤이면 여자는 자기 아내의 부인을 유혹했다.

통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하게 될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정상적인 한국인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번에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 본다면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우수한 한국어 화자’(이런 사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가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희선 씨가 인제 데뷔한 지가 오래 쯤 됐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나본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참 어려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에스비에스, 2001. 7. 19, 「한밤의 TV 연예」에서)

이것은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 진행자가 한 말이다. 웬만한 한국인이면 이 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래’와 ‘쯤’이 함께 쓰인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이

무엇의 주어인지, 그리고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문장이다. 아래의 말은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저도 상당히 현실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이 제가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어요. 일본에 사실 92년도에 사실은 뭐 이 책은 시오노 선생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책이 나왔어도 여전히 일본은 지리멸렬하고 우리도 여전히 뭐 우리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이제 뭐 그렇게 뭐 하여튼 간에 저 뭐 근데 그런 이런 얘기가 근데 전 뭐냐면 이 책을 갖다가 지금 진중권 선생님이 얘기하였듯이 이것이 영웅주의라든가 신화를 꼭 만들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책을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저는 현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케이비에스, 2001. 5. 3, 「TV 책을 말하다」에서)

한 도시 건축 디자인 전문가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한 말이다. 이 말은 “눈부신 햇빛이 비치는 밤이면 여자는 자기 아내의 부인을 유혹했다”보다 더 한국어답지 못하다. 한국인이 라도 한국어를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연습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호응 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고쳐 보세요.

나는 어머니보다도 그녀와 같이 다니는 것이 더욱 즐거운 일이

었다.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 성모 마리아와도 같은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김홍수, 『나의 체험적 여성론』에서)

■ 답

서술어 ‘즐거운 일이었다’의 주어가 ‘나’일 수는 없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못하였다. 주어를 ‘나’로 하려면 서술어는 ‘즐거웠다’로 고쳐야 하고, 서술어를 ‘즐거운 일이었다’로 하려면 주어를 ‘나는’을 ‘나에게는’처럼 부사어로 고쳐야 한다. 또 ‘나에게 있어서’라는 부사어가 서술어 ‘여겨졌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위의 문장을 호응에 유의하여 고쳐 보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고친 문장: 나는 어머니보다도 그녀와 같이 다니는 것이 더욱 즐거웠다. 그녀는 나에게 성모 마리아와도 같은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 연습

아래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호응 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고쳐 보세요.

그러나 이 특별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민망스러운 정도로 초라했다.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태국 등이 번듯하게 독립된 전시실에서 얼핏 보기에 명품들이 밝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유홍준, 『정직한 관객』에서)

■ 답

주어와 서술어가 적절하게 호응하지 못하였다. 이 문장은 ‘일본, 태국 등이 전시실에서 명품들이 빛나고 있었다’의 구조이다. ‘명품들이’를 목적어로 바꾸고, 서술어를 ‘일본, 태국 등’에 호응하도록 고쳐야 한다. 아래와 같이 고치면 그나마 호응이 유지될 수 있다.

중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본, 태국 등도 번듯하게 독립된 전시실에서 얼핏 보기에 명품들을 밝은 조명 아래 전시하고 있었다.

1. 호응¹⁾이란 제약에 순응하는 것

앞의 연습 문제에서 지적한 부분을 고쳐 새로 만든 문장들을 보고 여러분은 고친 문장이 이전의 문장보다 더 정확하고

1) ‘호응’의 사전적 의미는 ‘한 문장 안에서, 어떤 특정한 말 뒤에는 반드시 다른 특정한 말만 오게 되는 제약적 쓰임’을 이르는 말이다. 예컨대 ‘바야흐로 -려 하다’, ‘여간 -지 않다’ 같은 경우에 부사와 그 뒤에 오는 서술어의 어미, 그리고 서술어 뒤에 오는 보조 용언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를 호응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 국어 문법에서는 몇몇 특별한 어휘에서나 나타나는 ‘호응’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호응’을 매우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즉 특정한 말과 다른 말 사이에 일정한 제약적 관계가 형성되면 이를 모두 넓은 의미의 호응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대부분의 문제가 호응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호응만 이해하면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문장의 각 성분에 맞는 어휘나 어구를 쓰게 하기 위해서 통사적 호응을 이야기하고, 어휘와 어휘 사이의 제약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휘적 호응을 이야기하며, 어절과 어절 사이의 제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 호응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자연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 문장 가운데서 하나를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다른 하나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까? 특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도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 “과연 그렇군!” 하고 생각하게 될까? 일반인이 잘못된 문장을 잘못인지 모르고 쓰는 이유는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의미가 일단 통하면 문장의 세밀한 문제점은 지나치게 마련이다. 그런 습관이 오래 유지되는 동안 점점 잘못된 문장에 익숙해져서 무신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전문가가 일반인에게 무엇이 잘못이고 왜 잘못된지 알려 주면 일반인의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언어 능력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문제점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언어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인은 무엇을 쉽게 잊어 잘못을 저지르고, 언어 전문가는 무엇을 가르쳐 한국어다운 한국어를 쓰도록 지도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언어의 제약 관계이다. 일반인은 어휘와 어휘, 어구와 어구 사이에는 일정한 제약 관계가 있음을 쉽게 간파하지 못한다. 이 어휘를 썼으면 서술어로는 어떤 어휘를 쓸 수 없고, 어떤 관형어나 부사는 어떤 명사나 동사와 친하지 않다는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길가에 가는 여자의 옷차림이나 매무새가 좋을 때, 여러분은 신선하고 아름다움을 느껴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머리카락에서부터 투피스와 구두에 이르기까지 색상과 디자인이 고루 잘 어울리는 여자의 모습을 본 일이 있

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 여자에게 구두를 벗기고 운동화를 신겨 보기 바란다. 원래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은 틀림없이 원래의 모습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새로운 모습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전에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구두나 운동화나 다 발에 꿰는 것인데 왜 구두를 신으면 자연스럽게 보이고 운동화를 신으면 부자연스럽게 보일까? 그것은 그의 옷차림이 신의 종류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장을 하면 굽이 좀 높은 구두가 어울리게 보이고,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화가 어울리게 보이고, 등산복을 입으면 바닥이 두꺼운 구두가 어울리게 보인다. 옷이 구두에게 주는 이런 제약 관계를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신을 신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에서도 바로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한 어휘가 다른 어휘를 취할 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제약을 하지 않는 어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제약이 얼마나 두드러지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일부 사람만 느끼기도 한다. 디자이너나 코디네이터의 눈과 보통 사람의 눈이 다르듯이 어학자의 눈과 보통 사람들의 눈이 다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에 더 완벽한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어학자의 언어에서 더 완벽한 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옷을 제 몸에 맞게

제대로 입기 위해서 옷의 제약 관계를 알아야 하듯이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어구의 제약 관계를 알아야 한다. 문장에 사용된 모든 어휘들이 이런 제약 관계를 잘 지키고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문장을 호응이 잘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2. 통사적 호응

호응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쉽게 띄는 것이 통사적 호응이다. 여러 문법 요소들이 서로 제약을 주고받으며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들 문법 요소들은 서로 호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문형에 알맞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이 통사적 호응이다. 아래 글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못한 경우이다.

공무에 짓눌려 생각조차 못했던, 그토록 좋아했던 승마는 일진이 나뻐는지 나가던 날로 다리를 빼어 물리 치료를 받았다. (최일남, 「풍경소리」에서)

위의 문장을 분석하여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내면 아래와 같다.

주어: 승마는

서술어: 물리 치료를 받았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리 치료를 받았다’의 주어로는 치료를 받을 만한 사물이 적합하다. 만일 ‘승마’를 목적어로 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동사로 ‘하지 못했다’ 같은 것을 사용하면 통사적 호응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문장(1)이나 문장(2)처럼 고치면, 주어와 서술어 또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될 수 있다.

(1)그는 공무에 짓눌려 생각조차 못 했던 승마를 즐기려고 나갔다가, 일진이 나뻐는지 그 날로 다리를 빼어 물리 치료를 받았다.

(주어: 그는, 서술어: 나갔다가, 물리 치료를 받았다)

(2)그토록 좋아했지만 공무에 짓눌려 생각조차 못 했던 승마는, 일진이 나뻐는지 나가던 날로 다리를 빼어 물리 치료를 받느라고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주어: 생략, 목적어: 승마는, 서술어: 하지 못했다)

아래의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못한 점이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놀이를 해도 10여 분을 못 넘기고, 책을 읽어도 짧은 글만 찾으며, 텔레비전 프로조차도 15분쯤으로 끝나는 15분주의(퀴터리즘)에 익숙하고, 인내심, 꾸준성이 결여되어 특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자살해 버리는 경박성을 걱정하면서도 어느덧 나 자신도 한 가지의 명상에 잠기지 못함을 자탄한다. (김문창, 『명상록』에서)

위 문장을 분석하여 보자.

주어① : 청소년들은

서술어① : 못 넘기고

서술어② : 글만 찾으며
 서술어③ : 익숙하고
 서술어④ : 결여되어
 서술어⑤ : 걱정하면서도
 주어② : 나 자신도
 서술어⑥ : 자탄한다

주어①에 걸리는 서술어는 다섯 개이고, 주어②에 걸리는 서술어는 한 개이다. 주어①에 걸리는 서술어 가운데에서 주어와 호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서술어⑤가 그것이다. 서술어①-④는 모두 ‘청소년들이’ 주어이다. 그러나 서술어⑤의 주어는 ‘청소년들이’ 아니고 ‘나’이다. 즉 주어②가 서술어⑤의 주어인 셈이다. 이 문장을 바로잡으려면 서술어⑤를 주어①의 서술어가 되도록 하거나, 서술어⑤를 주어②의 서술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고치면 호응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놀이를 해도 10여 분을 못 넘기고, 책을 읽어도 짧은 글만 찾으며, 텔레비전 프로조차도 15분쯤으로 끝나는 15분주의(쿼터리즘)에 익숙해 있고, 인내심, 꾸준성이 결여되어 툭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자살해 버리는 정도로 경박한데, 나는 이를 걱정하면서도 어느덧 나 자신도 한 가지의 명상에 잠기지 못함을 자탄한다.

(주어①: 청소년들은, 서술어: 넘기고, 찾으며, 익숙해 있고, 결여되어, 경박한데

주어②: 나 자신도, 서술어: 걱정하면서도, 자탄한다)

위의 글의 핵심 주제는 청소년들의 경박성이라기보다는 ‘나’가 명상에 잠기지 못함을 자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주어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제를 충실하게 드러내려면 아래와 같이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문장의 주제와 주어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호응과는 무관하지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지적해 둔다.

놀이를 해도 10여 분을 못 넘기고, 책을 읽어도 짧은 글만 찾으며, 텔레비전 프로조차도 15분쯤으로 끝나는 15분주의(퀴터리즘)에 익숙해 있고, 인내심, 꾸준성이 결여되어 특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자살해 버리는 요즘 청소년들을 걱정하면서도 나 자신도 어느 덧 한 가지의 명상에 잠기지 못함을 자탄한다.

(주어: 나 자신, 서술어: 걱정하면서도, 자탄한다)

아래 문장은 서술절의 주어와 주제어 사이의 호응을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여기에서도 주제어에 상응하도록 서술절의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멘트 다리는 자동차와 행인의 통행으로 겹겹이 더럽혀진 눈 더미가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① 질척질척한 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②(심상대, 「미」에서)

위 문장은 하나의 주제어에 두 서술절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두 서술절의 주어가 이질적이다.

주제어: 시멘트 다리는

서술절①의 주어: 눈 더미가

서술절②의 주어: 바닥이

즉 주제어와 서술절②의 주어는 ‘시멘트 다리’와 관련된 것인데 서술절①의 주어는 ‘눈 더미’여서 호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눈 더미’를 ‘시멘트 다리’와 관련된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눈 더미가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를 ‘가장자리가 눈 더미로 덮여 있었으며’처럼 고쳐야 한다. 즉 서술절①의 주어를 시멘트 다리의 일부인 ‘가장자리’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자리’와 ‘바닥’이 모두 ‘시멘트 다리’와 잘 호응된다.

아래 문장은 부사어와 동사가 호응되지 않은 경우를 보인다.

출세한 이세화가 찾아와 이젠 그까짓 시 나부랭이 짓고 공자 맹자를 읽어 봐야 말짱 헛일이라고,① 자기와 함께 몽골말이나 배우자고② 권한 적이 있었다.(이인화, 「시인의 별」에서)

밑줄 친 두 요소 ‘헛일이라고’와 ‘배우자고’는 모두 ‘권한’의 부사어이다. 그런데 부사어②는 ‘권한다’의 부사어가 될 수 있지만, 부사어①은 동사 ‘권하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헛일이라고 권한다’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어①을 동사 ‘권하다’의 부사어로 바꾸든가, ‘헛일이라고’나 ‘배우자고’를 부사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로 바꾸어야 한다.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동사를 부사어와 호응하도록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출세한 이세화가 찾아와 이젠 그까짓 시 나부랭이 짓고 공자 맹자를 읽어 봐야 말짱 헛일이라고, 자기와 함께 몽골말이나 배우자고 한 적이 있었다.

인칭 대명사의 호응

인칭 대명사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이른다. ‘나’, ‘너’, ‘그’ 따위가 인칭 대명사인데 이들은 가리킬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가리킬 때에는 ‘나’를 써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가리킬 때에는 ‘너’를 써야 한다. ‘나’와 ‘너’ 이외의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그’를 쓰면 된다. 이처럼 명쾌한데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글은 동일인에게 삼인칭 대명사 ‘그’와 일인칭 대명사 ‘나’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인칭 대명사의 호응을 깨뜨린 예이다.

그는 수다를 떨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리
고 가당찮은 말로 억지를 부리나 싶어 저절로 쓴웃음이 나오는 것
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말이기애 한숨 돌려서
하려고 짐짓 중도막을 내자 다시 자격지심이 들면서 자꾸 험 험한
웃음이 나왔다. 그는 얼른 웃음기를 덮으려고 하루에 한 대도 피
우다 말다 해온 담배를 붙여물었다.(이문구,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에서)

글의 첫 문장은 ‘그’의 심리 상태나 표정 등을 묘사하는 문
장인데 여기에 ‘내가’가 나타났다. “내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려고 가당찮은 말로 억지를 부리나”의 부분이 ‘그’의 말이라면 따옴표를 붙여 인용문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이므로 직접 인용문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는 ‘그’와 호응이 되지 않는다. 마치 ‘그’와 ‘나’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경우에는 ‘그’를 도로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인 ‘자기’를 쓰면 된다.

“으응, 이 신발이……뉘기여? 누가 왔나? 진이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다. 그녀는 한걸음에 달려나간다. 진이 엄마는 격일로 일해 주러 오는 파출부 아주머니이다. 오늘은 화요일이니 오지 않을 것이다. 수경의 말에 의하면 그네는 첫날 일을 해본 다음에 수경에게 노골적으로 말하더라. 단독주택이어서 힘들고 노인의 병구완을 하는 셈이니 일당에 얼마간이라도 더 있어달라고. 어머니의 잔소리에 파출부들이 통 붙어 있지를 않던 터라 수경은 그냥 두말 않고 그렇게 해 주고 있다. 물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박현경, 「섬 안의 섬」에서)

위 글에서 ‘어머니’ 다음에 오는 ‘그녀’는 일차로 ‘어머니’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음이 분명하다.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의 딸이 ‘그녀’이다. 딸을 ‘그녀’라고 부르고 그의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친구의 어머니를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부르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어에서 쓰는 경우이고, 서술문에서는 그렇게

혼동해서 쓰지 않는다. 모녀가 있을 경우에 딸에게 ‘그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 이 사람은 모녀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제삼자이다. 반면에 모녀 중에서 어머니 쪽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녀와 같은 가족이거나 친척이다. 이 경우에는 그 딸을 ‘그녀’로 가리키지 않고 이름을 사용하거나 ‘언니’, ‘누나’ 같은 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관찰자(작가)가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녀’가 보고 생각하고 느낀 대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와 ‘그녀’가 동일인이 되도록 ‘나’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글에서 ‘그녀’ 대신에 ‘나’를 넣으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능동과 수동의 호응

사람이나 사물의 행위를 표현할 때에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는 글을 쓰는 사람의 고유 권한이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동일한 행동을 한 문장 안에서 능동으로 표현했다가 수동으로 표현했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날, 동생은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를 걸어 왔고, ① 그 후에도 동생한테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걸려 왔다. ②(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에서)

위 문장의 밑줄 친 ①에서는 동생이 능동적으로 전화를 걸어 왔다고 표현했고, ②에서는 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다고 수동적으로 표현했다. 동생이 전화를 건 사실을 놓고 한 문장 안에서 능동형과 피동형을 번갈아 사용하면 부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바꾸면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나 그 다음날, 동생은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를 걸어 왔고, 그 후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문학 작품의 문장 특성이라고 보고, ‘전화를 걸어 왔고’와 ‘전화를 했다’를 대비시켰다. ‘전화를 했다’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어인 ‘동생’의 영향력이 문장의 끝까지 두루 미치게 되어 읽는 사람이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인간의 능력이 재발견되고, ① 부정했던 인간의 창조력을 긍정함으로써 ② 인간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의식이 생존의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었다.(윤재근, 『문화 전쟁』에서)

위 문장의 부사절을 분석하면 하나는 수동형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형임을 알 수 있다.

부사절①: 인간의 능력이 재발견되고

부사절②: 인간의 창조력을 긍정함으로써

이처럼 두 개의 부사절의 서술어의 형이 수동과 능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절의 주어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독자가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부사절②를 ‘인간의 창조력이 긍정됨으로써’처럼 수동으로 바꾸어 아래와 같이 쓰면 글이 자연스러워진다.

고친 문장(1):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인간의 능력이 재발견되고, 부정되었던 인간의 창조력이 긍정됨으로써 인간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의식이 생존의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었다.

부사절②를 능동형으로 두려면 부사절①을 아래와 같이 능동형으로 바꾸면 된다.

고친 문장(2):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인간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부정했던 인간의 창조력을 긍정함으로써 인간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의식을 생존의 전 분야에 걸쳐 확산시켰다.

고친 두 문장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글을 쓴 사람의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 문장 안에서 수동형과 능동형을 일치시키는 것은 독자에 대한 의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

아래 문장들은 언뜻 보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술어의 의

미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a: 너마저 나를 사랑하느냐?

보조사 ‘마저’는 여러 대상 가운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 포함됨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따라서 a는 ‘너는 나를 사랑할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느냐?’의 뜻으로 하는 말이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다’가 화자의 소망과 일치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의미하는 ‘마저’나 ‘조차’ 같은 보조사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a1: 너마저 그를 사랑하느냐?

a1은 화자가 ‘너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랑하느냐?’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 경우에는 ‘그를 사랑하다’가 화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따라서 ‘마저’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조사 ‘마저’의 쓰임이 생각보다는 더 까다로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저’와 ‘조차’는 모두 ‘까지도’와 함께 극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보조사이다. 그러나 이들의 쓰임새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마저’와 ‘조차’의 쓰임새는 언어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내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가 있다.

b: 해수욕장에는 잡상인까지도 으레 한목을 보려 한다.

c: 제 아내조차 그를 외면하였다면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d: 아내마저 떠나고 난 뒤라 삶의 의지를 되살리기 어려웠다.

b에서 ‘까지도’ 대신에 ‘조차’나 ‘마저’를 쓰면 어울리지 않는다. 단순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까지도’를 써서 가장 극단적인 예를 내보이면 된다. c의 ‘조차’는 결코 그러지 않을 사람이 그렇게 한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에 쓰인다. d는 마지막 대상이 포함됨으로써 실망하고 포기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에 쓰인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차이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 따라서 ‘까지도’, ‘조차’, ‘마저’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연습

아래 문장의 문법 요소를 분석하고 각 요소가 호응이 되도록 다시 써 보세요.

(1)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모였다.

(2)연구원에 오시면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 답

(1)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이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겹문장이다. 각 대등절의 주어를 같다고 보는 경우와 다르다고 보는 경우에 따라서 호응 관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주어 : 생략

서술어① :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서술어② : 융통성 있게 모였다

— 주어가 같다고 볼 때

서술어①과 서술어②는 서로 호응이 되지 않는다. 서술어①은 목적어를 동반하는데 서술어②는 주어를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서술어를 고치든지 고쳐야 한다.

고친 문장(1):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모였다.

고친 문장(2): 사람들이 한꺼번에 불러온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모였다.

— 주어가 다르다고 볼 때

서술어①의 주어는 ‘우리’로 하고, 서술어②의 주어는 ‘그들’로 하면

고친 문장(3): 우리가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모였다.

(2)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주어 : 생략

서술어① : 오시면

서술어② :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서술어①은 동사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서술어②는 서술

절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술어①은 주어의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능동사인 데 서술어②는 주어의 능동적인 동작이 아니다. 따라서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되지 않고 있다. 서술어 ②를 아래와 같이 능동적인 동사로 바꾸는 것이 좋다.

연구원에 오시면 열람과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연습

아래의 밑줄 친 요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 보세요.

르네상스는 그리스 정신과 중세의 정신을 인간 중심으로 극복하여 ‘인간에게 창조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윤재근, 『문화 전쟁』에서)

이 문장을 분석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르네상스’가 능동적인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어: 르네상스

서술어: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어 ‘르네상스’를 부사어로 바꾸고 ‘인식하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휘를 주어로 내세워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르네상스’를 주어로 삼으려면 ‘고친 문장(2)’처럼 쓰면 된다.

고친 문장(1): 르네상스 때에는 그리스 정신과 중세의 정신을 인

간 중심으로 극복하여 ‘인간에게 창조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주어는 생략함)

고친 문장(2): 르네상스는 그리스 정신과 중세의 정신이 인간 중심으로 극복됨으로써 ‘인간에게 창조력이 있다’고 인식하게 된 시기였다.(주어는 생략함)

연습

아래의 밑줄 친 네 개 문장의 호응 관계를 말하고 적절하게 고쳐 보세요.

“저리 비켜!”

“어무이요 ——”

머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수고 많았소. 점촌댁.”

남자가 말했다.①

“수곤 무신 수곤기요. 의당 할 일이 아닌교.”

재빠른 여자의 대꾸였다.②

머시라 점촌댁이……선돌영감은 불빛 언저리에서 치마자락을 보았고, 어둠보다 더 짙고 깊은 절망에 부딪쳤다.

“똑바로 걸어!”

남자의 살벌한 음성이었고,③

“내 머라 카든교, 내 머라 카든교……”

절박한 음성은 칠성이었다.④(조정래, 「그림자 접목」에서)

①과 ②는 대등절로서 하나의 겹문장을 이루고 있고, ③과 ④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등절에서의 문장 성분의 호

응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 답

①과 ②는 아래와 같은 대등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주어①과 주어②가, 그리고 서술어①과 서술어②가 호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고 많았소. 점촌댁.” 남자가 말했고, “수곤 무신 수곤기요. 의당 할 일이 아닌교.” 재빠른 여자의 대꾸였다.

주어①: 남자가

서술어①: 말했고

주어②: (생략)

서술어②: 여자의 대꾸였다

주어②를 ‘여자’로 하고, 서술어②를 ‘대꾸했다’로 바꾸면 정확하게 호응하는 문장이 된다.

고친 문장: “수고 많았소. 점촌댁.” 남자가 말했고, “수곤 무신 수곤기요. 의당 할 일이 아닌교.” 여자가 재빠르게 대꾸했다.

③과 ④는 아래와 같은 대등절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어③과 주어④가, 그리고 서술어③과 서술어④가 호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똑바로 걸어!” 남자의 살벌한 음성이었고, “내 머라 카든교, 내 머라 카든교……” 절박한 음성은 칠성이었다.

주어③: (인용문)

서술어③: 남자의 살벌한 음성이었고

주어④: 음성은

서술어④: 칠성이었다

주어④를 인용문으로 바꾸고 서술어④를 ‘칠성의 절박한 음성이었다’로 바꾸거나, 주어③을 ‘살벌한 음성’으로 바꾸고 서술어③을 ‘남자였고’로 바꾸면 호응의 문제가 해결된다.

고친 문장(1): “똑바로 걸어!” 남자의 살벌한 음성이었고, “내 머라 카든교, 내 머라 카든교……” 칠성의 절박한 음성이었다.

고친 문장(2): “똑바로 걸어!” 살벌한 음성은 남자였고, “내 머라 카든교, 내 머라 카든교……” 절박한 음성은 칠성이었다.

다만, 위의 고친 문장(2)는 통사적으로는 호응이 되지만, 문장 구성이 부적절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어휘적 호응: 어휘들도 서로 사랑을 한다?

어휘들도 서로 사랑하고, 어떤 어휘는 부부처럼 한 짝이 되어 움직이기도 한다. 어휘 사이의 이런 관계를 어휘적 호응이라고 한다. 어휘적 호응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갓을 쓰고 양복을 입은 것처럼 쉽게 드러난다. 따라서 어휘적 호응은 한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기 때문에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래의 문장을 보자.

a: 아이가 코를 누고 똥을 풀었다.

b: 호주머니에 손을 담아 돈을 잡아냈다.

누구나 이 문장을 보고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점을 쉽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코’는 푼다고 하지, 누다고 하지 않으며, ‘똥’은 누다고 하지, 푼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고 하지, 담는다고 하지 않으며, ‘돈’을 꺼낸다고 하지, 잡아낸다고 하지 않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코’와 ‘풀다’, ‘똥’과 ‘누다’는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하고 다른 어휘가 오면 싫어한다.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휘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으면 한국어가 아니다. 어휘적 호응에는 ‘꿈을 꾼다, 춤을 춘다, 잠을 잔다, 물을 묻다, 그림을 그리다, 웃음을 웃다, 금을 긋다, 짐을 지다, 입을 이다, 땀을 뿜다, 땀을 뜨다, 숨을 쉬다, 신을 신다’ 같은 동족 목적어와 동사 사이의 호응이 있고, ‘그네를 뛰다, 냄새를 맡다, 코를 곤다, 코를 풀었다, 침을 빨다’ 같은 일반적인 목적어와 동사 사이의 호응도 있다. 또 ‘배가 고프다, 오줌이 마렵다, 목이 마르다, 눈이 멀다, 귀가 먹다’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어휘가 다른 어휘를 취할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어휘들 사이에 존재하는 제약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는 그 어휘들을 사용한 경험이 중요하다. 물론 그 경험은 우수한 한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본 경험을 말한다.

이런 경험이 적은 사람은 아무래도 한국어다운 한국어를 구사하기 어렵다.

아래 글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에서 여러분은 참 미묘한 어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딱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두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 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 살자구 서울로 식모 자릴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두 있습니다.”

정씨는 흐려진 영달이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란 결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이야기의 줄거리는 영달이가 과거에 동거하던 여자를 잊지 못하자, 정 씨가 영달이에게 곧 그 여자를 잊게 될 것이니 과거의 여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장면이다. 정 씨의 말은 영달이의 처지에서 그 여자를 잊게 되는 경우를 말한 것인데 ‘사람이란’으로 주제어를 삼아 문장을 구성하였다. 이 글은 ‘사람이란 (이런) 경우에 (여자를) 잊게 되는 법이니 당신도 곧 그 여자를 잊게 될 것’이라는 구성으로 작성한 것이

고, ‘이런 경우’를 ‘결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결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이 ‘잊게 되는’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아래의 문장 변화를 생각해 보면 어색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a: 사람이란 (무엇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잊게 되는 법이오.

b: 사람이란 오랫동안 (무엇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잊게 되는 법이오.

c: 사람이란 오랫동안 (무엇을) 보지 않으면 저절로 (그것을) 잊게 되는 법이오.

d: 사람이란 (무엇의) 결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잊게 되는 법이오.

e: 사람이란 결에서 오랫동안 (무엇을) 두고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잊게 되는 법이오.

f: 사람이란 결에다 오랫동안 (무엇을) 두고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잊게 되는 법이오.

a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특성을 말한 것이다. ‘사람은 보아야 줄곧 기억하지 보지 않으면 잊는 동물’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에 ‘오랫동안’을 넣어서 ‘보지 않은 기간’을 설정한 b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런데 c는 ‘잊게 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잊게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저절로’는 사람의 기억과는 호응되지 않는 어휘이다. ‘저절로’는

‘제 스스로’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 ‘스스로’의 주체가 ‘인공을 가하여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언제나 능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기억하다, 잇다, 생각하다, 보다, 말하다’ 따위의 동사에 ‘저절로’ 같은 부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절로 기억했다’, ‘저절로 잊었다’, ‘저절로 생각한다’ 같은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d는 ‘보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덧붙인 문장이다. 반드시 ‘결에서’ 보아야 한다면 이런 부사어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의’ 결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주어인 ‘사람’의 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즉 ‘사람이란 자기 결에서’처럼 인식하기 쉽다. 따라서 ‘결에서’는 자칫 사족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 문장에서는 대상이 되는 ‘무엇’이 모조리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될 소지가 많이 있다.

e는 ‘보다’ 앞에 동사 ‘두고’를 넣은 것이다. 그런데 ‘결에서’와 ‘두고’가 전혀 호응되지 않는다. ‘아무개의 결에서 아무개를 두고’는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무개 결에서’를 빼든지, ‘아무개를 두고’를 빼든지 해야 한다. f처럼 차라리 ‘자기 결에다 누구를 두고’처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 씨의 말에 ‘저절로’, ‘결에다’, ‘두고’ 같은 어휘가 다른 어휘와 호응되지 않게 쓰임으로써 부자연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 되고 만 것이다. 위의 여러 가

지를 감안하여 정 씨의 말을 호응이 되는 문장으로 재구성한다면 아래의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g: 고친 문장(1): 사람이란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자연히 잊게 되는 법이오.

h: 고친 문장(2): 사람이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자연히 잊히게 되는 법이오.

g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어로 삼아 그가 ‘무엇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잊게 됨’을 나타내기 위한 문장이고, h는 ‘사람’을 피동적인 주어로 삼아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에게 잊히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g의 ‘사람’은 영달이를 염두에 둔 말이고, h의 ‘사람’은 ‘여자’를 염두에 둔 문장이다. 작가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오로지 작가 고유의 권한이지만 문장은 친한 어휘끼리 배열하여 어색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

목이 말랐다. 허기가 졌다. 구멍가게로 들어가 우유 한 봉지를 사서 목마름과 허기를 메웠다.(한승원, 「검은맹기두루미」에서)

이 글은 주인공이 우유를 마심으로써 목마름과 허기(虛飢)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목마름’과 ‘허기’가 ‘메우다’의 목적어로 사용됨으로써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목마름’과 ‘허기’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좋은 동사를 찾지 못한 탓이다. ‘목마름’은 ‘해결하다’, ‘풀다’, ‘달래다’ 등과 어울릴 수 있으며, ‘허기’는

‘면하다’, ‘달래다’, ‘해결하다’ 등과 어울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달래다’나 ‘해결하다’ 정도가 될 것이다. ‘메우다’와 어울릴 수 있는 목적어는 주로 ‘틈’, ‘구멍이’, ‘빈 자리’, ‘부족한 부분’ 등 공간을 가진 명사에 한정된다.

의미상의 제약 관계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다른 어휘나 표현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문장은 한자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여 의미적으로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 예이다.

(1) 불과 몇 달 만에 180만 명이라는 실업자가 무더기로 직장을 잃었다.

(2)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서 회사가 살아날 수도 있다.

(1)번 문장은 ‘실업자가 직장을 잃었다’에서 어휘 선택을 잘못한 경우이다. 실업자는 이미 직장을 잃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는 없다. 따라서 ‘실업자가 무더기로 생겼다’ 또는 ‘근로자가 무더기로 실직했다’처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번 문장은 ‘여부’와 ‘살아날 수도 있다’가 호응되지 않는 경우이다. ‘여부’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여부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안 되거나’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도 있다'의 뜻일 것이다. '여부'를 살리고 싶다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처럼 고쳐 '여부'와 호응되도록 해야 한다.²⁾

부사어의 제약 관계

부사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부사든지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사 '잘'은 '살다, 죽다, 먹다, 치다, 싸우다, 돕다, 생각하다, 있다' 등 대부분의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약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잘못을 가릴 가치가 없는 동사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네가 성공하기를 잘 바란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지만 어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특별히 가리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부사는 긍정하는 서술어를 고집하거나(예컨대 '반드시', '꼭', '겨우', '제법' 따위), 부정하는 서술어를 고집하기도 하고(예컨대 '도무지', '전혀', '절대로', '결단코', '좀처럼' 따위), 어떤 부사

2) 한자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한자어를 이루고 있는 개별 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중복 표현의 오류인데, 언어 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제공해 주어야 한다', '부여하여 주기로 했다', '부담을 진다', '발전해 간다', '함께 동행했다', '사랑하는 애인과 아름다운 미인을 위한 콘서트'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아예 한자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감각적으로 어휘를 사용하여 틀리는 경우인데, '원서를 접수(接受)하러 간다', '전문가에게 자문(諮問)을 구했다', '김동리 선생께 사사(師事)했다', '이를 어진 사람에게 벌금을 수수한다' 등이 그 예이다.

는 의문형 서술어를 고집하기도 한다(예컨대 ‘언제’, ‘왜’, ‘어떻게’ 따위). 아래 예문을 보자.

(1)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열세 살밖에 안 되었다.

(2)우리는 그 행사에 절대로 참여하기로 했다.

(3)나는 그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4)우리는 오래 전부터 전혀 농사만 지어 왔다.

(1) ‘겨우 열세 살이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겨우’를 빼고 그냥 ‘열세 살밖에 안 되었다’로 해야 한다. 부사 ‘겨우’와 서술어 ‘안 되었다’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그 일이 일어난 지 겨우 10년이 되었을 뿐이다’를 ‘그 일이 일어난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되었다’처럼 쓰는 것도 잘못이다.

(2) ‘절대로’는 부정의 서술어와 어울린다. 따라서 ‘절대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처럼 부정 어법과 함께 써야 한다. 긍정 어법에 쓰이는 부사로써는 ‘반드시’나 ‘꼭’을 쓰면 된다.

(3) ‘전혀(全-)’는 ‘완전히’, ‘아주’의 뜻을 가지는 부사로서, 부정 어법에 사용된다. 따라서 ‘전혀 아는 바 없다’라고 한 것은 맞는 표현이다.

(4) ‘전혀(專-)’는 ‘오로지’의 뜻을 가지는 부사로서, 긍정 어법에 사용된다. 따라서 ‘전혀 농사만 지어 왔다’라고 한 표현은 적절하다. 한글로 ‘전혀’라고 쓴 경우에 그것이 ‘全혀’인지 ‘專혀’인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단어 모두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 (5)군인은 모름지기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6)이 문제는 여간 어렵지 않다.
 (7)우리는 승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8)아이들로 하여금 빨리 빠져나가게 하라.
 (9)이제 바야흐로 달이 뜨려 한다.
 (10)남쪽이 이렇게 춥거늘 하물며 북쪽이라.

(5)는 부사어 ‘모름지기’와 ‘-아야 한다’가 호응되고, (6)은 ‘여간’과 ‘않다’가 호응되며, (7)은 ‘결코’와 ‘않겠다’가 호응된다. 그리고 (8)에서는 ‘하여금’이 앞뒤의 조사와 어미가 호응되어야 한다. ‘로 하여금 -게 하다’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9)는 ‘바야흐로’가 ‘-려 하다’와 호응이 되며, (10)은 ‘하물며’가 앞의 어미 ‘-거늘’과 뒤의 조사 ‘이라’와 호응이 된다.

부사어는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와도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문장을 보면서 부사 ‘하다 못해’는 어떤 어휘와 호응되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여대 일학년생이었던 읍장님의 막내딸은 우리 동네 모든 청년들이 짝사랑하는 처녀였다. 물론 그녀는 그 가운데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지만,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어판장에서 거간꾼 시다바리를 하는 오치네 둘째형이나, 이웃 도시에 있는 공업 전문학교에 다니는 짱구삼촌이나, 하다못해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 총각 선생님도 길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비실거리며 곁으로 비켜났다.(심상대, 「미」에서)

부사 ‘하다못해’는 ‘아무리 못 해도’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여건을 상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가장 나쁜 여건’을 오해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사람들, 곧 오치 둘째형, 짱구삼촌, 총각 선생님 등은 여건이 나쁜 사람부터 좋은 사람까지의 순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오치 둘째형은 말할 것도 없고, 짱구삼촌 심지어는 국민학교 선생님까지도 이 여대생에게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는 점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하다못해’는 ‘심지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관용어와 속담에서의 어휘적 호응

관용어란 어떤 어휘들을 사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이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휘를 좀 특별히 사용하여 만든 어구라고 할 수 있다.

- a: 사람들은 그를 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b: 우리는 그와 담을 쌓고 산다.
- c: 그날 이후에 그는 발그림자도 안 했다.

‘입을 모았다’는 ‘한결같이 말했다’의 뜻으로 쓴 말이고, ‘담을 쌓고’는 ‘관계를 끊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며, ‘발그림자도 안 했다’는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어휘를 써야 그런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입을 모았다’ 대신

에 ‘입을 합했다’라고 하거나, ‘담을 쌓고’ 대신에 ‘올타리를 쌓고’라고 하거나, ‘발그림자도 안 했다’ 대신에 ‘손그림자도 안 했다’라고 하면 본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관용구나 속담, 격언으로 굳어진 어구나 어절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호응이 되는 어휘를 사용해야 제격이 된다. 아래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d: 그는 발이 손이 되도록 빌었다.

e: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야.

f: 그가 너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d에 쓰인 ‘발이 손이 되도록’은 비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 쓰는 관용구이고, e의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를’은 무식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관용구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은 칭찬할 때에 쓰는 관용구이다. 따라서 이들은 ‘빌다’, ‘무식하다’, ‘칭찬하다’ 같은 지정된 어휘를 필요로 한다. 아래의 예문처럼 지정된 어휘와 다른 어휘를 쓰게 되면 어휘적 호응이 되지 않는다.

d1: 그는 발이 손이 되도록 자랑했다.

e1: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이야.

f1: 그가 너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난하더라.

이렇게 되면 ‘자랑했다’, ‘무기력한’, ‘비난하더라’는 그 앞의 관용구와 전혀 호응이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용어는 관용어에 사용된 어휘를 바꾸지

말아야 하고, 관용구는 그것과 호응이 되는 어휘와 함께 써야 제격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연습

밑줄 친 부분을 유심히 살피면서 좀더 한국어다운 한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라고 김치 만들고 밥 만드는 일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남자는 앉아서 술이나 담배만 먹으면서.

이 사람은 김치와 밥을 ‘만드는’ 것으로 말하고, 술과 담배를 ‘먹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어다운 한국어로 이것들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 답

김치는 담그고, 밥은 짓고, 술은 마시고, 담배는 피운다.

이것은 김치, 밥, 술, 담배가 아무 동사나 오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김치, 밥, 술, 담배가 원하는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어휘끼리 서로 원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휘적 호응이다. 문제의 ‘김치를 만들고, 밥 만드는’에서 김치와 밥을 만든다고 한 것은 어휘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 담그는 것이나 짓는 것도 넓게 보면 만드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한국어다운 표현을 쓰려면 겨우 의미만 통하는 어휘를 쓰기보다는 의미와 상황에 가

장 알맞은 어휘를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

■ 연습

아래 글의 밑줄 친 부분은 앞의 부사어와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왜 호응이 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어떤 부사어로 바꾸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마당에 콩심이 달랑거리며 뛰어 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온다. 누렁이와 함께 뛰는지 무어라고 땡땡거린다. 그때 겨우 아홉 살이 된 콩심이는 효원이가 대실에서 신행 올 때 교전비 몸종으로 데리고 왔으나, 그까짓 코흘리개가 무슨 수발을 제대로 들겠는가? 저 혼자 제 머리 빗기에도 어린 것이었으니, 말이 몸종이지, 친정 뜨락의 낮익은 돌맹이 하나를 주워 오는 심정으로 함께 왔던 것이다.(최명희, 『혼불』에서)

■ 답

마지막 문장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주어①: 생략(콩심)

서술어①: (어린 것이었으니), 몸종이지

주어②: 생략(효원)

서술어②: 왔던 것이다

부사어①: 주워 오는 심정으로

부사어②: 함께

두 대등절의 주어가 모두 생략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앞 절의 주어는 ‘콩심’이고, 뒤 절의 주어는 ‘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원’이가 ‘콩심’이를 ‘돌맹이 하나를 주워 오는 심정’으로 ‘함께’ 왔다는 것이 이 문장의 맨 끝 어절이다. 여기서 부사어①과 부사어②는 의미적으로 격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오는 것은 동등한 자격으로 옴을 뜻하는 것인데 ‘돌맹이 하나를 주워 오는 심정으로’ 함께 올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 부사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함께’를 쓰려면 부사어①을 고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함께’를 다른 부사어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함께’ 대신에 ‘데리고’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고친 문장: 저 혼자 제 머리 빗기에도 어린 것이었으니, 말이 몸 좋이지, 친절 프락의 낯익은 돌맹이 하나를 주워 오는 심정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다.

■ 연습

아래 글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요소를 찾아 바꾸어 보세요.

사람들은 하고많은 이별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흥년에 초근 목 피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 간 늙은 부모를, 돌림병에 약 한 첩을 써 보지 못하고 죽인 자식을 거적에 말아서 묻은 동산을, 민란 때 관가에 끌려가서 원통하게 맞아 죽은 남편을, 지금은 흙 속에서 잠이 들어 버린 그 솔한 이웃들을. 바람은 서러운 추억의 현을 가만가만 흔들어 준다.(박경리, 『토지』에서)

이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별한 사람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는 ‘늙은 부모’, ‘묻은 동산’, ‘죽은 남편’, ‘술한 이웃들’과의 이별을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지만 조금 깊이 생각하면 ‘동산’과의 이별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다른 셋이 실제로 이별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묻은 동산’ 대신에 무엇을 넣으면 이별의 대상이 모두 호응될 수 있을지 말해 보세요.

■ 답

‘죽인 자식’ 또는 ‘죽여 거적에 말아서 동산에 묻은 자식’

“돌림병에 약 한 첩을 써 보지 못하고 죽인 자식을 거적에 말아서 묻은 동산을”은 다른 이별과 호응이 되도록 한다면 ‘언제 왜 어떻게 된 누구’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돌림병에 약 한 첩을 써 보지 못하고 죽인 자식을”로 고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연습

다음 문장의 줄친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1)공직 사회가 자연과 학연의 사슬에서 해맨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2)연기자 절반 이상이 이 만화를 보고 자기 진로를 결심했다고 한다.

(1)은 ‘헤매다’가 어떤 장소와 어울리는지 또는 ‘사슬’이 어떤 동사와 어울리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2)는 결심하는 대상이 무엇이겠는지, 아니면 ‘진로’와 어울리지 않는 동사가 무엇이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 답

(1)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는 ‘사슬에 얽매 있다면’으로 고치는 것이 정확하다. 사슬은 묶는 데에 쓰이는 것이므로 그와 친한 동사를 써야 한다. ‘헤매다’는 일정한 넓이가 있는 장소를 방향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님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슬은 그런 넓이가 있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사슬’과 ‘헤매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2) ‘진로를 결정했다’ 또는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로 고치는 것이 옳다. ‘결정하다’는 완전한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쉽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결심하다’는 ‘마음을 결정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자체에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 따라서 자동사로 써야 한다. ‘결심하다’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결심한 내용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탈출을 결심했다’처럼 쓰이는 경우이다. 그 외에는 언제나 자동사로 쓰인다.

■ 연습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1)국회가 정치 중심에서 멀리 비껴나 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2)가속화하고 있는 가정의 기능 상실 현황과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1)은 오래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기간과 어울리는 서술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2)는 진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대안은 어떤 서술어와 어울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답

(1)오래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기간 지속되는 행사나 상태’이다. ‘기간’은 ‘정해진 두 때의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오래 계속될 수 있는 것과 기간은 맞지 맞고, 기간이 오래 계속될 수도 없다. ‘기간이 너무 길었다’로 고치거나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2) ‘진단’은 병의 증세를 살펴 판단함을 뜻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도 진단의 개념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안’은 진단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안’은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내리는 처방이므로 ‘진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안’은 ‘대책’과 비슷한 어휘로서 ‘세우다, 제출하다, 제기하다’ 따위의 동사와 어울린다. 이 문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고친다면 ‘가속화하고 있는 가정의 기능 상실 현황과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연재/

방송/강의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 연습

밑줄 친 낱말이 어떤 낱말과 호응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세요.

(1)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성하는 상품들이 학교 앞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2) 아이들의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시다.

(3) 이번 테러 사건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어휘의 의미만 본다면 어떤 것도 호응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휘가 주로 쓰이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일정한 어휘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보일 것입니다.

■ 답

(1) 조성(造成)하다'는 새로 만듦을 뜻하는 말이고, '사행심'은 누구에게나 있으면서도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조성'은 '사행심'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행심'은 '일으키다', '조장하다' 같은 동사와 어울리는 어휘이다.

(2) '조장(助長)하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도와서 북돋움의 뜻을 가지는데, '분위기'는 일정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두 어휘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분위기’와 어울리는 동사에는 ‘만들다’, ‘조성하다’, ‘망치다’ 따위가 있다.

(3) ‘파장(波長)’은 ‘파동(波動)’의 길이이다. 이것과 어울리는 형용사는 ‘길다’, ‘짧다’ 정도이고, 동사는 ‘길어지다’, ‘짧아지다’ 정도이다. ‘일으켰다’와 어울리려면 일어날 수 있는 명사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테러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영향’을 가리킬 수 있는 ‘파문’이 적격이다. ‘파장’은 ‘파급되는 영향’의 의미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하다.

4. 논리적 호응

논리적 호응이란 겹문장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겹문장을 이루는 각 절(節)은 통사적으로나 어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호응이 되지만, 두 절 사이에는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겹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맺어진 문장을 이른다. 달리 설명하면 두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절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는데, 안은 문장은 절 안에 절이 포함되는 경우이고, 이어진 문장은 절이 종속적으로나 대등하게 이어진 경우이다.

안은 문장에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예: 나라를 위하여 죽음은 국민에게 큰 영광이다),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예: 네가 어제 만난 사람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부사절을 안은 문장(예: 나는 그와 서울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이 있고, 이어진 문장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예: 네가 가겠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예: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이 있다.

a: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으므로 재수하게 되었다.

b: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승진시켜 주겠다.

c: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d: 님은 떠났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않았다.

위의 네 예문은 모두 호응이 잘 되어 있다. a와 b는 앞 절이 뒤 절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a는 종속절이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결과 행한 사건이 나타났다. 따라서 ‘떨어졌으므로’와 ‘재수하게 되었다’는 논리적으로 호응이 된다. b는 종속절이 조건을 나타내고 그에 따라서 약속을 했다. 따라서 ‘일한다면’과 ‘승진시켜 주겠다’는 논리적으로 잘 호응된다.

c와 d는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겹문장이다. c는 독립적으로 일어난 두 사건을 단순히 연결 어미로 나열하여 이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두 절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호응되고 있다. d는 앞 절은 뒤 절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논리적 호응은 문제가 될 수 없이 잘 연결될 것 같지만 때로는 이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왕이 출선 검약함으로써 국민에게 수범하는 것을 왕도정치의 근본으로 삼았거니와, 따라서 복식에 있어서도 그 평상복은 사대부의 평상복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에서)

위 문장에서 쓰인 어미 ‘-거니와’는 사리가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이어 주는 데에 쓰이거나, 이미 있는 사실에 보태어 새로운 사실을 말할 때에 쓰인다. 그런데 위의 문장 구성은 그 어느 경우에도 정확하게 맞지 않게 쓰였다. 논리적 호응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탓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호응되게 쓴다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왕이 술선 검약함으로써 국민에게 수범하는 것을 왕도정치의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복식에 있어서도 그 평상복은 사대부의 평상복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어미 ‘-거니와’를 쓰려면 아래와 같이 문장 구성을 하면 될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왕이 술선하여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국민에게 모범을 보였거니와 의복도 검소하게 입었기 때문에 왕의 평상복은 사대부의 평상복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어떤 문장은 너무 비논리적이어서 논리적 호응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문장은 전면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왕조 초에는 왕 常服도 四爪龍衣(사조룡의)였는데,① 뒤에 들으니 중국에서는 親王 常服이 五爪龍(오조룡)이라고 하여 뒤늦게 이를 알고 이것도 明帝로부터의 五爪龍衣의 賜與(사여)를 기다려 착용하였음은 왕 常服에서 이미 알아본바 있거니와,② 이 때 世子 常服은 三爪龍衣였는데,③ 이렇게 왕 常服이 五爪龍衣가

됨으로써 세자 常服도 한 계단 올려 四爪龍衣로 한다는 것이 왕 자신이나 조정의 법제에도 무방하리라는 데서,④ 세종 31년 9월 이를 四爪龍衣로 고쳐입게 하였던 것이다.(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에서)

아마 이 글의 내용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읽고 또 읽어 논리적인 추적을 거친 다음에야 겨우 저자가 드러내고자 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왕의 상복과 관련된 부분과 세자의 상복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조선왕조 초에는 왕 常服도 四爪龍衣(사조룡의)였는데,① 뒤에 들으니 중국에서는 親王 常服이 五爪龍(오조룡)이라고 하여 뒤늦게 이를 알고 이것도 明帝로부터의 五爪龍衣의 賜與(사여)를 기다려 착용하였음은 왕 常服에서 이미 알아본바 있거니와,②

(2)이 때 世子 常服은 三爪龍衣였는데,③ 이렇게 왕 常服이 五爪龍衣가 됨으로써 세자 常服도 한 계단 올려 四爪龍衣로 한다는 것이 왕 자신이나 조정의 법제에도 무방하리라는 데서, 세종 31년 9월 이를 四爪龍衣로 고쳐입게 하였던 것이다.

결국은 위의 (1)과 (2)가 연결 어미 ‘-거니와’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과 (2)가 ‘-거니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과 ③의 ‘였는데’의 앞뒤 절도 논리적으로 호응이 되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조선왕조 초에는 왕의 상복도 四爪龍衣였는데 명제에게서 五爪龍衣를 사여받은 뒤에 五爪龍衣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서 세자의 상복도 三爪龍衣였던 것을 세종 31년에 四爪龍衣로 고쳤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면 ‘-거니와’, ‘-였는데’가 모두 논리적으로 앞뒤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 초에는 왕 常服도 四爪龍衣(사조룡의)였지만 明帝에게서 五爪龍衣를 받아 착용하면서 五爪龍衣로 바꾸었거니와, 三爪龍衣였던 世子 常服도 왕 常服이 五爪龍衣가 되자 세종 31년 9월에 한 계단 올려 四爪龍衣로 바꾸었던 것이다.

문장 사이의 논리적 호응

이제까지 이야기한 호응은 한 문장 안에서 쓰인 문법 요소와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논리적인 호응의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글이나 말이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주제를 완성해 가는 것이므로, 그런 일정한 흐름과 배치되는 경우에 논리적인 호응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논의되는 호응은 문법보다는 문장론의 대상이 되지만 여기에서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문장 사이의 논리적 호응의 문제는 주로 주장이나 묘사의 일관성 결여나 불일치에서 나타난다. 앞에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서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거나, 앞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뒤에서는 저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아래 글을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서정성과 휴머니즘, 안개처럼 감싸고 돌던 우수와 이국적인 정서, 낯선 도시의 무표정한 엑스트라들, 아마도 우리를 끌어들이던 흡인력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전인 요소는 그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었다.

② 무표정의 연기를 특기로 했던 게리 쿠퍼, 지성미를 자랑하던 그레고리 팩, 청순가련의 표상이던 「애수」에서의 비비안 리,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군림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할리우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우들의 전성기였다.③(정옥자, 「아름다움의 잣대」에서)

위의 글은 글쓴이가 젊었을 때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들의 어떤 점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회고하면서, ‘남녀 주인공의 멋진 연기와 용모’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한 대목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남녀 주인공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기 전에 영화들의 서정성과 휴머니즘, 우수와 이국적인 정서, 낯선 도시의 엑스트라들 등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즉 ①의 요소와 ②의 요소 사이에는 매끄럽지 못하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①까지 읽는 동안 독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과거의 영화에서 글쓴이가 느꼈을 서정성과 휴머니즘 등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글쓴이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②에서는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요소를 내세움으로써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①과 ②가 호응하려면 독자가 ①의 상황에서 이미 ②의 상황을 예상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서정성과 휴머니즘, 안개처럼 감싸고 돌던 우수와 이국적인 정서, 낯선 도시의 무표정한 엑스트라들 등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견인 요소는 그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고치면 자연스럽게 두 문장이 호응한다. 그러나 이렇게 고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③이 ②의 요소의 설명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롭게 “명우들의 전성기였다”라는 말을 꺼내어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관심의 초점은 ‘그때가 명우들의 전성기였는지 아니었는지’에 있지 않고 ‘당시 영화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따라서 마지막을 아래와 같이 끝내야 전체의 문장이 서로 논리적으로 호응이 된다.

그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서정성과 휴머니즘, 안개처럼 감싸고 돌던 우수와 이국적인 정서, 낯선 도시의 무표정한 엑스트라들 등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견인 요소는 그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었다. 무표정한 연기를 특징으로 했던 게리 쿠퍼, 지성미를 자랑하던 그레고리 펙, 청순가련의 표상이던 「애수」에서의 비비안 리,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군림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할리우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우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아래의 글은 내가 아무리 논리적 흐름을 따지면서 읽어 내려고 해도 제대로 읽히지 않아서 도무지 주제를 파악할 수 없었다. 나에게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인지 이 글이 워낙 비논리적으로 쓰여서인지 알 수 없다.

①나는 萬海의 한 작품만을, 가령 「님의 沈默」이나 「알 수 없어요」 혹은 무슨 詩 한 편만을 배운다든가 가르친다는 것의 무의미함을 절감한다. 가능하면 詩集 「님의 沈默」을 적어도 그 중에서 萬海의 정신적 편력에 역점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수의 詩를 대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데, 그것은 내가 萬海 詩를 배우고 공부하는 명분을 萬海 당대의 문화적 문맥, 고쳐 말해서, 그 당대의 역사에 대한 타당한 표기법의 파악에다 두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②그것은 문학을 방법과 풍속의 양면성에서 생명의 측정기로 바라보는 인간 감각의 최량의 부분으로 이해한다는 뜻이지 문학을 직선적인 등가물(equivalent)로 파악하려는 사회학적 입장과는 엄연히 구분지워진 자리인 것이다. ③예술 자체는 盲目的이지만 확실한 촉각을 갖는 것이라는 명제는 상호 보충적인 설명을 전제한 것이다. 盲目에 방향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 요청될 때 盲目 쪽이 치유되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전면 수락으로 말미암아 관념 형태로 전락되어 예술의 소멸에 문득 봉착할 것이라면, 이를 극복하는 길은 확실한 촉각이어야 한다. 이 兩者의 긴장 관계 속에 놓이는 것이 예술의, 그리고 詩의 고유한 존재 방식일 것이다. ④따라서, 詩에서의 특히 萬海 詩에서의 公的인 측정 단위는 이데올로기의 사정 거리와 촉각으로서의 이미지 혹은 감각화된 사상성의 거점에서 서로 결합되는 어떤 公的인 것의 확인의 모색을 뜻하는 것에 이른다. ⑤그러므로, 萬海가 당대 속에 어떻게 살았고, 반응했느냐의 구체적 사실과 작품과의 接合點

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우선하고, 그 다음 차례에 예술 본래의 의미인 측정 단위의 모색이 놓일 것이다.(김윤식, 『韓國近代作家論攷』에서)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추적해 보자. ①은 글쓴이가 만해의 시를 여럿 읽게 하는 이유를 밝힌 대목이다. 그 이유는 만해의 시를 배우고 공부하는 명분을 만해 당대의 역사에 대한 타당한 표기법의 파악에다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역사에 대한 타당한 표기법의 파악’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②는 저자가 만해의 시를 배우고 공부하는 명분을 만해 당대의 역사에 대한 타당한 표기법의 파악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대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서술어가 “구분지워진 자리인 것이다”로 끝난 것으로 보아 ‘그것은’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③은 문장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휘도 서로 호응하지 않고 있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예술 자체는 맹목적이지만 확실한 촉각을 갖는 것이라는 명제”가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상호 보족적인 설명을 전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또 “盲目에 방향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 요청될 때 盲目 쪽이 치유되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전면 수락으로 말미암아 관념 형태로 전락되어 예술의 소멸에 문득 봉착할 것이라면, 이를 극복하는 길은 확실한 촉각이어야 한다”라는 문장도

전혀 문법적이지 못하여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④는 ‘萬海詩’에서의 공적인 측정 단위에 관한 설명이고, ⑤는 ‘萬海詩’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재론(再論)이다.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면 ①에서 만해의 시를 다양하게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②에서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뒤에 ③에서 그와 관련된 다른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④나 ⑤에서 다른 견해를 극복하여 자기 주장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성이 바람직하다. 이 글도 이런 방향으로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글의 비논리적 구성과 사용된 어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글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 누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어로 된 사용 설명서나 기술 서적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보 교환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 연습

아래 문장은 밑줄 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논리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문장이 되도록 고쳐 보세요.

한 군주가 있어, 자기의 제국을 걸고 인접한 나라의, 자기와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군주와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승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그런 기회의 제공자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김윤식, 『천지 가는 길』에서)

■ 답

군주는 자기 제국을 걸고 인접한 나라의, 자기와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군주와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승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 연습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논리적으로 호응이 될까요?

정말 뜻하지 않게도 나의 부친인 허허 선생이 나를 부른다는 소리를 들고 순간 나는 펴 착잡한 감회였다.(남정현, 「許虛 선생」에서)

■ 답

연결 어미 ‘-고’는 두 개의 절을 종속적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종속적으로 연결할 때에는 종속절이 주절의 근거나 조건이 되고, 독립적으로 연결할 때에는 앞뒤 절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위 문장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겹문장이다. 착잡한 감회를 일으킨 원인이 부친의 부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속절의 서술어에 맞추어 주절의 서술어 서술어 형태도 바꾸어야 한다.

정말 뜻하지 않게도 나의 부친인 허허 선생이 나를 부른다는 소리를 들고 나는 순간 마음이 착잡해졌다(착잡했다).

■ 연습

다음 문장을 논리적 호응이 되도록 고쳐 보세요.

역사적 소재 속에 조선의 얼을 주제로 상징적 표현을 하며 근대 독립 운동을 했던 인물 중심 주제로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민족 사상을 드러낸 작품도 구성해서 그가 유가 사상의 선비 정신이 투철한 민족주의자임을 보여 준다.(오동춘, 『위당 시조 연구』에서)

■ 답

위 문장은 ‘상징적 표현을 하며 작품도 구성해서 민족주의 자임을 보여 준다’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상징적 표현’과 ‘작품 구성’은 ‘민족주의자임을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맞추어 문장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역사적 소재 속에 조선의 얼을 주제로 상징적 표현을 하고, 근대 독립 운동을 했던 인물 중심 주제로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민족 사상을 드러낸 작품도 구성함으로써 자신이 유가 사상의 선비 정신이 투철한 민족주의자임을 보여 준다.

5. 호응과 은유⁴⁾

호응이란 일정한 의미 범위를 가지는 어휘가 그 범위를 벗

4) 은유(隱喻, metaphor)란 어휘가 문자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또는 다른 사

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어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휘의 이런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은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을 끝이곧대로 이해한다면 주어와 서술어가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사람은 갈대가 아니다), 관형어와 체언의 호응도 되지 않는(갈대는 생각하지 못한다) 치졸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장을 아무 이상 없이 이해하고 오히려 극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칭찬한다. 우리는 왜 주어와 서술어, 관형어와 체언이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어휘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이를 은유적 표현으로 칭찬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하

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예를 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에서처럼 ‘떡’으로써 식량을 나타내거나(이를 대유법이라고 함), “감투 싸움이 한창이다”에서처럼 ‘감투’로써 벼슬을 나타내거나(이를 제유법이라고 함), “별이 떴다”에서처럼 ‘별’로써 장군을 나타내거나(이를 환유법이라고 함), “여자는 갈대”에서처럼 ‘여자’를 갈대에 비유하는 경우에(이를 은유법이라고 함), 각 곳에서 사용된 ‘떡’, ‘감투’, ‘별’, ‘갈대’ 등이 모두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의 사기가 충천한 상태이다”라고 말했을 경우의 ‘충천(衝天, 하늘을 찌름)’도 은유적 표현으로 본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기(士氣)가 하늘을 찌르지 않기 때문이다. “벤처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라는 표현에도 은유가 포함되어 있다. ‘벤처(venture, 모험적 사업)’, ‘열풍(熱風, 뜨거운 바람)’, ‘강타(強打, 세게 침)’ 등이 모두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여 그 대안을 진단한다”에서 ‘대안을 진단한다’는 잘못된 표현으로 볼까? 그것은 어휘들 사이이 호응을 어김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1)전쟁터에서는 끊임없이 대포가 짚었다.

(2)개가 달을 쳐다보며 폐성(吠聲, 짚는 소리)을 쏘았다.

(1)문장의 ‘대포’는 ‘쏘는’ 것이지 ‘짚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이 문장은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문장의 ‘개’는 ‘짚는’ 동물이지 ‘쏘는’ 동물이 아니라고 보면 이 문장도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을 자세히 보면 ‘대포’와 ‘짚음’, ‘개’와 ‘쏘’이 전혀 이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지가 교차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개가 짚는 것처럼 시끄럽게 대포가 짚을 수 있고’, ‘사람이 달을 향해 활을 쏘는 것처럼 개도 달을 향해 폐성을 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썼다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유와 호응의 갈등에 부딪칠 수 있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은 화석화한 어휘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즉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의 의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은 사람을 기성의 의미와 사용법을

활용해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려고 노력하며,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이고 좀더 밀접한 표현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일반인이 구체적인 사물을 보는 눈과는 다른 눈으로 그 사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내거나, 기존의 어휘에서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한 사용법을 찾아내게 해 준다. 은유는 이런 창조적이고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되는 언어이다. 따라서 사물을 이해하고 어휘를 요리하는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은유를 이해하는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휘의 의미적 호응을 따져 비문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자칫 창조적인 언어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은 의미적 호응의 결여나 은유나 그 본질적인 특성은 ‘일탈(逸脫)’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상적인 어휘의 의미 범주를 벗어나서 어휘를 사용할 때에 의미적 호응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거나 은유 기법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벗어남’의 형편과 정도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문장이 되기도 하고 고도의 함축성을 가진 멋진 은유 문장이 되기도 한다. 한국어 은유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박영순 박사가 “은유는 언어 체계의 안정성과 통합성과 문맥 안에서 조작적 사용의 변화와 다양성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 체계를 유지하고, 문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롭고 다양한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은유가 제일

먼저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한 것은 비문과 은유문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일탈’이 비문이 되거나 은유문이 되는 경계는 무엇일까?

비문과 은유문의 경계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우수한 모국어 사용자이다. 어린이나 처음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웬만한 은유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시인들이 사용하는 고급 은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모국어 사용자(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가 아니면 이 경계를 알 수 없다. 이 우수한 모국어 사용자가 자기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글쓴이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은유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그가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그 말은 은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글쓴이의 설명을 들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표현으로 인정하여 은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반인은 은유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문인들은 어휘에서 은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도의 은유는 일견 비문처럼 보일 수도 있다.

비문과 은유의 한계가 이처럼 모호하므로 글을 쓰는 사람은 은유문을 쓰기 전에 먼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휘의 의미와 쓰임새를 정확하게 안 뒤에 통사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자연히 새로운 언어적 영감을 받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의 의미나 표현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있

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를 때 은유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은유는 사진사가 예술적인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단계에 비유할 수 있다. 사실적인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술적인 사진을 찍게 된다. 문장에서 은유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기성의 표현법을 제대로 습득해야 한다. 어법에 맞는 문장 작성과 정확하고 세밀한 묘사법을 습득한 사람만이 비문이 아닌 은유문을 쓸 수 있다.

■ 연습

아래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이 잘못 쓰였는지 은유적 표현인지 검토해 보세요.

아무런 약속도 없이 나는 떠나야 했다. 내 작고 초라한 배로……나는 메마른 땅을 파고 굴을 파야만 했다. 내 긴 뱃길을 위하여……그것은 물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맑은 날씨와 따뜻한 햇볕은 언제나 내게 인색하였다. 비바람이 아니면 눈보라의 나날을. 그래도 나는 오늘까지 나의 뱃길을 쉬지 않았다. 그만큼 나의 운하는 길고 먼 것이다.(박화성, 『눈보라의 운하』에서)

이 글은 한국 문단의 대모(代母)로 알려진 박화성이 만년에 쓴 자서전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많은 어휘들은 상징적으로 쓰인 것들입니다. ‘배’는 박화성 자신을 상징하고, ‘뱃길’은 박화성이 걸어온 길을 상징하며, ‘운하’는 그가 삶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

는 문장들은 박화성의 인생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은 좀 다릅니다. 은유적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문장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 답

은유적 표현이지만 ‘인색하다’를 이렇게 쓰는 것은 비문에 가깝다. ‘맑은 날씨와 따뜻한 햇볕’은 ‘순경(順境)’을 상징하고, ‘비바람이나 눈보라의 나날’은 ‘역경(逆境)’을 상징하는 은유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순경은 내게 별로 주어지지 않았다’의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인색한 것이지 ‘순경(날씨와 햇볕)’이 인색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이 ‘돈은 내게 인색했다’라고 표현하거나, 평생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집은 나에게 인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인색하다’를 이렇게 사용한 것은 비문에 가깝다. ‘신은 언제나 내게 인색하였다. 맑은 날씨와 따뜻한 햇볕 대신에 비바람이 아니면 눈보라의 나날만을 주었다’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쓰거나, ‘맑은 날씨와 따뜻한 햇볕은 나와 인연이 없었다. 비바람이 아니면 눈보라의 나날만이’처럼 쓰면 문제가 없어진다.

■ 연습

다음 글에서 줄친 부분의 의미적 호응이나 비유 관계를 검

토하고 의견을 말해 보세요.

그녀의 몸에 뚫려 있는 모든 구멍들이① 당사실 같은 파장으로
② 창기의 머릿속에 웅크리고 있는 음모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③
(한승원, 「검은맹기두루미」에서)

이 글은 그녀가 창기의 진심 또는 의도를 읽어내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①과 ③
곧 주제와 서술어가 호응되는지, ②의 비유가 적절한지 검토
해 보기 바랍니다.

■ 답

‘구멍’들을 신경 세포가 곤두서 있는 구멍으로 생각하면 ①
과 ③은 은유적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옷
을 벗기는’ 주체를 ‘구멍’으로 설정해야 했는지는 납득하기 어
렵다. ②의 ‘당사실 같은 파장’은 작가의 설명이 없이는 이해
하기 어렵다. 당사실(중국산 명주실)과 파장이 어울리지 않고,
‘구멍이 파장으로 옷을 벗긴다’는 구조도 쉽게 납득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글은 은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 연습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적 호응이나 비유 관계를
검토하고 의견을 말해 보세요.

사실로는 졌지만 마음으로는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
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죽어도 것불을 안 찢는다는 지조, 이 몇 가

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였다.(이희승, 「딸각발이」에서)

■ 답

제시된 세 가지, 곧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젓불을 안 찌겠다는 지조’ 따위를 생활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신조’란 ‘굳게 믿어 지키는 생각’을 뜻하는 말이다. 다음에 ‘양반은 얼어죽어도 젓불을 안 찌는’ 태도를 지조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체면치레에 가까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조와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젓불을 안 찌겠다는 지조’가 의미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양반은 얼어죽어도 젓불을 안 찌는 마음가짐’과 ‘지조’도 의미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

보태기

우리 문학계에서 일어난, 은유와 비문(非文)에 관한 ‘협약한’ 논쟁 하나를 소개하겠다. 논쟁은 1959년에 소설가 김동리와 비평가 이어령 사이에서 일어났다. 당시의 논점은 크게 3가지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비문이나 틀린 표현을 쓴 작가의 문장을 지성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외국어 직역투 어휘나 틀린 표현을 쓴 문장을 지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어령이 오히려 틀린 문장을 쓴 사실을 상대방한테서 지적당하자 이어령이 자기의 표현은 은유라고 반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58년 12월호 사상계에 이어령이 오상원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한국어도 제대로 쓰지 못한 글을 김동리가 지성적인 문장이

라고 평했다면서 김동리를 비난한 것이 논쟁의 실마리였다. 김동리는 이어령이 쓴 어휘나 표현에도 비국어적인 것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오상원의 글이 비지성적이라면 이어령의 글도 비지성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령은 비록 자기의 글에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해도 오상원의 글을 지성적이라고 평한 것은 김동리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김동리는 남의 조그만 잘못을 매도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어령이 김동리가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한 자기 표현은 은유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김동리가 이어령의 작품에서 발견한 비국어적인 표현을 비난한 글부터 소개한다.

만약 氏(이어령을 가리킴)의 말대로 직역적인 용어 몇 개가 섞였기 때문에 ‘지성적’이 아니라면 정서적일 수는 있는가. 또는 감각적일 수는 있는가. 그렇지도 못하다면 아무 것도 아닌가. 그래서 ‘우리말도 모르는’ 외국인의 符籍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좋다. 나는 氏에게서 氏가 만족할 만한 ‘우리말도 모르는 외국인의 符籍’을 보여 줄 것이다.

‘깜박 눈을 뜬다’, ‘슬픈 마음을 울 눈도 없이 孤獨했다’, ‘피들이 흘러가는 血脈들’, ‘內臟한 遺跡의 補道’, ‘야만한 원색’, ‘서기한 광채’, ‘사군자의 묵화를 그린’ 등등은 氏의 「사반나의 風景」, 「綠色寓話集」이란 두 편에서 조금 뽑아낸 것이다. 도대체 ‘깜박’은 눈을 뜨는 데 쓰는 말인가. 우리말의 ‘깜박’은 불이 꺼지는 데나 사물을 망각한 데 쓰는 副詞로 되어 있고, ‘깜박거린다’는 말은 있지만 이것은 明滅이 계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을 무리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눈을 감는 쪽

이지 뜨는 쪽은 아니다. ‘피들이 흘러가는 혈맥들’의 ‘들’은 영어 複數法의 직역인 모양인데 우리말은 달라서 ‘피가 흘러가는 혈맥들’이라고 한다. ‘야만한 원색’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고, ‘서기한 광채’는 아마 ‘瑞氣한 光彩’인 모양인데 ‘瑞氣’는 명사다. 명사 밑에 ‘한’이 붙어도 좋다면 ‘人間한’, ‘地球한’, ‘赤色한’, ‘靑色한’도 다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군자의 묵화를 그린’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사군자를 그린’ 하지 ‘사군자의 묵화’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밥을 먹은’ 할 것을 ‘밥의 음식을 먹은’ 하는 것과 같은 어법이다. 끝으로 ‘슬픈 마음울 울 눈도 없이 고독했다’와 ‘內臟한 遺跡의 補道’는 어느 외국어 사투린지, 우리나라 계룡산 속에 있다는 어느 邪教 단체의呪符인지 짐작할 길이 없다(補道を 鋪道로 고쳐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다).

氏는 氏의 이러한 語法들이 오상원 씨의 ‘무기미’, ‘눈준다’보다 우리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야말로 자기 눈속의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의 티끌만 아는 사람이다. 어째서 자기는 오상원 씨보다 더 우리말을 모르면서 지성적이 될 수 있고, 자기보다 덜 모르는 오상원 씨는 지성적이 되어서 안 된단 말인가.(경향신문, 1959. 2. 18에서)

이 비난에 대하여 이어령이 자기 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A=氏(김동리를 가리킴)가 제일 먼저 내세운 ‘깜박’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선 해명한다. 氏는 깜박이란 말이 ‘눈을 뜨는 데 쓰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국문학회의 辭典과 을

유문화사판 辭典에는 엄연히 ‘눈을 감았다 뜨는 모양’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한글학회 ‘큰 사전’만이 ‘눈을 감는 꼴’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사전에는 뜨는 쪽으로만 되어 있고 어느 사전에는 감는 쪽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치 ‘깜박’이란 말의 한계가 명확치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B= ‘슬픈 마음을 울 눈도 없이 고독했다’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이것은 「失明한 비둘기」라는 散文詩에서 나오는 한 구절인데 전후 文脈으로 보아 대낮처럼 분명치 않은가? 전쟁으로 눈을 잃은 비둘기의 이야기다. 슬픈 마음을 울어볼 눈조차 없다는 것이다. 즉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는 뜻이다.

C= ‘野蠻한 原色’=한여름의 바닷물과 낭떠러지의 황토 흙의 빛깔을 표현한 말이다. 야만은(야만한 따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야만’이란 풀이 끝에 ‘-하다’라고 되어 있다. ‘야만’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표시이다. ‘매운바람’을 ‘고추바람’이라고 하는 경우처럼 이때의 야만이란 말은 ‘야생한 것’의 메타포다. 즉, 색깔이 매우 진하고 야생적이라는 표현이다. 表現技法의 ABC에 속하는 문제다.

D= ‘피들이 흘러가는 혈맥’=「유리 共和國」이라는 상징적 散文詩에 나오는 말이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가 전부 들여다보인다는 그 童話的인 나라를 假想해 본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나체를 들여다보면 고운 ‘피들이 흘러가는 혈맥들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때 피에 ‘들’이 붙은 것은 漫畫映畵에서 個個 血球가 영양분을 운반하는 그 작업 광경처럼 피에 아니미스틱한 그 生命感을 준 알레고리다. 여인의 몸이 투명하다는 것이 이미 하나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의 피 또한 상징적인 피다. ‘손을 다쳤다. 피들이 흘러나온다’ 하면 잘못

이다. 그러나 ‘피들의 作業’이라 하면 알레고리가 되기 때문에 하등의 모순이 될 수 없다.

E= ‘內臟한 鋪道の 遺跡’=「聖페에타의 敗北」에서 나오는 詩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이 앞에 어둠이라는 말이 있다. 어둠을 내장한 포도, 즉 표면적인 어둠이 아니라 그 내부에까지 스며 있는 어둠의 이미지를 표현한 말이다. 詩人은 어둠을 물처럼 찰름 거린다고까지 표현한다.(朴斗鎭) 아무리 소설가일지라도 詩의 수사학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原則이다.

F= ‘서기하는 광채’=畿湖 지방 특히 忠淸道에서 쓰는 말이다. 어둠 속에서 燐光처럼 퍼렇게 빛나는 것을 ‘서기한다’고 한다. ‘고양이가 서기한다’, ‘서기하는 호랑이의 눈’이라고 얼마든지 말한다. 여기에선 자개 박은 편상이 어두운 방에서 ‘서기한다’는 뜻이다. 이에 해당될 만한 표준어가 없기에 方言 그대로 썼다.

G=사군자의 묵화=묵화에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 묵화가 곧 사군자는 아니다. 이때 사군자는 묵화의 限定語다. 어떤 묵화냐를 한정해 주자는 뜻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숨이 나온다. 중학교 학생을 놓고 作文을 가르치는 것 같다. 20년이나 소설을 쓴 氏가 이렇게 修辭學에 어두운가. 이러한 氏이고 보니 상원 씨의 문장을 지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경향신문, 1959. 3. 12에서)

논점은 ‘슬픈 마음을 울 눈도 없이 孤獨했다’, ‘피들이 흘러가는 血脈들’, ‘內臟한 遺跡의 鋪道’, ‘野蠻한 原色’, ‘서기한 광채’, ‘사군자의 묵화를 그린 따위가 잘못된 표현인지 은유인지 밝히는 데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인과 비평가 사이에 부적절한 표현과 은유에 관한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적절한 표현과 은유 사이에는 한계를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여기에서 판단해 보자. 우선 ‘內臟한 遺跡의 鋪道’는 ‘內臟’이 ‘內藏’의 의미로 썼다면 단순히 한자를 잘못 사용한 정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으므로(김동리나 이어령은 줄곧 ‘內臟’을 썼지만) 논외로 치고, ‘서기한 광채’의 ‘서기하다’는 충청도에서 사용하는 방언이라고 하니(확인할 수는 없지만) 논외로 치기로 한다. 나머지 ‘슬픈 마음을 울 눈도 없이 孤獨했다’, ‘피들이 흘러가는 血脈들’, ‘野蠻한 原色’, ‘사군자의 묵화를 그린’ 따위는 이어령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은유(metaphor)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다.

‘슬픈 마음을 울 눈도 없이 고독했다’를 ‘失明한 비둘기’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슬픈 마음을 울다’는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울다’는 자동사이지만 ‘울음을 울다’처럼 동족 목적어를 취하여 타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울음’을 ‘슬픔’이나 ‘아픔’, ‘괴로움’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슬픔을 울다’, ‘아픔을 울다’처럼 말이다. 그러나 ‘마음을 울다’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다리가 아파서 울면 ‘다리를 울다’로 표현하고, 감격하여 코가 찡한 느낌이 들면 ‘코를 울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는가? 표현 기법도 한국어의 기본 어법에 맞아야 한다. ‘울’ 대신에 ‘흘릴’을 사용하면 은유적 표현이 될 수 있다.

‘피들이 흘러가는 血脈들’에서 ‘들이’ 붙은 것은 ‘漫畫映畫에서 個個 血球가 영양분을 운반하는 그 작업 광경처럼 피에 아니 미스틱한 그 生命感을 준 알레고리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피들’과 ‘피’의 어느 표현이 생명감을 더

주고 덜 준다고 느껴지지 않고, 만일 생명감을 주고 싶다면 ‘피
들’을 ‘피톨들’로 쓰면 가능할 것 같다. ‘피’에 ‘들’을 붙이는 것
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문장만 그르칠 뿐이다.

‘野蠻한 原色’의 ‘야만’을 ‘야생한 것’의 은유로 볼 수 있으므
로 옳은 표현이라고 한 주장도 억지스럽다. ‘야만의 원색’이라면
모르되 ‘야만한 원색’은 맞지 않다. ‘야만’은 ‘미개한 오랑캐’의
의미에서 ‘미개한 오랑캐와 같은 상태’로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野蠻하다’는 성립되지 않는다. ‘야만’의
반대어 ‘문명’(文明)에는 ‘-하다’를 붙여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
지만 ‘야만’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

‘사군자의 묵화를 그린’에서 ‘사군자’가 ‘묵화’를 한정하기 위
해서 사용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떤 ‘묵화’인지 밝히기 위해서 ‘사군자의 묵화’
라고 표현한 것은 문학 비평가답지 않은 태도이다. 과일을 그린
수채화를 ‘과일의 수채화’라고 하거나, 인물을 그린 유화를 ‘인
물의 유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는 달랑이라고 부르는 개 한 마리를 집에서 기르고 있다. 어느 날 눈이 거의 덮일 정도로 털이 자란 달랑이를 데리고 동물 병원을 찾아갔다. “우리 달랑이, 털을 잘 깎아 주세요” 하고 부탁한 다음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그 병원으로 달랑이를 데리러 갔다. 나는 털이 깎인 달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달랑이가 아닌데요”라고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은 “맞습니다. 아주 예쁘게 털을 깎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머리털은 상고머리처럼 깎인 데다, 얼굴의 털은 다 밀려 버려서 얼굴이 역삼각형이 되었고, 털이 없는 주둥이는 여우처럼 뾰족하게 드러났다. 거기다가 꼬리와 엉덩이 주위만 털을 밀어 놓았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영남없이 원숭이 모습이었다. 그 예뻐던 달랑이의 모습은 간데없었다. 내가 화가 나서 “어쩌자고 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고 힐난조로 말하자 주인은 조금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개는 이렇게 깎는 겁니다” 하고

는 자기 볼 일을 보러 가 버렸다. 나는 속으로 ‘아빨싸, 내가 단순히 잘 깎아 달라고만 말한 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이야기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놓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잘 깎아 주세요’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말고, 처음부터 ‘얼굴은 어떻게, 다리와 꼬리는 어떻게, 몸의 털은 어떻게 깎아 주세요’라고 주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한 것들을 상대가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생략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습관은 곧바로 문장의 요소를 생략하는 데까지 미쳐 문장에서 상대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믿는 성분은 미련 없이 생략(省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언어든지 원래 갖추어야 할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한국어나 영어나 마찬가지이다. 그 외의 경우에 필수 성분을 생략하는 예를 영어에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아무리 필수 성분이라고 해도 생략할 수 있다. 주어도 생략할 수 있고, 때로는 서술어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한국어에서 문장의 필수 성분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보조사 ‘은’을 설명할 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상대가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문장의 구문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나는 반대다.”

이 말은 ‘나는 네 의견에 반대한다’를 줄인 표현이다. 동사 ‘반대한다’가 명사 ‘반대’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꼴로 바뀌었다. 아래 경우는 더욱 기상천외하다.

“나는 자장면이야!”

이 말은 [나=자장면]의 구문이 아니다. ‘나는 자장면을 시키겠어(먹겠어)!’의 뜻인데 ‘시키겠어’를 상대가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 ‘나는 자장면’에다 ‘이야’를 붙인 구문으로 바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술격 조사 ‘이야’도 빼고 “나는 자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생략 대상은 광범위하고 그 방법도 독특하다. 그렇다고 마냥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생략을 검토해 보자.

1. 조사 생략

한국어에서 가장 먼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조사이다. 체언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또는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 알 수 있으면 가차없이 생략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목적격 조사이다. 목적격 조사는 대체로

동사 앞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구나 그것이 목적적인지 알 수 있으므로 쉽게 생략할 수 있다.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어가 오더라도 아래와 같이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무엇 먹었니?”

“빵 먹었다.”

“빵 많이 먹었니?”

“빵 조금밖에 못 먹었다.”

그 다음으로 쉽게 생략할 수 있는 조사가 관형격 조사 ‘의’이다. 관형격 조사 ‘의’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 온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체언이 연속해서 나타나면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자연스럽게 꾸미는 기능을 맡는다. 즉 앞의 체언이 뒤의 체언의 관형어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관형격 조사 ‘의’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집’보다는 ‘우리 집’, ‘영수의 이야기’보다는 ‘영수 이야기’가 더 간결해서 좋다. 한국어 ‘의’에 해당하는 일본어 ‘노(の)’는 일본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어 ‘의’는 그렇게 대단한 기능을 할 수 없다.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의’(예컨대 ‘아버지의 재산’),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의’(예컨대 ‘건물의 옥상’), 행동의 객체를 나타내는 ‘의’(예컨대 ‘자연의 관찰’), 시간을 나타내는 ‘의’(예컨대 ‘여름의 바다’), 행위를 나타내는 ‘의’(예컨대 ‘축하의 잔치’) 등은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

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생략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1)영수의 슬픈 이야기/사람들의 기막힌 사연
- (2)오늘의 시장 경제/신라의 삼국 통일
- (3)취업의 어려움/동물의 먹고 먹힘/예술의 아름다움
- (4)사망의 골짜기/평화의 사도/사랑의 징검다리

한국어에서 ‘의’가 쉽게 생략되지 않는 경우는 위의 네 경우이다. (1)은 체언과 체언 사이에 다른 관형어가 있을 경우이고, (2)는 뒤의 체언이 둘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며, (3)은 뒤의 체언이 명사구인 경우이고, (4)는 의미적으로 볼 때 앞의 체언이 뒤의 체언을 수식하기 어려워 강제로 관형어로 만드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의’를 생략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안 되는 않지만 조금 혼란을 겪게 되므로 관형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의’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 문인들의 글에는 이상하게 일부러 관형격 조사 ‘의’를 너무 사용하여 글의 흐름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경우는 ‘의’를 생략한다기보다는 빼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국어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시월 초하루 국전이 열리는 날 오후 두 시 경복궁 미술관 앞에는 여러 가지 옷차림의① 남녀노소들이 줄을 지어 흐르고 있었다. 대개는 이십 대의② 젊은이들이었으나 가운데는 새하얀 치마 저고리의③ 할머니와 사오십 대의④ 신사들, 그리고 중학생 차림의⑤ 열너댓 살짜리 아이들도 꽤 많았다.(김동리, 「이곳에 던져지다」에서)

①은 ‘을 한’, ②와 ④의 ‘의’는 삭제, ③은 ‘를 입은’, ⑤는 ‘인’으로 고친다면 좋았을 것이다. 생략할 수 있는데도 생략하지 않고 더욱이 다른 표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기어이 ‘의’를 연달아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음으로는 부사격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사격 조사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목적지를 나타내는 조사 ‘에/로’이다.

“순희야 너 학교/서울 가니?”

“아니, 도서관/대구 간다.”

“극장/광주 안 갈래?”

“극장/광주 말고, 노래방/부산 가자.”

위의 문장에 ‘에’나 ‘로’를 붙이면 목적지가 더욱 명확해지지만 생략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는 생략이 잘 안 된다.

“너 몇 시에 갈 거니?”

“아홉 시에 갈 거야.”

“조금 일찍 여덟 시에 가면 안 되니?”

이 밖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에’(예컨대 ‘너 때문에 틀렸어’, ‘사랑에 우는 여인’), 분리를 나타내는 ‘에서’(예컨대 ‘서울에서 왔다’), 수단이나 재료를 나타내는 ‘로’(‘칼로 썰었다’, ‘흙으로 빚었다’), 방향을 나타내는 ‘으로’(‘부산으로 떠났다’)

따위는 생략할 수 없다.

주격 조사 ‘이/가’는 쉽게 생략할 수 없다. 주어 자체는 생략할 수 있지만 주어를 쓰면서 주격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제어를 나타내는 ‘은/는’이 주격 조사 대신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대비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주격 조사가 없는 경우는 대체로 주제어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생략된 경우이다.

“너 누구니?”

“나 영희 언니야.”

“언니 뭐니?”(×)

“나이 많은 사람 언니지.”(×)

위 문장에 생략된 주격 조사를 넣어 보자.

“너는 누구니?”/“네가 누구니?”

“나는 영희 언니야.”/“내가 영희 언니야.”

“언니가 뭐니?”

“나이 많은 사람이 언니지.”

‘너 누구니’와 ‘너는 누구니’는 의미가 거의 같다. 그러나 ‘네가 누구니?’는 이들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 주어를 받는 서술어는 기존 정보인 경우가 보통인데, ‘네가 누구니?’는 서술어가 ‘누구’라는 미지의 정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네가’가 주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가 영희 언니야’는 ‘누가

영희 언니니?’의 대답으로서 적절한 문장이다. 즉 ‘영희 언니’가 기존 정보이고 그것의 주체가 ‘나’일 때에 새로운 정보인 주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누구니?’에서 ‘너’가 이미 기존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로 삼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주어는 새로운 정보여야 한다는 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네가 누구니?’, ‘내가 영희 언니야’는 부적절하다. 다시 말하면 ‘너 누구니?’, ‘나 영희 언니야’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주제어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이 생략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반하여 ‘언니 뭐니?’와 ‘나이 많은 사람 언니지’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격 조사 ‘이/가’를 넣으니 완전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주격 조사 ‘이/가’는 생략하면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격 조사 ‘이/가’가 생략되는 경우는 아래의 두 경우이다. a는 주격 조사가 서술절의 주어에 쓰인 경우이고, b는 주격 조사가 보어를 만드는 조사(보격 조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a: 나는 허리 아프다.(나는 허리가 아프다.)

b: 그가 선생 되었다고?(그가 선생이 되었다고?)

1) 서술격 조사의 생략

서술격 조사는 명사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인데 ‘이다’가 유일하다.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이다’가 다른 용언과 같은 활용을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조사로 보지 않고 ‘지정사’ 등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이다’를 학교 문법에 따라서 활용하는 조사로 보고 설명을 한다. 아래 세 문장은 모두 주어는 있지만, 완전한 서술어는 없는 불구 문장이다.

a: 고 씨가 두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고 전날인 29일 오전 출근길. (동아일보, 99. 7. 1에서)

b: 20여 명의 인기 만화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만화계 사상 최초의 일. (조선일보, 99. 6. 7에서)

c: 사건의 무대는 안락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없는 것 없는 감옥. (한겨레, 99. 8. 18에서)

위 글은 모두 신문의 기사문 속에 있는 문장으로서,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술격 조사를 생략한 것들이다. 국내의 모든 신문에는 이런 문장들이 수없이 많다. 물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없더라도 그것이 생략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문장이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읽는 흐름이 끊기는 약점이 있다. 연속적으로 ‘이다’ 또는 ‘이었다’ 등이 나오는 것을 막고 지면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완전한 문장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a1 : 고 씨가 두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고 전날인 29일 오전 출근길에서였다.

b1 : 20여 명의 인기 만화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만화계 사상 최초의 일이다.

c1 : 사건의 무대는 안락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없는 것 없는 감옥이다.

2) 조사 생략의 한계 설정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글의 뜻이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신문의 제목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아래 제목들은 일간 신문의 제목으로 쓰인 것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1) 외국인들 한국땅 많이 산다.

(2) 김우중 씨 검찰 고발키로/“김우중 씨 검찰 고발”

(3) “우린 인민군 포로 북에 보내달라.”

(1)은 ‘외국인들이 한국땅을 많이 산다’의 뜻인지 ‘외국인들이 한국땅에서 많이 산다’의 뜻인지 얼른 분간하기 어렵다. ‘산다’를 ‘구입’의 뜻으로 보느냐 ‘거주’의 뜻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사를 달리 붙일 수가 있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어야 한다. 만일 조사를 붙여 두었다면 본문을 읽지 않고도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는 증권 선물 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김우중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신문 제목인데 일간 신문들은 한결같이 이런 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은 ‘김우중 씨가 검찰을 고발키로’, ‘김우중 씨를 검찰이 고발키로’, ‘김우중 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등 전혀 다른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기사를 잘 읽어 보면 ‘김우중 씨를 검찰에 고발키로’의 뜻으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를 생략하지 않았다면 고민을 하지 않고도 제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3)은 ‘우리 인민군 포로를 북에 보내 달라’를 잘못 쓴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읽어 보면 ‘우리는 인민군 포로이니까 북에 보내 달라’를 그렇게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포로이니까’에서 서술격 조사 ‘이니까’를 생략하니 이상한 제목이 되었다.

이처럼 문장에서 조사를 생략하면,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거나 예기치 않은 반대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2)의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이 달라지는 극단적인 오해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생략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연습

아래 문장들에는 어떤 조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조사를 찾아 넣어 보세요.

(1)한재기 교수가 전날 밤에 이렇게 분명히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대표는 신새벽에 한 교수와 내가 자고 있던 여관방 문을 두드리면서, 함께 상선사 오르자고 졸랐다.

(2)내가 그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이 년 전의 늦은 봄, 나 혼자서 계룡산 중턱에 그림같이 자리잡고 있는 도예 마을 다녀온 직후다.

(3)상선사에 올라갔던 학생들이 정오 조금 못 되어 내려왔다.

(4)휴일 아니라서 고속도로가 붐비지 않았다.(네 문장은 모두 이윤기, 「손가락」에서)

답

(1)부사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상선사에 오르자고’ (2)부사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도예 마을에 다녀온’ (3)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정오가 조금 못 되어’ (4)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휴일이 아니라서’

이처럼 주제어인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일부 부사격 조사가 손쉽게 생략되는 것이 한국어이다. 하지만 생략된 상태가 바람직하고 좋으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든지 생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문장에 생략된 조사를 넣어서 읽어 보면 조사가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사는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생략하면 어색한 경우가 있고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는 오랜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분 생략

한국어에서는 모든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하나씩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무더기로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정보는 그것이 얼마나 많거나 길든지 개의하지 않고 과감하게 생략한다. 생략을 위해서 아예 문장의 구조까지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다. 한국인은 가히 생략의 천재라고 할 만하다.

한국인만 생략의 천재가 아니고 사실은 이웃 일본인들도 한국인 못지 않은 생략의 천재이다. 일본어도 한국어와 같이 대범하게 생략을 한다. 일본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の)’를 마치 체언과 체언 사이의 윤활유처럼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점이 한국어와 다를 뿐, 모든 문장 성분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은 한국어와 같다. 한국어나 일본어의 문장 성분은 상대방에게 알려진 정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주어 생략

대화에서는 주어가 대부분 생략된다. 아래 대화를 보자.

“다녀왔습니다.”

“늦었구나.”

“예. 늦게 끝나서요.”

“괜찮았니?”

“좋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나누는 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 보아도 이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 옆에서 듣는 그의 아버지(또는 남편)도 이 대화만으로는 아들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 묻고 답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알아내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밖의 것만 알면 그만이다. 그 점을 익히 아는 아들도 최소한의 내용만을 어머니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한국어이다. 그럼 이 대화에 주어를 넣어 보자.

“저 다녀왔습니다.”

“너 늦었구나.”

“예. 영화가 늦게 끝나서요.”

“영화 괜찮았니?”

“좋았어요.”

주어를 넣어 보니 외출한 사람이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지만 자기들끼리는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한국어이다.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는 다 아는 정보라도 그 집단 밖의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보를 가진 집단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국인은 외톨이가 된다. 정보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들 내부에서만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를 가진 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어는 한국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구어체에서는 주어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지만 문어체에서는 주어 생략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독자가 주어를 알 수 있을 때에만 생략해야 한다. 아래 글을 읽어 보자.

①하늘 끝과 맞닿은 듯이 보아도 보아도 끝이 없는 무한한 바다, 하얗다 하얗다 못해서 새파랗게 질은 비취빛의 물결, 이 물결이 길을 넘어 뛰는 파도의 奏樂, 이 주악 속에 고스란히 잠긴 바다, 이 바다 위에 해녀는 떴다. ②머리에다는 수건을 동이고, 적삼으로는 유방을 가리우고, 잠방이로는 하복부를 가뜰히 감춘 다음, 팔목에다는 ‘피창’을 걸고 허리에다는 ‘소살’을 차고서 가슴에다는 ‘태박’을 안고 휘이 휘이 휘파람을 불면서 개구리처럼 버지럭 버지럭 몸을 밀고 나간다. ③나가다가는 곤두박질을 친다. ④두다리를 종긋이 모으고 하반신을 수면 위로 곳곳이 공중으로 거꾸로 올려 벌리며 잔뜩 팔마서 물속으로 달려드는 그 날렵이란 마치 물속에다 쏜 사람의 화살이었다.(계용묵, 「바다」에서)

①문장의 주어는 ‘해녀’이다. ②-③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해녀’가 주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문장의 서술어가 모두 해녀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를 생략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앞 문장의 주어가 뒤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뒤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내 집 마당 구석에 조그마한 못이 있다. (2)나는 이따금 그 못가에 앉아서 고기 노는 것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3)그러나 실상인즉 호악처럼 땅을 파고 시멘트로 물이 안 새게 발라 놓은 장난감 같은 못에다 우물물을 자아 넣고 금붕어 몇 마리를 기르는 것일 따름이다.(이은상, 「벽로기」에서)

(1)의 주어는 ‘못’이고, (2)의 주어는 ‘나’인데, (3)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만일 (2)의 주어가 (3)의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면 (3)의 주어가 생략되어도 괜찮지만 여기에서는 (2)의 주어와 (3)의 주어가 다르다. 그런데도 (3)의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의 주어를 추측한다면 ‘못’이 될 것인데 주어를 ‘못’으로 삼는다면 이 문장은 구성이 잘 되지 않았다. 예컨대 ‘못이라고 해 봐야 그것은 실상인즉 호악처럼 땅을 파고 시멘트로 물이 안 새게 발라 놓은 장난감 같은 못에다 우물물을 자아 넣고 금붕어 몇 마리를 기르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면 부사어 ‘못에다’가 부적절하게 된다. 만일 ‘못에다’를 ‘구덩이에다’라고 바꾸면 문제가 해소된다.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생략하게 되면 주어를 넣을 때에 이

처럼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긴다.

■ 연습

다음 글을 읽고 각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가 있으면 적어 넣어 보고, 그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를 찾아 보세요.

(1)싸일렌이 끝난 뒤에 한동안 뜸하였던 대포 소리가 또다시 띠엄띠엄 들리며, 무덤같이 암흑 속에 잠긴 공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2)밀려 오는 보병을 위한 엄호 사격인지? (3)포소리가 아까보다 좀더 가까워진 것을 보면 탱크가 위협 공포를 쏘며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비는 푹 끊지고 문드러진 구름 새로는 별이 총총히 반짝이기도 한다. (5)보도로 주척주척 부스럭부스럭 하며 어린아이들까지 킁소리 없이 슬슬슬 줄달아가는 검은 그림자가 얼밋거리는 것은 비를 밤새껏 맞고 진흙구덩이를 헤매다가 지쳐서 집구석으로 되돌아선 피난민 떼의 물에 빠진 족제비 같은 꼴들이었다.

(6)서울역 저만치 바라보고는 머리끝들이 으쓱해지며 전속력을 놓았다. (7)후딱 지나쳐 놓고도 뒤에서 탕탕 총알이 날아올 것만 같았으나,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을 보니, 적군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8)벌써 중앙청을 점령했다면야 방송국이나 정거장도 점령하였을 것이 아니냐는 짐작들이었다.

(9)남대문 안을 들어서면서부터 속력을 부쩍 떨어뜨렸다. (10)조심조심 물계를 보아 가며 종로 쪽이 잠잠하기만 하면 재동까지 치달아 올라갈 수 있을 것ियो, 여차직하면 동화백화점 뒤 회현동에 있는 한미무역의 사무소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영식의 집으로는 그만두자고 의논이 된 것이다. (11)영식이는 가는 길에 자기 집에

들러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재동까지 모셔다 두고
와야 할 모양이다.(염상섭, 「취우」에서)

■ 답

주어가 생략된 문장은 다음과 같고, 생략된 주어와 그에 호
응하는 서술어는 괄호 속에 넣었다. 모호한 문장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잘 읽고 이해하기 바란다. (보기: 주어-서술어)

(2): 밀려오는 보병을 위한 엄호 사격인지? (대포 소리는-엄호
사격인지)

(3): 포소리가 아까보다 좀더 가까워진 것을 보면 탱크가 위협
공포를 쏘며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관찰자는-모르겠다)

(6)서울역 저만치 바라보고는 머리끝들이 으쓱해지며 전속력을
놓았다. (운전수는-전속력을 놓는다)

(8)벌써 중앙청을 점령했다면야 방송국이나 정거장도 점령하였을
것이 아니냐는 짐작들이었다. (차에 탄 사람들은-짐작들이었다)

(9)남대문 안을 들어서면서부터 속력을 부쩍 떨어뜨렸다. (운전
수는-떨어뜨렸다)

(10)조심조심 물계를 보아 가며 종로 쪽이 잠잠하기만 하면 재
동까지 치달아 올라갈 수 있을 것이요, 여차직하면 동화백화점
뒤 회현동에 있는 한미무역의 사무소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영식
의 집으로는 그만두자고 의논이 된 것이다. (그들은-의논이 된
것이다)

(2)는 무엇이 엄호 사격인지 알 수 없다. 아마 ‘대포 소리’를
염두에 둔 문장 같은데 그렇다면 ‘엄호 사격 소리인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3)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서술어 ‘모르겠다’의 주어를 상정한다면 작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視點)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이 문장을 ‘포소리가 아까보다 좀더 가까워진 것을 보면 탱크가 위협 공포를 쏘며 들어오는 것 같다’처럼 고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도 주어가 드러나는 문장이 된다.

(6)은 ‘운전수’가 주어인데 생략되었다.

(8)의 주어도 생략되어 있다. ‘차에 탄 사람들’이 주어이다.

(9)의 주어도 ‘운전수’인데 생략되었다.

(10)의 주어도 ‘차에 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문장(6), (9)는 생략된 주어를 명확하게 독자가 알 수 있고, 문장(2), (3), (8), (10)은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주어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주어를 무리하게 생략함으로써 문장 구성이 흐트러지고 독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주어를 찾도록 강요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글을 읽으면 문장 구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문장(1)의 ‘띠엄띠엄 들리며’의 ‘들리며’는 ‘나며’처럼 능동사로 바꾸어야 뒤에 오는 동사 ‘뒤흔들어 놓았다’와 호응이 됨을 알 수 있다.

문장(5)는 구성이 너무 산만하다. “보도로 주척주척 부스럭 부스럭 하며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한 검은 그림자들이 슬슬슬 줄달아 얼밧거렸다. 비를 밤새껏 맞으며 진흙 구덩이를 헤매다가 지쳐서 집구석으로 되돌아선 피난민 떼였다”처럼 바꾼다

면 어떨까?

문장(10)의 구성도 요령부득이다. ‘영식의 집으로는 그만두자고 의논이 된 것이다’의 문장도 이상하지만(아마 ‘집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썼을 것이다), 글의 전개를 볼 때 이 말이 그 앞의 두 가지 방안과 절실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빼면 문장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된다. ‘조심조심 물계를 보아 가며 종로 쪽이 잠잠하기만 하면 재동까지 치달아 올라갈 수 있을 것’이요, 여차직하면 동화백화점 뒤 회현동에 있는 한미무역의 사무소로 들어가기로 의논이 된 것이다’ 정도이면 충분하다.

2) 서술어 생략

문장이란 ‘무엇이 어떠한’을 설명하는 형식인데 거기에서 ‘어떠함’을 생략한다면 문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가 없는 문장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가끔 서술어를 생략하는 시도가 있고 때로는 그 시도가 성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는 대체로 입말에서이다.

“그 꽃은 꺾어서 무엇 하시랴오?”

조신은 이렇게 물어 보았다. 물론 조신은 그 석벽에 기어오르다가 빠가 부서져 죽더라도 올라갈 결심을 하였다.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꽃구경을 못 하시와서, 꼭 저 꽃을 꺾어다가 어머니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달래는 수줍은 듯이 그러나 낭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이광수, 「꿈」에서)

조신에게 석벽에 핀 철쭉을 꺾어 달라고 부탁한 달레가 조신의 물음에 수줍어하면서 대답한 말에 서술어가 생략되었다. 달레의 말에서 생략된 서술어를 생각해내라면 독자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겠지만 구태여 서술어를 생각해서 덧붙일 필요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면 서술어가 생략된 것이 더 다행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독자가 쉽게 생략된 서술어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그런 서술어는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던 ‘나는 자장면!’에서 서술어가 생략된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어의 생략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서술문이 나열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서술어 생략된 문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끝없는 동해 바다. 맑고 푸른 동해 바다. 낙산사 앞바다.

늦은 봄의 고요한 새벽 어두움이 문득 깨어지고 오늘은 구름도 없어 붉은 해가 푸른 물에서 쭉 솟아오르자 끝없는 동해 바다는 황금빛으로 변한다. 느실느실하는 끝없는 황금 바다.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불그스레하게 물이 든다.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틈의 철쭉꽃 포기들과 관세음보살을 모신 낙산사 법당 기와도 황금빛으로 변한다.(이광수, 「꿈」에서)

위의 글에서 서술어가 없는 어구가 네 개 나온다. 앞의 셋은 단순히 어구를 나열한 것으로서 문장으로 보지 않으면 그만이기도 하지만, 넷째 글은 그렇게 보아 넘기기에는 좀 미심쩍

다. 바로 앞에 문장이 있고 그 뒤에 문장이 있으며 글은 한곳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인 ‘늪실늪실하는 끝없는 황금 바다’를 단순한 어구로만 보기 어려운 것이다. 추측하건대 이광수는 단순한 [주어+서술어]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을 시험한 것 같다.

‘늪실늪실하는 끝없는 황금 바다’의 각 어휘를 보면 그 앞 문장과 비교해 볼 때에, ‘끝없는’, ‘황금’, ‘바다’는 모두 이미 제시된 정보이고 ‘늪실늪실하는’만 처음으로 제시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만일 일반적인 문장 구성법을 따랐다면 ‘끝없는 황금 바다’를 주어로 삼고 ‘늪실늪실하다’를 서술어로 삼아서 ‘끝없는 황금 바다가 늪실늪실한다’처럼 썼을 것이다.¹⁾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글의 맛이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의 문장에서 나온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 바다의 모습을 좀더 인상적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작가는 서술어로 쓰일 어휘를 관형어로 돌리면서 서술어를 과감하게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동해 또는 낙산 앞바다를 인상 깊게 묘사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은 썩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늦은 봄의 고요한 새벽 어두움이 문득 깨어지고 오늘은 구름도 없어 붉은 해가 푸른 물에서 쭉 솟아오르자 끝없는 동해는 황금빛

1) ‘늪실늪실하다’는 ‘늪실늪실하다’의 잘못이다.

으로 변한다. 늪실늪실하는 끝없는 황금 바다.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불그스레하게 물이 든다.

밑줄 친 어절의 앞 문장이나 뒤 문장은 모두 무엇이 어떤 색으로 변하는 모양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사이에 이질적인 표현을 한 문장이 들어 있다. 글의 흐름이 '황금빛으로 변한다'에서 '불그스레하게 물이 든다'로 가는 중간에 그 어느 것에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끼여 있는 셈이다. 밑줄 친 부분은 비록 표현은 새롭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앞 문장의 의미를 되풀이한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작가는 하나를 얻고 다른 하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얻은 것은 새로운 표현이고, 잃은 것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소설 문장에서 이 두 가치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되,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추는 것은 언어 능력의 문제이고,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학적 자질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니, 이런 점에서 작가가 기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특별한 표현에 집착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서술어 생략은 일시적인 산뜻함을 주지만 자칫 문맥을 끊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남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가죽잠바 안에 회색 폴라티를 받쳐입고 잠바 바깥으로 폴라티와 같은 색상의 순모 머플러를 둘렀다. 이발을 한 것일까. 머리가 유독 짧아 두 귀가 오롯이 눈에 띈다. 단정한 입매와 창백한 피부로 인해 남자는 언뜻 차가운 인상이다. 짙은 눈썹과 각이 없는 턱 탓인지도.① 그녀는 남자의 쌍

꺼풀 없는 가느스름한 오른쪽 눈밑에 깨알 만하게 돌아 있는 점을 잠깐 주시했다. 눈물 떨어지는 자리에 가만히 돌아 있는 점 때문에 남자의 차가운 인상이 지워진다. 청바지 밑에 갈색 랜드로바 끈.② 바지가 딸려 올라간 탓인지 양말을 신었는데도 바지 안에 입은 크림색 내의가 살짝 엿보인다.(신경숙, 「부석사」에서)

위 글의 밑줄 친 ①은 주어와 함께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인데 비록 주어와 서술어는 없지만 단순한 어휘의 집합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일정한 문장 성분을 이루고 있는 어절임을 알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를 넣으면 곧바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게 준비된 어절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생략된 주어와 서술어를 생각해내어 ‘그것은 짙은 눈썹과 각이 없는 턱 탓인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문장은 앞 문장이나 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생략된 이 문장은 형식상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런 생략이 최선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같은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완전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짙은 눈썹과 각이 없는 턱 탓일까?’는 완전한 문장이면서도 ‘짙은 눈썹과 각이 없는 턱 탓인지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②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인상의 묘사와 차림새의 묘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어구를 앞의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남자의 인상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바지 밑에 갈색 랜

드로바 끈'에서 남자의 어떤 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야 하고, 뒤의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남자의 차림새를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바지 밑에 갈색 랜드로바 끈'이 보이거나 묶여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어구로 우리가 일정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비록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생략된 서술어를 추측할 수 있지만, 문학 작품이 철학서가 아니라면 좀더 세심한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남자에 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경우의 서술어 생략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노형들을 잠깐 뵈러 왔소이다.”

수인사도 없이 차인놈이 제법 콩심는 시늉으로 수작을 걸어 오는데 천봉삼이 대뜸 반말거리로,

“어허, 이 위인들이 똥 본 강아지 모양으로 왜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나 그래?”

차인놈이 씩 웃음을 흘리고는,

“행수어른의 방자로 왔습지요.”

“그 차인행수란 놈이 어디 된급살이라도 맞았더라 말ियो?”

“노형들, 결 삭이구 내 이야길 좀 들어들 보십시오.”(김주영, 『객주』에서)

위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은 셋이다. 천봉삼과 차인(差人),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천봉삼과 동패인 선돌이가 그들이다. 차인놈의 말에 천봉삼이 역정을 내고 나무라

자 차인놈이 이에 대답을 하고 선돌이가 그를 다시 타박하는 대화이다. 그런데 문장상으로 보면 천봉삼이가 차인놈에게 처음 한 말을 설명한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천봉삼이가 대뜸 반말거리로”라고 시작한 지문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a: 수인사도 없이 차인놈이 제법 콩심는 시늉으로 수작을 걸어 오는데 천봉삼이 대뜸 반말거리로, “어허, 이 위인들이 똥 본 강아지 모양으로 왜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나 그래?”

서술어를 일부러 생략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생략된 부분은 ‘라고 말했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차인놈의 대답을 서술한 문장도 서술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차인놈이 씩 웃음을 흘리고는,” 뒤에 차인놈의 말을 인용하였을 뿐 지문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b: 차인놈이 씩 웃음을 흘리고는, “행수어른의 방자로 왔습지요.”

여기에서도 서술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라고 받았다’ 또는 ‘라고 대답했다’ 따위가 생략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생략해도 될까? 생략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생략이 가능할 것 같지만 형식상으로 보면 너무 허술하다. 그 이유는 문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와 b 모두 문장의 끝이 어디인지, 왜 그곳을 문장의 끝으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곤란하

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문장 구성은 피해야 한다. 소설에서 지문(地文)에 인용문이 포함되는 경우에 인용문은 지문의 한 구성 요소(위의 두 문장에서는 모두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일 뿐이다. 따라서 인용문에 휘둘러 문장의 필수 성분을 빠뜨리면 안 된다. 희곡(戲曲)에서는 대화문이 주를 이루고 지문은 괄호 안에 넣어서 등장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등을 간단하게 제시하지만, 소설에서는 대화가 따옴표 안에 들어가고 지문이 서술문으로서 소설 전개에 주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지문은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위 예문처럼 문장의 끝을 마무리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 연습

아래의 글 가운데에서 밑줄 친 부분을 검토하여 생략된 서술어를 넣어 보세요.

이 마을이 통째 대구 사는 김만장 영감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벌써 몇 대째. 그러니 어느 옛날부터 대대로 비록 주인은 갈릴 법해도 한결같이 가난해만 내려오는 이곳 사람들은 또 김만장 영감을 그대로 하나의 무서운 존재로 받들고 살아가는 백성일밖에 없었다.(황순원, 「별과 같이 살다」에서)

‘벌써 몇 대째’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부정확합니다. 김만장 영감 가문이 몇 대째 이 마을의 소유주라는 의미인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몇 대째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주인이 김만장 영감이라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 경우에 맞

게 서술어를 생각해 보세요.

■ 답

첫째로, 김만장 영감의 가문이 몇 대째 마을의 주인으로 있음을 의미한다면 ‘벌써 몇 대째 물려 내려왔다’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마을 사람이 바뀌어도 마을의 주인은 김만장 영감이라는 뜻이라면, ‘벌써 몇 대째’는 뒤의 문장 가운데 ‘대대로’ 자리에 끼워서 ‘그러니 어느 옛날부터 벌써 몇 대째 비록 주인은 갈릴 법해도’처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기타 성분 생략

주어나 서술어까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목적어나 부사어 등 다른 성분이 생략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물론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생략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이다. 생략이란 기존 정보를 서로 공유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때로는 아직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생략된 성분이 무엇인지 몰라 궁금해하게 되고 때로는 그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 확실하게 공유하는 정보가 아니면 성분 생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1)긴 세월 직장 생활에 골몰하다가 집 안에 처박히게 되면 대개
그런다고 들었다. (2)강박하게 굴던 사람도 여간해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깊은 밤 홀로 눈을 뜨고 있으면 듣는다고 한다. (3)야반 삼
경에 나는 집 안의 여러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천장
이 툭 하면 냉장고는 탁 하고 받는다. (5)텔레비전인들 가만히 있
을손가. (6)타닥타닥하고 장단을 맞춘다.(최일남, 「풍경소리」에서)

위 글에서 문장(1)은 ‘그런다고’라는 내용이 숨겨진 부사어
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장(2)에 나온다. 내용은 ‘깊
은 밤 홀로 눈을 뜨고 있으면 듣는다고 한다’이다. 그런데 여
기에서도 완전히 ‘그런다고’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다. 문장
(2)의 목적어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듣는지 알 수 없
으니 ‘그런다고’의 내용이 드러날 수 없다. 문장(3)을 읽고서
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다. ‘듣는’ 것은 ‘야반 삼경에 나는
집 안의 여러 소리’이고, ‘그런다고’의 내용은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런 문장 배열은 문장에서 강조법으로 쓰이는 도치
법을 문장 단위로 구성한 것인데 소설의 구성을 위해서 작가
가 시도한 방법이라고 이해한다면, 문장(2)의 목적어 생략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문장에서는 이런 시도
가 지나쳐 결국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고 말았다.

(1)네거리 복판에 정차해 있을 때는 앞을 스쳐 좌우로 교류하는
통행인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괜찮았다. (2)남녀노소의 표정이나
걸음걸이, 계절에 따른 입성의 변화와 여자들의 옷맵시 등을 본의
아니게 바짝 붙어 살피노라면 그런대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

다. (3)세상의 평화와 분란과, 부자와 가난뱅이의 몸짓을 거기서도 감지할 만하다고 여겼다.(최일남, 「풍경소리」에서)

위 글의 문장(2)에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지, 즉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문장 배열의 묘기를 부렸다고 보고 바로 뒤의 문장(3)을 살피면 ‘세상의 평화와 분란과, 부자와 가난뱅이의 몸짓’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짐작하다’의 목적어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지금이 평화의 시기인지 분란의 시기인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뱅이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라면 그렇게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 ‘부자와 가난뱅이의 몸짓’을 짐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리하게 목적어를 생략한 문장을 먼저 내놓고, 다음 문장에서 그 목적어를 드러내는 방법은 이처럼 목적어를 잘못 제시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생략은 앞에 나온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연습

아래 글은 기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을 생략한 결과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밑줄 친 곳에 생략된 성분을 말하고 그것이 기존 정보인지 새로운 정보인지 말해 보세요.

“내보내지.”①

정 총재가 말했다. 매다 만 넥타이가 두 갈래, 와이셔츠 위에서 힘이 없다. 너부죽한 쪽이 그나마 밑으로 더 좀 처져 자칫 주르륵 흘러내릴 기세다.②

“.....무슨 말씀이신지.”③

반은 짐작이 갈망정 부인은 당장 뜨악하다. 머리와 뺨지를 떼 낸,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다짜고짜 말투에 아무리 익숙한 부부 사이기로 나머지 반은 때때로 헛짚는 수가 많다.④ 따라서 부인은 흔히 탄전을 편다. 그 동안에 진의를 파악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몸에 배었다.

“저 사람 말이야, 가정부.”(최일남, 「풍경소리」에서)

①-④는 모두 서술어입니다. 따라서 각 서술어의 주어나 주제어 또는 목적어를 생각해 보세요. 주어에는 주격 조사 ‘이’를 붙이고 주제어에는 보조사 ‘은’을 붙인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답

①청유문으로서 주어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는 기존 정보이다. 그러나 목적어는 상대에게 새로운 정보이다. 이 새로운 정보를 남편은 부인에게 말하지 않아서 부인이 뜨악한 것이다. 만일 남편이 ‘가정부를 내보내지’라고 했다면 부인이 뜨악하게 여길 일이 없었을 것이다. ②무엇이 흘러내릴 기세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기존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불필요한 신경을 써야 한다. 확실하게 제시된 정보가 아니면 생략하지 않는 것이 옳다. 생략된 요소는 주어 ‘넥타이’로서 새로운 정보이다. ③주어가 생략되었다. 앞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 것이다. 생략된 요소는 주어 ‘내보내지’ 또는 ‘그것’이다.
 ④서술어 ‘헛짚는 수가 많다’가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어가 필요하다. 생략된 주제는 ‘부인’이다.

■ 연습

아래 글에서 생략된 요소를 찾아 써 보세요.

지산 선사는 해남 대흥사의 스님이다. 속성은 이 씨, 지산은 염
 화의 호일 것이나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른다.① 그가 천화했다는
 소식을 듣기는② 지난 여름이었다. 종로 네거리에서 만난 한 호남
 스님으로부터 3년 전 이맘 때 사람들이 모여 절 뒷산에서 다비에
부쳤다는③ 얘기를 들은 것이다. 부음의 자초지종을 좀더 듣고 싶
었으나④ 스님은 불일이 바빠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인들
 틈에 사라져 버렸다.(예용해, 『이바구 저바구』에서)

③은 목적어를 생략한 것이고 나머지는 주어나 주제를 생
 략한 것입니다. 조사를 포함해서 생략된 요소를 적어 보세요.

■ 답

①나는 ②내가 ③그를 ④나는

4) 아주 특별한 생략

한국어에는 어휘의 일부를 생략하는 관행이 있다. 주로 신
 문에서 많이 사용해 온 관행인데 지금은 정부의 공문서나 법

를 문서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 올 상반기엔 드문드문 무대에 등장, 팬들을 아쉽게 했던 그가 러시아 음악의 진수를 들려주겠다고 나섰다.(동아일보, 1999. 8. 18에서)

* 이에 한이 맺힌 장보고는 남해 해적을 토벌하고 이 지역은 국적이나 선적을 막론, 그의 통행증이 없이는 항해할 수 없게 했다.(조선일보, 1999. 1. 6에서)

*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훈련 및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 6명이 사망 또는 실종, 총 12명의 인명 피해 중 절반을 차지했다.(조선일보, 1999. 8. 27에서)

* 6번 탱크는 균열에도 불구, 높은 유압 때문에 지하수가 들어갈 수 없었으나, 기름을 옮겨담는 과정에서 유류가 감소, 지하수 압력이 더 높아지면서 물이 유입되었으며 맨 밑바닥층 기름을 넣은 3번 탱크에 물이 500배럴까지 섞여 들어갔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조선일보, 1999. 11. 2에서)

* 특검팀은 또 대전지검이 대검에 올린 보고서 및 정보 보고 내용과 관련,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후 작성 검사들이 보고서대로 실행했는지 여부를 판단,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한국일보, 1999. 12. 10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한결같이 서술어 자리에 온 어휘들로서 접미어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등장, 막론, 사망, 실종, 불구, 감소, 관련, 판단’에 접미어 ‘-하여’ 또는 ‘-하고’를 붙여서 서술어가 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접미어를 생략한 것이다. 한자어 어근(語根)에 접미어 ‘-하다’가 붙어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모든 어휘는 이처럼 접미어를 생략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각 어휘를 정확하게 그 품사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가 생략의 언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생략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생략도 다른 요소의 생략처럼 독자와의 교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더구나 16일에는 한국 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동아일보, 1999. 6. 10에서)

* 질 것 같으면 도중에 ‘판을 엮기’가 일쑤.(동아일보, 1999. 7. 12에서)

* 국내 프로 무대에서는 활개를 치는 서정원도 스피드와 힘이 뛰어난 수비를 만나니 역부족.(조선일보, 1999. 6. 21에서)

* 못 쓰게 된 가재 도구들이 진흙 속에 뒤섞여 그야말로 뒤죽박죽.(중앙일보, 1999. 8. 5에서)

* 기세 좋게 달려갔지만 이제는 득점왕 경쟁에서도 다소 떨어진 상태.(한겨레, 1999. 8. 25에서)

* 개인 통화 비밀이 유출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통신 회사의 내부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한국일보, 1999. 5. 15에서)

위 문장들의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를 생략한 경우이다. ‘예정, 일쑤, 역부족, 뒤죽박죽, 상태, 때문’ 등은 모두 명사나 부사로서 조사 ‘이다’를 붙여 서술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한 것이다. 이것도 한국어

의 생략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우리 밥상을 이미 점령해 버린 유전자 조작 콩 식품의 안전성 논란.① 하지만 국민들의 염려를 식약청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케이비에스, 1999. 11. 4, 9시 뉴스에서)

*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국립서울대학교.② 이번 사고는 우리 대학들의 안전 불감증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엠비시, 1999. 9. 18, 뉴스데스크에서)

* 십구 세기 말 미국에서 밥술을 걸어 놓고 이 술을 꿀게 해 배고픈 사람을 먹이자고 호소한 지 한 세기.③ 세기말의 자선 멤버는 이제 카드 결제와 인터넷 기부까지 가능해졌습니다.(에스비에스, 1999. 12. 3, 8시 뉴스에서)

위의 문장에서 밑줄 친 어휘들은 성분이 모호하다. 문장의 한 성분이기기는 하지만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각각 이를 해석하여 이해할 공산이 크다. ①의 ‘논란’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를 줄인 것 같고, ②의 ‘국립서울대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난’을 줄인 것 같으며, ③의 ‘세기’는 ‘세기가 지나가는 지금’의 의미인 것 같다. 물론 이 판단은 말한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생략도 가능할까? 사람에게 따라서 생략을 허용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세 경우는 한국어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생략법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예가 된다. 과연 한국어는

마냥 생략할 수 있는 언어인가? 한국어의 생략에는 한계가 없는가?

3. 현대 사회와 한국어의 생략

한국어가 생략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언어 생활에서 대단한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서양인들은 문장을 하나씩 쓸 때마다 예외 없이 주어와 동사를 넣어야 하고, 목적어를 갖추어야 한다. 주어나 목적어가 될 만한 것이 없으면 가짜로라도 만들어서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놓아야 한다. 이미 알려진 정보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반드시 그 정보임을 밝힌다. 그들은 언어를 규범으로 생각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눈에 그들은 언어 규범이라는 창살에 갇혀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문법 요소인 조사도 생략할 수 있고,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 어느 성분이라도 생략할 수 있으니, 언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속박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에 관한 한 한국인은 자유인이다.

그러나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폭넓은 언어 생략도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화의 상대방과 부단하게 의사 소통을 한 결과 서로 교감이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된 소중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통하는 집단을 이름으로써 이런 생략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구인들이 끊임없이 다른 종족들과 부대끼면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한 지역에 정착하여 농경 사회를 발전시킨 것이 일찍부터 집단 내부의 의사 소통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어는 과감한 생략이 가능한 언어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한국어의 과감한 생략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광범위한 생략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엄청나게 달라진 언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에 주로 씨족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던 언어 생활이 전국의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에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영위하던 언어 생활을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영위해야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나 정보의 차이뿐 아니라 생각의 차이까지 극심한 사람들과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어휘의 질과 양의 차이, 각종 직업에 따라서 접하는 어휘의 질과 양의 차이, 그리고 계층별, 세대별로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선조들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면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 환경이 변화한 만큼 언어 생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과거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말도 지금은 일부 세대에만 통할 뿐 아니라 어떤 세대에게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가 과거처럼 언어의 생략을 즐기다가 보면 뜻밖에도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때에는 언어 생략이 말하는 사람 위주에서 말을 듣는 사람 위주로, 글을 쓰는 사람 위주에서 글을 읽는 사람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을 듣고 글을 읽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략의 사회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언어의 본질인 ‘언어의 사회성’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매우 중층적으로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에 언어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처럼 하나의 어휘가 한두 의미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될 수 있으면 원칙에 충실하게 사용해야 하고, 필수 성분을 생략하지 말고 완전한 문장으로 구사해야 한다. 늘 새로운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기회가 엄청나게 증가한 현대에서는 모두가 원칙에 따라서 완전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회에서 언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언어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발음의 표준화, 의미의 표준화, 표현의 표준화 등 언어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지키면서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생략 관행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생략이 무엇인지 가려내어 그런 경우에는 생략하지 말도록 권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생략의 관행을 세워야 한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가 제 역할을 다 하게 하려면 언어의 표준화는 필수 불가결하며 한국어의 생략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생략의 한계 설정

어떤 문장 성분도 생략할 수 있는 한국어에 생략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모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생략을 한국어의 강점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쓰고 싶어할 수도 있고 그런 글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생략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서는 서사문, 설명문, 일기문 같은 일반적인 문장을 대상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여 쓴 경우에 한정하여 생략의 한계를 논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하는 한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밝힌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문장 성분의 생략은 일차적으로 이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어를 생략하더라도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목적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생략된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없음은 독자가 판단하는 것이 글쓴이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생략의 뜻을 부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럼 생략의 한계를 설정해 보겠다.

한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바로 앞 문장에 나와 있는 기존 정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바로 앞 문장에 있는 여러 성분의 내용은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앞 문장에 있는 성분은 다음 문장을 적을 때에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너무 멀리 있는 정보는 글쓴이에게는 기존 정보로 인식되지만 독자에게는 잊힌 정보가 되어 기존 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바로 앞 문장에 있는 정보만 기존 정보로 보고 생략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앞뒤 문장이 의미적으로 잘 연결되어야 하고 생략하는 성분이 서술어를 포함한다면 다른 요소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나온 기존 정보라고 해도 생략하기 어렵다.

(1) 새들이 숲 속에서 지저귀고 있다. 때로는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몹시 사랑한다.

(2) 한국은 배달 민족의 나라이다. 땅덩어리가 좁고 척박하지만

살 만한 나라이다.

(3)친구들은 모두 그 여자를 좋아했다. 영수도 무척 좋아했다.
종근이가 데리고 갔다.

(4)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영수는 걸어서 간다. 지
호는 도시락을 두고 왔다.

(5)철이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콘도도 자리잡고 있다. 군인들
이 새로 길을 닦았다.

(1)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새들’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장이다. 따라서 주어를 생략해도 괜찮다. 그러나 셋째 문장은 주어가 ‘사람들’이고 ‘새들’은 목적어이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인 ‘(그) 새들’을 생략하면 안 된다. (2)의 두 문장은 모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뒤 문장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3)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 모두 여자를 좋아하는 문장이므로 뒤 문장에서 ‘그 여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셋째 문장은 여자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문장이 아닌, 전혀 새로운 문장이다. 따라서 생략된 목적어가 ‘그 여자’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4)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학교에’라는 부사어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부사어와 서술어가 있다. 따라서 뒤의 문장에 부사어 ‘학교에’를 생략할 수 있었다. 만일 뒤 문장에 ‘걸어서’라는 부사어가 없다면 ‘학교에’도 생략할 수 없다. 셋째 문장은 ‘학교에 감’과 거리가 먼 새로운 문장이다. 따라서 ‘학교에’를 생략한 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런 경우에는 부사어를 생략하지 말고 ‘도시락

을 학교에 두고 왔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5)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자리잡고'를 통해서 '산기슭'이 특정됨을 알 수 있다. '자리잡고'가 없다면 '있다'만으로는 '산기슭'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셋째 문장은 '자리잡고 있다'와 별개의 새로운 문장이다. 따라서 '산기슭'을 생략하면 '군인들이 산기슭에 새로 길을 닦았다'는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뒤 문장 사이에서 일어나며, 앞뒤 문장이 의미적으로 잘 연결되어야 하고, 생략될 성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는 여러분이 한국어 생략의 기본 배경을 다시 한 번 되새길 것을 요청한다. 한국어 생략의 전제는 상대와의 의사 소통이다. 나와 상대가 이 성분을 생략해도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한국어 생략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느낌은 글을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의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은 문장 성분을 생략할 때에 글을 읽을 사람이 생략된 성분을 알아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현란한 생략의 자유를 선부르게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겉멋으로 한국어의 생략을 즐기려고 하기 전에 문장 성분이 온전하게 들어 있는 문장을 주고받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할 때이다.

2) 생략하지 말아야 할 경우

국어에서 어떤 경우에 성분을 생략하면 안 된다는 법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언어의 사회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때 생략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성분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제시하겠다.

앞 문장의 성분과 뒤 문장의 성분이 다른데 뒤 문장의 성분을 생략하면 안 된다

한국어에서 성분이 가장 자연스럽게 생략되는 경우는 앞 문장의 성분이 그대로 뒤 문장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앞 문장의 주어와 뒤 문장의 주어가 다르거나, 앞 문장의 목적어와 뒤 문장의 목적어가 다른 경우에는 뒤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을 생략하면 안 된다.

①그러나 당신은 어찌된 영문인지 해가 갈수록 더욱 힘이 부쳤다. ②나이를 먹은 탓일까. ③20여 년을 부대끼다 보니 뒷모습으로도 비루한 심사를 읽어내는 요령이 생겼지만, 그 덕에 언성 높일 일 없이 서로 늙어 가는 모습을 지켜 주지만, 갈수록 곤혹스러웠다. ④그저 당신이 베란다에 서 있는 시간 정도로 고인의 친분 정도를 미루어 짐작해 볼 뿐이다.(이주옥, 「봄」에서)

①의 주어는 ‘당신’이다. ②에 주어가 생략되어서 으레 ‘당신’이 주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을 곰곰이 따져 읽으면 ‘당신’이 주어가 아니라 ‘나’가 주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③과 ④의 주어도 ‘당신’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어를 생략했다. 이처럼 막무가내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어가 달라지는 ②에서는 주어를 제시해야 한다.

이어진 문장에서 각 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된다

이어진 문장이란 두 개의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져서 하나로 된 문장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 두 절의 주어가 같으면 한 절의 주어는 생략해도 된다.

나는 머리가 몹시 아팠지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참고 공부를 계속했다.(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에서)

위 예문은 ‘나는 머리가 몹시 아팠다’와 ‘나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참고 공부를 계속했다’가 연결 어미 ‘-지만’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두 절의 주어가 모두 ‘나’이다. 따라서 뒤에 오는 절의 주어를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절의 주어가 같지 않을 때에 한 주어를 생략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나는 벌떡 화가 났지만, 환자가 아침에도 먹을 걸 안 찾는 게 엄만해도 이상해서 집을 비우기가 싫다고 했다.(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에서)

위 예문은 ‘나는 벌칙 화가 났다’와 ‘환자가 아침에도 먹을 걸 안 찾는 게 암만해도 이상해서 집을 비우기가 싫다고 했다’의 두 절이 연결 어미 ‘-지만’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이 두 절의 주어가 같지 않다. 앞 절(이어진 문장의 종속절)의 주어는 ‘나’이지만, 뒤 절(이어진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소설의 문맥을 살펴 추측하면 ‘동생’이 주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절의 주어를 생략해 버림으로써 자칫 주절의 주어도 종속절의 주어처럼 ‘나’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주절의 주어를 ‘나’로 보면 이 소설의 전개는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시비의 발단은 읍장님 막내딸에 대한 경쟁적 연정에 있었지만, 종국에는 오치네 둘째형의 말끝을 걸고 넘어지는 싸움으로 변했다.(심상대, 「미」에서)

위 예문은 연결 어미 ‘-지만’으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앞 절의 주어는 ‘시비의 발단’이다. 그러나 뒤 절의 주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의 의미를 짐작하건대 ‘시비’가 ‘싸움’으로 변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앞 절의 주어를 ‘시비의 발단’으로 해석하는 문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처음부터 ‘시비’를 주어로 삼아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시비는 읍장님 막내딸에 대한 경쟁적 연정에서 비롯했지만, 종국에는 오치네 둘째형의 말끝을 걸고 넘어지는 싸움으로 번졌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를 무엇으로 정해서 문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 뒤에 그 주어를 명백하게 밝혀 놓아야 한다. 그래야 뒤에 이어지는 어절이 그 주어에 맞게 전개되는 것이다.

문단 첫째 문장의 주어는 생략하면 안 된다

무릇 문장의 주어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국어의 특징이 이미 주어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 주어를 생략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문단의 첫째 문장의 주어는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문단이란 새로운 소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글 속의 작은 글이므로 첫째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면 독자가 혼란을 겪게 되기 쉽다. 문단을 나누는 의식이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은 새로운 주어가 나오는 문장에서 새 주어를 생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 문인들이 흔히 저지른 잘못이 바로 아무 때에나 주어를 생략하는 습관인데 아래 문장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는 발가숭이로 가득 찼다. 사나이, 색시,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젖먹이 완전히 원시 적 태고 시대로 돌아갔다. 이 바다 이 너그러운 품속에 안긴 동안은 모두 다 성스런 天民이리라. 물욕을 떠나서, 투쟁을 떠나서, 無邪를 떠나서 다만 바

다에 안기는 赤子니, 호리의 거짓과 꾸밈이 없는 발가숭이의 天真 이리라.(박종화, 「청산백운첩」에서)

첫째 문장에 주어가 없다. 그래서 무엇이 ‘발가숭이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없다. 조금만 주어를 생각했더라면 ‘넓고 넓은 바닷가는 발가숭이로 가득 찼다’라고 바른 문장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문장도 무엇이 ‘원시적 태고 시대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다. 주어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셋째 문장에서 누가 바다의 품속에 안겼으며 누가 天民인지 알 수 없다. 마지막 문장이 말한 ‘바다에 안기는 赤子’나 ‘발가숭이의 天真’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주어를 제시하지 않고 쓰는 이런 글은 바람직한 글이 아니다.

아마도, 언제나 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에 자꾸 발길이 이끌리는 것인지는 도무지 헤집어지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그 집에 가 닿아 있곤 하던 것은 번번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던 맨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끝방의 작은 창문에는 언제나, 아련하면서도 아득한 빛의 점묘화가 펼쳐졌었다.(이인성, 「강 어위에 섬 하나」에서)

글의 시작부터 이렇게 주어를 빼고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마치 추리 소설을 쓰듯이 기교를 부려 주어를 감추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다. 문단의 첫째 문장뿐만 아니라 글의 첫째 문장에도 주어를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失職이라니, 올해는 실직 복이 터졌는지 또 하나의 실직을 하였나. 허명에 끌린 것도 아니요, 무어 생계에 보탬이 될 듯 싶어 그慾氣로 질질 끌려갔던 것도 아니었으나, 울며芥子 먹기로 썼던 그 소위 학장이라는 감투도 벗게 되어서 대단히 시원하다. 싫다는 학장 감투를 도리질하는 이 머리에 씌워서 몇몇 해를 불쾌히 지낸 끝에,一言半辭의 통고도 없이 어느 틈에 當者도 모르게 그 학장 감투를 飛去西向風하고 혹 붙어 세웠다. 당자도 모르게 소위 학장 감투를 씌우고 싶으면 씌우고 벗기고 싶으면 벗기는 학교의 경영체가 얼마나 재주가 좋고, 권력이 있기에, 학장의 머리를 이어 놓았다 잘라 버렸다 마음대로 하느냐고 곧이 들을 사람도 없겠고, 오죽 알량한 학장 자리기에 그렇겠느냐고 코웃음칠 사람도 있겠지마는, 돌이켜 생각하면 오죽이나 변변치 못한 무룡태이기에 그 꼴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것도 자랑이나고 빈정덜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秘密下野’가 있는 뒤에 시국에 편승하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규가 있는 모양인데 요행히 거기에는 아랑곳없는 것만 다행하다. 그러나, 문교부에만은 아직도 내 이름이 걸려 있다니, 학교 당국의 고의거나 태만으로는 아닐지라도, 이번에는 좀 똑똑한 체하고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할 것 같다. 똑똑하여야만 제대로 살 세상에 이러한 반편 구실만 하고 살아 왔으니, 자기보다도 거기에 달린 가족들이 가엾은 생각도 든다.(염상섭, 「무료한 실직자」에서)

실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학교 감투를 ‘飛去西向風하고 혹 붙어 세운’ 주체가 누구인지,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수필은 자기의 이야기이므로 당연히 그 필자가 주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생략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글에는 주어가 ‘나’인 문장과 주어가 ‘나’ 아닌 문장이 나온다. 따라서 독자가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주어와 구별을 위해서도 최소한 문단의 첫째 문장에는 주어를 적어 놓아야 할 것이다.

주어를 서술어로 만듦으로써 주어를 없애는 것은 삼가야 한다. 주로 문인들의 글에서 주어를 도무지 넣을 수 없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어를 넣을 수 없는 문장이 있다. 아래의 문장들이 그 예이다.

a: 어젯밤 벽에 걸려 있는 부엉이가 두 시를 알리며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던 남편이다.(조세희, 「칼날」에서)

b: 공중전화 부스나 찻집에 놓고 오면 다시 새 걸로 마련해 주곤 했던 P였다.(신경숙, 「부석사」에서)

c: 매일 온다고는 하나 지 볼일을 못 볼 정도로 매여 있는 건 아니어서 시집 대소사나 친구끼리의 계모임에도 거의 안 빠지는 동생이었다.(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에서)

a는 ‘남편은 어젯밤 벽에 걸려 있는 부엉이가 두 시를 알리며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였다’를 바꾸어 쓴 것이다. b는 ‘P는 공중전화 부스나 찻집에 놓고 오면 다시 새 걸로 마련해 주곤 했다’를 바꾸어 쓴 것이다. c는 ‘동생은 매일 온다고는 하나 지 볼일을 못 볼 정도로 매여 있는 건 아니어

서 시집 대소사나 친구끼리의 계모임에도 거의 안 빠졌다'를 바꾸어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설가들은 진부한 표현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려고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산뜻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표현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 표현을 쓰는 대신 어순을 바꾸거나 어휘의 일반적인 용법을 벗어나서, 무리한 방법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무엇이 어떻다'를 '어떤 무엇이다'로 바꾸는 표현 기법도 이런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주어+서술어' 구조의 문장이 계속되면 독자는 지루해지기 쉽다. 이때 이런 판에 박은 구조의 문장에서 벗어나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장을 보면 독자들은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효과를 노려서 문법에는 맞지 않더라도 독자의 눈을 끌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소설가는 어디까지나 바른 문장을 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므로, 이런 비문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절제한 생략의 예

요즘 작가들의 글에서는 문법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문장이 자주 나타난다. 일종의 문법 파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할 작가들이 문법을 파괴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내의 손에 들린 자신의 옷을 보는 순간 엄습한 느닷없는 감정에 그는 순간 당황했다.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옷들, 다시 입을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에 다음에는 처분할 계기가 없어서 마침내는 무심하게 잊어서 오랜 시간 저 홀로 천천히 삭고 남아가는.(오정희, 「얼굴」에서)

글을 쓰다 보면 진부하고 반복되는 표현을 줄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글에서도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필자가 문장 성분을 과감하게 생략한 부분이 있다. 둘째 문장은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다. 의미상으로 보면, 앞 문장의 목적어인 ‘옷’에 대한 설명이므로 주어는 ‘그것’이 될 수 있고, 서술어는 ‘옷들이었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아래와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아내의 손에 들린 자신의 옷을 보는 순간 엄습한 느닷없는 감정에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마지막으로 입었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옷들, 다시 입을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처분할 계기도 없어서 그대로 두었던 그 옷들이 오랜 시간 저 홀로 천천히 삭고 남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앞의 ‘옷’도 강조되고 뒤의 주어 ‘옷들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장 구성의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노란 시계는 당신이 주신 것이었지요. 제 팔목에 매달려, 햇살을 받을 때마다 반짝 윤이 나던, 시침과 분침 초침을 맑게 비추던 유리알에 당신의 이니셜이 새겨진.(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위 글의 둘째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없다. 특히 관형어로 문장을 마침으로써 그 관형어가 꾸미게 될 명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미지수이다. 추측한다면 ‘시계’ 또는 ‘것’ 등에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서 문장이 성립되는 형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그것’이 될 것이다. 불구하고 문장에 성분을 보태어 문장을 완성한다면, ‘그것은 제 팔목에 매달려 햇살을 받을 때마다 반짝 윤이 나던, 시침과 분침 초침을 맑게 비추는 유리알에 당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였죠’ 정도가 될 것이다.

개를 목욕시킬 때 사람이 쓰는 비누를 쓰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다. 개 용품을 취급하는 곳에 가서 개가 쓰는 샴푸를 사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염이 생긴다는.(신경숙, 「부석사」에서)

위 글의 둘째 문장에는 관형어가 꾸밀 체언(피수식어)이 없고, 그 체언을 풀이할 서술어도 없다. 앞 문장의 ‘주의를 받았다’를 통째로 생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략은 지나치게 멋을 추구한 것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글의 사회성을 망각한 무모한 생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처럼

완전한 문장을 쓰면서 글맛을 내는 기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를 목욕시킬 때 사람이 쓰는 비누를 쓰면 안 된다는, 개 용품을 취급하는 곳에 가서 개가 쓰는 샴푸를 사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염이 생긴다는 주의를 받았다.

작가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독자에게는 완전하고 좋은 문장을 읽을 권리가 있다. 좋은 표현을 위해서는 문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알맞은 어휘와 자기만의 기법을 동원할 일이 지 만인이 지키게 되어 있는 문법을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인의 언어 생략의 관행은 남도 가락 가운데에서 육자배기 노랫말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나는 황병기 님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고 크게 감탄한 적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학도로서 가야금에 심취하여 정진한 끝에 한국 가야금의 명인이 된 분인지라 육자배기 노랫가락을 해설하는 품이 매우 논리적인 바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해 보겠다.

남도의 민요라고 하면 누구나 육자배기부터 생각할 것이다. 호남 지방의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가 즐겨 부르는 대표적인 민요이다. 남도의 시인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에도 육자배기가 나온다.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시방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 그것도 쉰 목소리로 넘어가는
 그 가락에 작년에 피었던 동백꽃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육자배기 각 절의 사설은 그 끝이 “도는구나”, “눈물이로구나”,
 “염려로구나”에서처럼 “구나”로 되었거나, “놀아볼거나”, “무심할
 거나”, “짜루워볼거나”에서처럼 “거나”로 되었다. “구나”와 “거나”
 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뜻도 없는 애달픔을 머금은 감탄사이다.
 그런데 육자배기의 후렴은 이 감탄사를 독립시켜서 “구나(또는 거
 나), 헤 — ”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파격이야말로 남도의 멋이 아
 날 수 없다. 더욱이 육자배기의 허두를 본래는 사설의 끝에 해당
 하는 “구나”로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마치 예전에 불렀던
 육자배기가 그 동안 시간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가락의 끄트머
 리를 다시 찾아내서 지금 부르는 육자배기의 허두로 삼는 듯하다.
 작년에 피었던 동백꽃을 지금 찾아내는 서정주의 시정과 통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이나 사드란 말이나, 죽음에 들어
 서 남녀노소가 있느냐, 살아 생전에 객기 맘대로 놀아볼거나, 헤
 — ” 대표적인 육자배기 사설이다. 그러나 육자배기 가락은 황진
 이의 고매한 시를 담아 올리기도 한다. “내 정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녹수로구나. 녹수야 흘러내려 갈망정, 청산이야 변할 리가
 있겠느냐. 아마도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 빙빙 안고만 도는구나,
 헤 — ”(황병기,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에서)

안숙선 명창의 육자배기를 들으면서, 첫머리에 ‘거나, 해’ 하며 유장하게 흘러나오는 노랫말이 나올 때 ‘저게 무슨 말이지?’ 하며 고개를 갸웃한 일이 있었다. 음반에 달려 있는 해설에 이 말의 유래가 적혀 있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이 해설을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마치 예전에 불렀던 육자배기가 그 동안 시간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가락의 꼬트머리를 다시 찾아내서 지금 부르는 육자배기의 허두로 삼는 듯하다. 작년에 피었던 동백꽃을 지금 찾아내는 서정주의 시정과 통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해설인가? 나는 이 해설을 읽으면서 몸에 전율을 느꼈다. 과거에 불렀던 수많은 육자배기 가락을 송두리째 가슴에 묻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육자배기 가락 ‘거나, 해’, 그것은 한국인의 고도로 발달한 생략 기법이 이룬 극치가 아니고 무엇일까? 언어의 생략을 즐기려거든 이 정도의 정신적 깊이에 도달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연습

아래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를 찾고 그것이 생략되어도 괜찮은지 생각해 보세요.

(1) 허 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2) 엽독배기 상판을 쳐들고 대어들 숫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3) 충죽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뭇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4) 충

쫓집 대문에 들어서서 술 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엔지 빨끈 화가 나 버렸다. (5)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서)

■ 답

(1)의 주어는 ‘허 생원’이다. (2)의 주어는 없다. 겹문장으로 서 종속절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반면에 주절의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는 주어를 서술어를 바꾼 구성 때문에 주어를 설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엷둑배기 상판을 쳐들고 대어들 솟기도 없었고, 계집 편에서 그에게 정을 보낸 적도 없어서, 그의 반생은 쓸쓸하고 뒤틀려 있었다’처럼 바꾸는 것이 좋겠다. (3)의 주어는 ‘허 생원’이다. 이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와 (5)의 주어도 ‘허 생원’인데 (3)에서 ‘허 생원’을 주어로 제시하면 (4)와 (5)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 연습

다음 글의 문장 구성을 말하고 생략된 성분을 찾아 써 보세요.

(1)제가 서도를 운위하다니 당구의 폐풍월 짝입니다만 (2)엽서 위의 片言(편언)이고 보면 (3)조리가 빈다고 (4)허물이겠습니까?(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이 글은 여러 겹으로 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주절은 (4)입니다. 그리고 이 주절의 종속절은 (3)입니다. (2)는 (3)과 (4)

로 이루어진 겹문장과 대등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1)은 (2)와 (3), (4)로 이루어진 겹문과 대등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절인 (4)의 주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주절의 서술어가 ‘허물이겠습니까?’처럼 ‘명사+서술격 조사’의 형태라는 점이 주어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글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 답

‘그것’이 주어이다. 이 글을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하면 아래와 같다.

‘제가 서도를 운위하다니 당구의 폐풍월 짝입니다만, 엽서 위의 片言에 조리가 없다고 그것이 (제) 허물이 되겠습니까?

만일 글의 첫머리에 나오는 ‘아버님!’을 참작하여 이 글의 주어를 ‘아버지’로 본다면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야 한다.

‘제가 서도를 운위하다니 당구의 폐풍월 짝입니다만, 엽서 위의 片言에 조리가 없다고 허물하시겠습니까?

■ 연습

아래 글을 읽고 생략된 성분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생략해도 되는지 말해 보세요.

- (1)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2)조상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3)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4)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4)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5)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박종홍, 「국민 교육 헌장」에서)

위 글은 다섯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어는 (1)문장에만 있다. 다른 문장의 주어로 (1)문장의 주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럴 경우에 각 문장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 답

(1)의 주어는 ‘우리’이다. 그러나 (2)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로 와야 한다. (2)의 주어도 ‘우리’로 통일하려면 문장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3)과 (4)의 주어는 ‘우리’가 될 수 있다. (5)도 ‘우리’를 주어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그냥 ‘봉사하는 정신을 드높인다’로 바꾸면 괜찮을 것이다.

아래와 같이 고치면 문법적으로 무난하게 된다. 단 이 글의 제목을 ‘국민 교육 현장’으로 하지 말고 ‘국민 현장’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행동의 지표로 삼는다.

우리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함으로써 각자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우리는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는 각자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정신을 드높인다.

4. 준말

둘 이상의 음절로 된 말을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말을 우리는 준말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조금’을 ‘죤’으로, ‘아이’를 ‘애’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죤’, ‘애’를 준말이라고 하고, 그에 상대되는 ‘조금’과 ‘아이’를 본말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준말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한글 맞춤법

에는 준말을 규정하는 특별한 조항이 있어서 다양한 준말을 준 대로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입말에서나 글말에서나 준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의 규정이나 일반의 준말 사용 관행이 너무 무절제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해야겠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이 논의가 글말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말은 언중(言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누가 준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입말이나 소설의 대화문에서 준말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는 논외로 친다.

1) 준말 표기를 인정해도 되는 경우

(1) 어휘의 일부분이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말과 본말 사이의 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어휘나 문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준말로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제저녁’을 ‘엇저녁’으로 줄인다거나 ‘기러기’를 ‘기력’으로 줄여 쓰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또아리’를 ‘파리’로, ‘무우’를 ‘무’로, ‘기름’을 ‘김’으로 줄여 쓰도록 강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한 어휘의 일부 음절이나 소리를 줄이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준말을 무작정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a: 널 보자.

b: 답에 만나서 맘껏 이야기 해.

c: 멜로 편지해.

d: 그 집 식구만 젤이구 우리 식구는 암것도 아니냐구.

a는 ‘배알’을 ‘뺨’로 줄여 쓰는 것이 허용되므로 ‘내일’이 ‘널’로 줄여 쓸 수 있다고 본 것이고, b는 ‘조금’이 ‘죸’으로, ‘마음’이 ‘맘’으로 줄기 때문에 ‘다음’도 당연히 ‘답’으로 줄 수 있다고 보고 쓴 것이다. c와 d는 ‘메일’과 ‘제일’을 줄여서 쓴 것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준말 형식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널’, ‘답’, ‘멜’, ‘젤’, ‘암’ 따위도 인정해야 할까? 물론 아직 인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들 어휘가 자주 사용되면서 준말 형태가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준말 표기를 막을 논리가 궁해질 것이다. 준말 표기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어문 규정이 머지않아 자기 논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준말 표기에 대한 규정을 시정하는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끝소리와 거기에 붙는 어미나 접사의 첫소리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소리를 줄여도 문제가 없다. 예컨대 ‘가았다’를 ‘갔다’로 줄이거나, ‘서었다’를 ‘섰다’로, ‘퍼었다’를 ‘폈다’로 줄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밖에도 줄어지되 겹모음 형태로 줄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예컨대 ‘보았다’가 ‘봤다’로,

‘주었다’가 ‘줬다’로, ‘밝히었다’가 ‘밝혔다’로, ‘가지었다’가 ‘가졌다’로 주는 경우는 인정할 만하다.

(3) ‘하다’ 동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형태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여서’를 ‘해서’로, ‘하였다’를 ‘했다’로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여’를 ‘해’로 쓰는 것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는 시각적으로 다른 명사의 형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2)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준말

(1)현행 맞춤법은 ‘ㄱ’나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어들 적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고 했다. 예컨대 ‘개어’와 ‘개었다’를 ‘개’와 ‘갼다’로 쓸 수 있고, ‘세어’와 ‘세었다’를 ‘세’와 ‘셋다’로 적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표기가 가능한 것이다.

- a: 날씨가 개 등산하기로 했다.
- b: 아침에는 흐렸지만 오후에는 갼다.
- c: 돈을 세 지갑에 넣었다.
- d: 장사를 마치고 돈을 셋다.

위의 표기는 아무래도 아래의 표기에 비해서 표의력(表意力)이 떨어지고 품위도 떨어지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준말 표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1 : 날씨가 개어 등산하기로 했다.

b1 : 아침에는 흐렸지만 오후에는 개었다.

c1 : 돈을 세어 지갑에 넣었다.

d1 :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었다.

(2)그리고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했다. 예컨대 ‘괴어’와 ‘괴었다’는 ‘괘’, ‘괘다’로 적어도 된다는 것이다.

a : 책상 밑에는 책을 괘 놓고, 의자 밑에는 상자를 괘다.

b : 일이 어렵게 괘 일을 그만두게 괘다.

c : 오다가 할아버지를 괘다.

d : 설을 괘 보니 잘 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위의 준말을 준 대로 표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표기하면 역시 준말 표기보다는 더 명확하고 품위가 있게 보인다.

a1 : 책상 밑에는 책을 괴어 놓고, 의자 밑에는 상자를 괴었다.

b1 : 일이 어렵게 괴어 일을 그만두게 괴었다.

c1 : 오다가 할아버지는 괴었다.

d1 : 설을 괴어 보니 잘 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3) 막아야 할 준말 표기

(1)한글 맞춤법 제33항은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드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안 되는 규정이다. 한국어는 조

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제대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언어이다. 조사를 인식하려면 평소에 조사를 체언과 분별하여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면 준 대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조사와 체언을 변별하여 인식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래와 같은 표기는 아무래도 비문화적이고 품격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어휘의 문법적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a: 난 넌 위해서 뭘 해야 하나.

b: 무에 먹을 게 있다고 그러니.

c: 그걸 바라고 이걸로 바꾸었던 말이나.

그러나 이 문장들을 a1, b1, c1처럼 적으면 이런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다.

a1: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b1: 무엇이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

c1: 그것을 바라고 이것으로 바꾸었던 말이나.

이처럼 체언과 조사를 분리하여 표기하면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한국어 습득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입말로는 준말을 쓰더라도 글자로 적을 때에는 본래의 형태를 쓰도록 해야 한다.

(2)한글 맞춤법 제39항은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경우와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경우

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 a: 그렇잖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 b: 성과가 괜찮잖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
- c: 그는 이 일을 변변찮게 생각하고 있다.
- d: 비용이 만만찮게 든다.

그러나 위의 준말 표기는 몹시 불안정하고 품위가 없어 보인다. 아래와 같이 이것을 본말에 따라서 표기해 보자.

- a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 b1: 성과가 괜찮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
- c1: 그는 이 일을 변변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 d1: 비용이 만만하지 않게 든다.

역시 의미 파악이 더 쉽고 품위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둘 이상의 어휘가 통사적으로 이어져서 소리가 줄어지더라도 본말에 따라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의 생략에 관해서 읽을 때만 해도 여러분은 한국어가 매우 간결한 언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과감하게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글을 길고 지루하고 어지럽게 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 된 한국어는 결코 간결하거나 명쾌하지 않다. 그것은 한국인의 언어 능력과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어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어에 축약(縮約)¹⁾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어 문장은 자칫 핵심 정보가 주변 정보에 가리어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긴 부사어나 관형어,²⁾ 지나치게 잡다한 사실의 나열 등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드러나지 않

1) '축약'은 문장이나 글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뺌으로써 글을 간결하게 하는 일을 가리킨다.

2) 부사어란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을 가리킨다. 부사절, 부사구, 부사형, 부사를 모두 포함한다. 관형어란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을 가리킨다. 관형사절, 관형사구, 관형사형, 관형사를 모두 포함한다.

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한국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잘못된 글쓰기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 간결한 문장을 만드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어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인의 잘못된 글쓰기 습관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

1. 문장 축약: 한국어는 자칫하면 지루하게 되는 언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오고 서술어는 문장의 맨 뒤에 온다. 마치 아버지가 선두에 서고 어머니가 후미에 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듯이, 한국어는 대체로 부사어를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둔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처럼 문장에서도 서술어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주어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사람들은 서술어를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서술어가 각종 문장 성분이 다 나온 뒤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할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해서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가 필수 요소인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하고 그 뒤에 부사어를 말하거나 관계 대명사로 관형어를 이끌게 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부사어를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박찬호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완투승을 거둬으로써 드디어 12승을 올렸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주어는 ‘박찬호 선수’이고 서술어는 ‘올렸습니다’이다. 독자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목적어와 서술어이다. 그런데 목적어를 찾기 위해서 42자를 먼저 읽어야 한다. 이 소식을 방송으로 듣는 청취자는 박찬호의 12승 소식을 듣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가장 궁금한 정보가 담긴 목적어와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오는 것은 한국어 어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한국어는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와 목적어 및 서술어 사이를 가능하면 짧게 만들어야 하는 언어, 다시 말하면 부사어를 간결하게 써야 하는 언어이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앞의 예문에서 부사어가 42자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까지 24자는 부사어 안에 있는 체언인 ‘원정 경기’를 꾸민다. 이처럼 부사어 속에 체언이 있고 그것을 꾸미는 관형어가 있게 되면 언제나 그 관형어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체언이 오므로써 필연적으로 부사어는 길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관형어가 길어져도 문장의 간결성이 훼손되고 문장이 지루할 수 있다. 긴 관형어를 읽다 보면 그것이 꾸미는 체언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콧등이 높고 눈썹발이 까맣고 짙은 데다가 면도날로 밀어낸 구레나룻 밑뿌리가 검푸른 창기의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그녀의 눈알을 더듬었다.(한승원, 「검은댕기두루미」에서)

위의 문장을 보면 ‘눈빛’을 꾸미기 위해서 47자로 된 관형어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눈빛’, ‘창기의 눈빛’, ‘검푸른 창기의 눈빛’, ‘구레나룻 밑뿌리가 검푸른 창기의 눈빛’, ‘면도날로 밀어낸 구레나룻 밑뿌리가 검푸른 창기의 눈빛’ 등 이런 과정으로 관형어를 길게 하다가 관형어 속에 ‘콧등이 높고 눈썹발이 까맣고 짙은 데다가’ 같은 부사어까지 넣음으로써 결국 47자의 긴 관형어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정작 ‘창기의 눈빛이 그녀의 눈알을 더듬었다’로 표현하고자 한 중요한 정보가 약화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긴 부사어나 관형어는 자칫 한국어 문장을 지루하게 만들고 핵심 정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한국어는 주어의 앞이나 주어와 서술어 사이, 또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오는 관형어나 부사어를 간결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은 대화나 연설, 문장 등 모든 언어 생활에서 수식어를 가장 적절하고 절실한 것만 찾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문장 축약을 위해서는 묘사나 설명의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어휘를 찾아내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휘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간결한 문장을 만드는 지름길이

다. 그런 점에서 모파상이 말한 아래의 말은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하나의 말밖에 없다. 그것을 살리는 데는 하나의 동사밖에 없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하나의 형용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말, 그 하나의 동사, 그 하나의 형용사를 찾아내야 한다. 이를 찾는 어려움을 피하고, 아무런 말이나 대용(代用)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비슷한 말로 맞추어 버리는 등 그런 말의 요술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위의 말을 동양인의 시각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자기가 감동했다’는 것은 피그말리온³⁾의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가 언어화되어 나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나 산문들을 보면 간절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필연의 언어, 진정성의 언어를 쓰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늘 간절함에 차 있으면 필연의 언어는 물론 전율, 탄성도 잘 따라올 수 있으며, 따라서 변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강은교, 「오늘의 시문학에 대한 토대적 질문들」에서)

3) 피그말리온(Pygmalion):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 섬의 왕 이름. 그는 여성 혐오주의자로서, 독신이며 조각가였는데,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상형의 여자를 상아로 조각하여 두고 그 여자(Galatea)를 사랑하였다. 키프로스 섬의 주신(主神)인 아프로디테의 제전(祭典)에서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상아로 만든 갈라테아 같은 여자를 신부로 맞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여 갈라테아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기도를 마친 피그말리온이 평소대로 갈라테아를 만져 주고 키스를 하자 정말로 갈라테아가 육신으로 변하였다. 강은교는 소설가가 언어를 선택할 때에 피그말리온 같은 정성을 기울여야 간절성의 언어(그 언어는 피그말리온이 빚은 여자처럼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를 찾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문인들이 새겨 들을 만한 비유이다.

서양의 문인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고르라고 충고하였는데, 동양의 문인은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간절성과 진정성의 언어를 쓰라고 충고하였다. 두 주장 모두 가장 적절한 어휘를 골라 쓰기 위한 간절한 노력을 하라는 주문이다. 이런 노력을 할 때에 더 이상 축약할 수 없는 가장 간결한 문장이 탄생할 것이다.

1) 부사어 축약

부사어란 서술어(용언)를 꾸미는 요소이다. 부사어가 꾸미는 서술어는 문장의 핵심 서술어일 수도 있고, 체언을 꾸미는 관형절의 서술어일 수도 있다. 부사어가 길면 길수록 문장의 핵심이 전달되기 어렵다. 따라서 부사어에는 의미가 압축된 어휘를 사용하여 부사어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내게 있어 시아버지는,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묵은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의 임자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막연한 존재였다.(이혜경, 「대낮에」에서)

이 문장에는 ‘내게 있어 시아버지는 막연한 존재였다’에 ‘막연한’을 꾸미는 부사어가 길게 붙어 있다. 그런데 부사어를 살펴보면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묵은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의 임자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로 길다. 이 부사어는

‘산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덤의 임자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로 줄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줄이면 33자의 부사어가 25자로 24% 줄어든다. 이는 그만큼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혹시 ‘산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덤의 임자를 상상하는 것만큼’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글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만드는 요령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 정당 운동을 통한 정치도 국민민복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政商)인 이상 백성을 버리고 백성이 지지하는 공동 전선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구복(口腹)과 명리를 위한 부동(浮動)은 무지조(無志操)로 규탄되어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이 난국을 수습할 지도자의 자격으로 대망하는 정치가는 권모술수에 능한 직업 정치인보다 지사적 품격의 정치 지도자를 더 대망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충정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조지훈, 「지조론」에서)

위의 글에는 두 개의 문장이 있다. 앞 문장은 ‘개인의 구복과 명리를 위한 부동은 무지조로 규탄되어 마땅하다’를 줄기로 구성된 문장이고, 뒤 문장은 ‘지사적 품격의 정치 지도자를 대망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충정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를 줄기로 해서 구성된 문장이다. 뒤 문장의 서술어 ‘더욱 그러하다’는 앞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것 전체를 곧 ‘개인의 구복과 명리를 위한 부동은

무지조로 규탄되어야 한다’는 말을 받는다. 뒤 문장의 ‘더구나’부터 ‘더욱’까지는 모두 부사어이다. 이 90자로 된 부사어를 유심히 살피면 여기에도 축약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난국을 수습할 정치가는 직업 정치인보다 지사적 품격을 갖춘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전체의 충정이기’ 정도로 줄여도 된다. 이렇게 되면 부사어가 57자가 되어 무려 33자 약 37%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이처럼 부사어만 줄이더라도 문장이 한결 간결하고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주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역사가 정치적으로 언제나 이웃 나라와 관계를 맺고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문학도 자연히 이웃 나라의 문학의 영향 아래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정병욱, 「한국 문학의 사상적 배경」에서)

위의 글은 ‘한국 문학의 주체성을 이야기할 때 (문학이 어떻다고) 한다’의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 주어가 없는 것은 문장의 성격상 명백하게 주어를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태여 주어를 추측한다면 ‘학자들은’ 또는 ‘사람들은’ 정도가 될 것이다. 부사어 ‘문학이 어떻다고’를 분석하면 역시 축약이 가능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역사가 정치적으로 언제나 이웃 나라와 관계를 맺고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를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가 이웃 나라와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로 고칠 수 있다. 또 ‘문학도 자연히 이웃

나라의 문학의 영향 아래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는 '문학도 자연히 이웃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로 축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사어 64자가 48자로 되어 25% 줄어들었다. 축약하여 만든 아래 문장과 원래 문장을 비교해 보면 의미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면서도 글이 좀 간결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한국 문학의 주체성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가 이웃 나라와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문학도 자연히 이웃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2) 관형어 축약

한국어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데에는 무분별하게 긴 관형어도 한 몫을 한다. 주어에 관형어가 필요한 때에나, 서술어나 부사어에 끼어 있는 체언을 꾸미고자 하는 때에 불필요한 정보로 긴 관형어를 사용하여 지루한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관절 때문에 겨울나기를 유난히 힘들어하던 동생이 지난 여름에는 더위를 못 참아하면서 그 종던 얼굴도 점점 못쓰게 돼 가는 게 눈에 띄었다. 남편의 상중에도 화색을 잃지 않고 무슨 잔칫날 처럼 조문객을 챙겨 먹이려고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지 않던 동생이었다.(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에서)

위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에 있는 ‘동생’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동생이 원래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넣은 관형어인데 무려 43자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의 상중에도 화색을 잃지 않고,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지 않던’으로 고치면 26자로 줄어든다. ‘무슨 잔칫날처럼’이나 ‘조문객을 챙겨 먹이려고’ 따위는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밑줄 친 문장은 평범하게 ‘주어+서술어’ 구조로 바꾸어 ‘동생은 남편의 상중에도 화색을 잃지 않고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지 않던 사람이다’라고 고치면 더욱 한국어다워진다.

제 손으로 버러 노흔 제 지물을 마음 노코 먹지 못하고 천성 타고
고논 제 목숨을 놈의게 미여 노코 잇는 우리 나라 백성들을 불쌍하
다 하깃거던 더구나 남의 나라 스람이 와서 싸흠을 하느니 질알을
하나니 그러흔 서술에 우리는 피가하고 사름 죽난 것이 드 우리 나
라 강하지 못흐 탓이라(이인직, 「혈의 누」에서)

위의 문장에서 밑줄 친 어구는 모두 목적어 ‘백성들’을 꾸미고 있다. 관형어가 43자에 이른다. 관형어가 이렇게 길어지면 정작 중요한 ‘백성들을 불쌍하다 하겠거던’의 의미가 약화된다. 따라서 관형어는 꼭 필요한 어휘만 사용하여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다. 위의 관형어는 ‘제 재물도 마음놓고 먹지 못하고 제 목숨까지도 남에게 매여 놓고 있는 우리 나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관형어를 짧게 줄이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중으로 된 관형

어에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부득이 성격이 다른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할 체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관형어 사용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관형어가 연속해서 나오면 수식을 받는 체언에 이르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 대동강의 물은 날로 흘러가니, 평양성을 쌓고 을밀대를 짓던 우리 조상의 그림자를 비치었던 물은 지금 어디 간 곳을 알지 못하되, 오직 뚜렷한 모란봉은 만고에 한 모양으로 우리 조상의 발자국을 지니고 섰소이다. 아아, 여러분! 여러분의 웅장한 조상에게서 받은 정신을 흘러가는 대동강에 부쳤는가, 만고에 우뚝 솟은 모란봉에 부쳤는가.(이광수, 『무정』에서)

위의 밑줄 친 어구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세 개가 있다. ‘우리 조상’과 ‘그림자’와 ‘물’이 그것인데, 이 세 체언을 보면 ‘우리 조상’이 ‘그림자’를 꾸미고, ‘그림자’는 ‘물’을 꾸민다. 따라서 앞의 체언은 뒤의 체언의 관형어가 되어 있고, 뒤의 체언은 다시 그 뒤의 체언의 관형어가 되어 있으므로 처음 관형어 ‘평양성을 쌓고 을밀대를 짓던’까지 합하면 관형어가 삼중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경우에는 관형어를 하나라도 줄여서 글을 간결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저 대동강의 물은 날로 흘러가니 평양성을 쌓고 을밀대를 짓던 우리 조상의 그림자를 간직하지 못하였으되, 오직 뚜렷한 모란봉은 만고에 한 모양으로 우리 조상의 발자국을 지니고 섰소이다.

■ 연습

아래 글의 밑줄 친 부분은 여러 겹으로 된 관형어입니다. 관형어의 수를 줄여 문장을 평이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철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숙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대구 계명대학의 조교수로서 한국신학대학에 시간강사로 나와서 철학개론 강의를 해 주셨던 소홍렬 교수(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의 해후에서 주어졌다. 소홍렬 교수는 나에게 최초로 “논리적 사고(logical thinking)”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분이였다.(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피수식어인 ‘소홍렬 교수’를 두 개의 긴 관형어로 꾸미는 것도 부족해서 괄호 속의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의 문장에 나오는 ‘소홍렬 교수’ 앞에는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수식어를 앞뒤로 분산해서 문장을 구성해 보세요. 문장을 다시 쓸 때에는 영어 직역투를 벗어나 한국어다운 문장으로 바꾸세요.

■ 답

착안점: 소홍렬 교수를 꾸미는 관형어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거의 직위를 길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 고친 문장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철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신학대학에서 철학개론을 강의하셨던 소홍렬 교수 덕택이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소흥렬 교수는 당시 나에게 최초로 “논리적 사고(logical thinking)”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분이었다.

3) 서술어 축약

한국어는 서술어가 한 단어로 끝나는 경우가 드문 언어이다. 주서술어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 서술어가 붙는다. 한국어인이 말을 단정적으로 하지 않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서술어 앞에 온 긴 수식어 뒤에 한 단어로 서술어를 처리하면 서술어의 비중이 너무 낮아질 위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긴 서술어는 문장의 간결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도 한국어 못지않게 서술어가 길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여러 모로 닮은꼴인 것 같다.

일본인 어학자 오노 스스무가 쓴 『일본어 연습장』이라는 책을 보면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다. 특히 일본어를 간결하게 쓰자고 한 그의 주장은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져 동료 의식까지 느끼게 한다. 그런데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고 나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나를 쓴웃음 짓게 만든 그의 일본어 문장을 나의 일본어 실력으로 직역하면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문장 작법만 (1)생각하고 있으면서도(考えていても), 거기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2)유념해 둘(心得ておく), (3)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됩니다。(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

ります)

일본어나 한국어나 간결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간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그의 글은 모두 서술어가 간결했다. 심지어는 ‘명시하는 것이 필요(明示することが必要)’처럼 명사로 서술어를 마감하기도 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는 보통의 일본인들이 쓰는 긴 서술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가 잠깐 실수를 했을지 모른다. (1)은 ‘생각하면서도’(‘생각하더라도’), (2)는 ‘유념할’, (3)은 ‘필요가 있다’로 간결하게 처리해야 했다. 한국어에도 이런 식의 서술어가 많이 있다.

* 따라서 주 2일 휴무제 실시를 위해 주휴를 무급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우리 인쇄업계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인쇄인 여러분과 정부가 지혜와 뜻을 모은다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를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는 ‘검토해야 합니다’를 길게 늘인 서술어이다. 그렇게 길게 적었다고 해서 ‘검토해야 합니다’보다 더 정확한 뜻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긴 어구보다는 짧은 어구가 더 강렬한 의미를 나타낸다. ‘확신해 마지않습니다’도 ‘확신합니다’보다 더 길면서 의미는 모호해지는 약점이 있다. 서술어를 이처럼 길게 늘어뜨려 그 의미를 약화시키면

서(순화시킨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쉬고 있는’은 ‘쉬는’, ‘들고 있습니다’는 ‘듭니다/들었습니다’를 불필요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쓴 예이다. 주된 서술어가 나오면 그 뒤로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바로 문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적는 중요한 요령이다.

2. 문단 축약

한국인의 글이 길고 지루하게 되는 것은 한국인의 잘못된 글쓰기 습관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대개 문단 안에서 소주제와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관련이 없는 정보인지 따지지 않고 자기가 적고 싶은 정보는 모두 적으려는 욕심을 부린다. 그런 글은 소주제를 잘 드러내지 못하여 글이 산만하고 어수선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문장은 반드시 소주제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적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소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이면 모조리 적으려고 한다. 그러나 설령 소주제를 뒷받침하더라도 뒷받침의 경중을 따져서 소주제와 큰 연관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단에 잡다한 문장이 들어가 글을 지루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단 축약이란 문단 안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솟아내거나 여

러 문장을 한두 문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글을 간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가리킨다. 뒷받침문장이 소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만 선택되어 있다면 그 글은 간결하여 이해하기 쉬워지면서도 깊이가 생긴다.

문장이 길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독립한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을 구태여 몇 개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하나의 긴 겹문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과 관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를 빼고는 긴 겹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적어야 할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간결한 문장을 이어 적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는 얼굴 생긴 것도 우선 매초롬한 게 그렇거니와, 은연중에 그가 서울서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집안은 천여 석 하는 과부의 외아들이고, 놀기 심심하니까 은행에를 들어갔던 것이 이곳 지점에까지 전근이 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이러한 소문이 떠돌았었고, 그런데 미상불 그러한 집 자제로 그러한 사람임즉하게, 그의 노는 본새도 흐벅지고, 돈 아까운 줄은 모르는 것 같았다.(채만식, 『탁류』에서)

위 글의 주제어는 ‘그는’이다. 주제어를 받을 핵심 서술어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몇 개의 서술어로 나뉘어 있다고 본다면, ‘그렇거니와’, ‘흐벅지고’, ‘돈 아까운 줄은 모르는 것 같았다’의 셋으로 볼 수 있다. ‘은연중에……떠돌았고’는 삽입문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장은 ‘그’에 관한 온

갖 정보를 무질서하게 한 문장에 적음으로써 그를 설명하는데도 실패한 것 같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보를 정리한다면 문장이 좀더 깔끔해진다.

그는 얼굴이 매초롬했고 노는 본새가 흐뭇졌다. 그가 서울서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천여 석 하는 과부의 외아들이고, 놀기 심심하니까 은행에 들어갔던 것이 이곳 지점에까지 전근이 되어 내려왔다는 소문이 은연중에 떠돌았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는 그러한 집 자제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행동도 했다.

이렇게 고치면 긴 겹문장이 세 개의 문장으로 나뉘면서 비교적 간결해짐을 알 수 있다. 전체 글자의 수도 147개에서 121개로 줄어들었다. 문학적인 맛이 반감되었다고 하는 분에게는 내가 채만식이 아니기 때문이지 채만식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글을 줄이기 시작했다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문장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해 주겠다.

주제와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적어서 문장을 길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주제가 무엇인지, 그 문장은 주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각 문장은 주제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각 문단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살피라고 주문하고 싶다. 글이 길어지면 글 시작과 끝이 엉뚱한 방향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전에도 운수와 팔자라 하는 것이 당초에 작명한 이치가 없다고 여러 번 설명하였거니와 하늘이 만민을 내실 때에 미리 빈부와 귀천을 마련하여 어떤 사람은 아무리 無才無能(무재무능)할지라도 부귀할 운수를 주고, 아무는 비록 재덕이 겸비하나 빈궁한 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시어 길흉화복을 내리시니 누구든지 부지런하다면 의식이 구차한 이가 도무지 없는 고로 옛글에 가로되, 하늘이 힘써 농사하는 집을 궁하게 못한다 하였으며 귀함으로 말할지라도 문벌을 劈破(벽파)하고 인재를 택용하는 나라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학식이 고명한 지경이면 정부에서 곧 천거하여 중대한 직임을 맡기는 고로 일시에 영화가 족히 문호를 빛낼 만하고 명예가 가히 전국에 진동하거니와 만일 심지가 해하고 문견이 고루한 사람은 설혹 世業(세업)이 饒足(요족)하여 衣食之愚(의식지우)가 없다든지 요행히 낮은 벼슬에 참여하여 窮儒(궁유)와 말을 면할지라도 언행이 비패하고 사업상에 몽매하여 능히 자기의 집을 보전치 못하거늘 하물며 직무를 어찌 감당하리오.(이승만, 「나라의 흥망은 운수보다 정치에」, 『한국의 名文』에서 옮김)

무려 380자로 된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었는가? 나는 몇 번을 읽었지만 명확하게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 좋은 말이 들어 있다는 정도만 알게 되었을 뿐이다. 만일 여러분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 글은 효과적이지 못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한 잡지사가 간행한 『한국의 명문』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비판하기가 민망하지만, 적어도 이 문장은 ‘하늘은 세상 사람의 행위를 보고 길흉화복을 내린다’라는 주제를 드러

내는 문장으로서는 지나치게 장황하고 길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앞 부분은 ‘누구든지 부지런하다면’으로 적어서 주제에 맞추어 뒷받침문장을 설정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심지가 해하고 문견이 고루한 사람은 언행이 비패하고 사업상에 몽매하여 능히 자기의 집도 보전치 못하고 직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흘렀다. 즉 ‘사람의 행위’에 ‘부지런한 경우’만 있을 뿐이다. 뒤의 부분을 주제에 맞게 고친다면 ‘언행이 비패한 경우’로 설명하여 ‘부지런한 경우’와 대비해 놓아야 한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하늘이 만민을 내실 때에 미리 빈부와 귀천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시어 길흉화복을 내리신다. 그러니 하늘이 힘써 농사하는 집을 궁하게 못한다 한 것처럼 누구든지 부지런하다면 의식이 구차한 이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언행이 비패하면 설혹 世業(세업)이 饒足(요족)하여 衣食之愚(의식지우)가 없더라도 사업상에 몽매하여 능히 자기의 집을 보전치 못하고 궁핍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80자로 된 긴 문장을 이렇게 간결하게 세 개의 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78자이니 무려 202자가 줄어든 셈이다. 380자로 된 문장과 178자로 된 문장을 비교해 보라. 글만 간결해진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것이다.

3. 어휘 축약

우리는 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음절로 된 어휘를 만들어 사용한다. ‘아름답다’, ‘제비’, ‘가볍다’처럼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어휘가 대체로 두세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언어를 다음절어라고 하는데 한국어를 비롯해서 일본어, 영어 등 대부분의 언어가 이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중국어는 이와 달리 단음절어이다. 앞에 소개한 세 어휘를 중국어(한자어)로 적으면 ‘미(美)’, ‘연(燕)’, ‘경(輕)’처럼 한 음절 어휘로 바뀐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중국어를 수입하여 한자어 어휘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한자어로 축약하여 표기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 ‘아름다운 사람’을 ‘美人(미인)’으로, ‘제비 둥지’를 ‘燕巢(연소)’로, ‘가볍고 방정맞음’을 ‘輕妄(경망)’으로 표기함으로써 어휘 축약의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한국어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어휘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한자어를 쓰면 문장을 간결하게 쓸 수 있고, 상당한 언어의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은 한국어로 하고 글쓰기는 한자어로 하는 이중의 언어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어휘 축약은 좋은 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웃는 집에 만복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전달 능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뉴욕에는 마천루(摩天樓)가 수두룩하다’라는 말과 ‘뉴욕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이 수두룩하다’라는 말의 의미 전달 능력은 차이가 있다. 한자어로 축약한 것은 간결한 대신에 의미 전달이 직접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한국어로 해석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한국어는 대체적으로 의미 전달이 직접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한국어를 한자어로 축약하는 것을 즐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기껏 축약하고서도 다시 풀어 이해해야 한다면 그 축약은 별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아래의 노랫말은 우리가 축약된 한자어를 결코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일락 서산(日落西山)에 해 떨어지니
 월출 동령(月出東嶺)에 달 떠오른다.

‘일락서산’만으로는 ‘해가 서산에 지니’의 뜻이 곧장 전달되지 않으니 ‘해 떨어지니’라는 말을 붙이고, ‘월출동령’만으로는 ‘달이 동산에서 떠오른다’의 뜻이 곧장 전달되지 않으니 ‘달 떠오른다’라고 덧붙인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 언어에 너무나 많다. ‘동해(東海) 바다’, ‘역전(驛前) 앞’, ‘고목(枯木) 나무’, ‘아름다운 미인(美人)’, ‘전에 없는 공전(空前)의 대성공’, ‘제공(提供)하여 주다’, ‘부담(負擔)을 지우다’, ‘피해(被害)를 입히다’, ‘먼 원뢰(遠雷)’, ‘높은 고지대(高地帶)’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둘째로, 한자어 축약을 사용하면 자칫 어휘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그는 나의 조강지처(糟糠之妻)야’라고 했을 때의 ‘조강지처’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본처(本妻)’의 뜻보다는 그냥 단순히 ‘본처’의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조강(糟糠)’이 ‘처(妻)’와 중국어에서는 쉽게 연결될 수 있어도 한국어에서는 쉽게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유하게 결혼 생활을 해 온 아내까지 ‘조강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독불장군(獨不將軍)’도 의미가 왜곡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혼자서는 장군이 되지 못하니 일을 너무 혼자 생각대로 처리하지 마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격언인데, 자주 쓰이다 보니 ‘외톨이’ 또는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언어가 이렇게 왜곡되어 쓰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로, 한자어 축약을 사용하면 한국어의 다른 어휘와 자칫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이른바 동음이의어가 너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아래 고시조를 읽으면서 밑줄 친 ‘사립’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田園에 봄이 드니 나 홀 일이 쏠혀 만히
곳 남근 뉘 움기며 藥 맞춘 언제 갈니
아희야, 더 뵈여 오너라 사립 몬저 겨르리라.

국어 사전에서 ‘사립’을 찾아보면 ‘사립(絲笠)’, ‘사립(簍

笠), ‘사립(私立)’과 함께 고유어 ‘사립’이 올라 있다. 그렇다면 위 시조의 ‘사립’은 어느 어휘일까? 만일 ‘명주실로 싸개를 한 갓’을 ‘사립(絲笠)’으로 축약하지 않고, ‘도롱이와 샛갓’을 ‘사립(簑笠)’으로 축약하지 않고, ‘사사로이 세움’을 ‘사립(私立)’으로 축약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사립’은 ‘사립문’을 의미하는 어휘로 뚜렷이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어떤 ‘사립’인지 분간해야 하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넷째로, 한자어 축약은 말과 글의 괴리를 심화시키기 쉽다. 한자어로 축약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휘는 뜻을 위주로 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소리내기가 불편해지기 쉽다. 한자어에서 소리의 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축약된 한자어도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예컨대 ‘사람의 힘’을 축약하여 ‘인력(人力)’으로 쓰면서 소리는 ‘일력’으로 내는 것이나, ‘나라의 이름’을 축약하여 ‘국명(國名)’으로 쓰면서 소리는 ‘궁명’으로 내는 것이나, ‘어지럽게 늘어섬’을 축약하여 ‘난립(亂立)’으로 쓰면서 소리는 ‘날립’으로 내는 것에서 축약된 한자어의 글자와 소리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처음부터 소리를 위주로 하여 어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리내기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지만, 한자어는 소리와 상관없이 뜻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리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다. 따라서 축약된 한자어의 발음이 글자의 형태와 달라서 언어 생활과 국어 발전

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한자어 축약의 부정적인 문제점은 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다음절어에 익숙한 우리의 언어 인식과 각 음절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한자어가 애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한국어를 축약한 한자어가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국어를 한자어로 축약하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무조건 한국어를 한자어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관행을 슬기롭게 극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⁴⁾

연습

아래 글은 논리의 전개상 중복 표현이 많이 있어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어졌습니다. 이 글을 가능한 한 줄여서 다시 써 보세요.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과 수치 감정을 갖는다. 만일 인간에게 양심이 없다면 동물처럼 수치심도 없고, 수치 감정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에게 수치심이 없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동물은 수치 감정이 없다. 동물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모른다. 인간만이 수치심과 수치 감정을 갖는다.

수치심과 수치 감정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破廉恥), 몰염치(沒廉恥)라고 하고, 또 철면피(鐵面皮)라고 한다. 철면피는 얼

4)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인은 한자어를 한자 음(音)으로 읽지 않고 일본식 훈(訓)으로 읽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였다. 이 방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어 축약을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굴 가죽이 쇠가죽 같은 사람ियो,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다. 그는 이미 인간의 자리에서 동물의 자리로 전락한 사람ियो,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는 패륜아(悖倫兒)요, 인비인(人非人)이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안병욱, 『후회 없이 살아라』에서)

■ 답

첫째 문단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수치심이나 수치 감정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둘째 문단은 수치심과 수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단정적인 선언이 있다. 따라서 첫째 문단이나 둘째 문단이나 같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반복해서 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두 문단을 하나로 합해서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치심과 수치 감정의 차이도 모호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둔다.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과 수치 감정을 가진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그는 동물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파렴치(破廉恥), 몰염치(沒廉恥) 또는 철면피(鐵面皮)라고 한다.

■ 연습

아래의 글을 축약해 보세요.

이와 같이, 철학과 철학자가 생활의 知覺을 완전히 상실하여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부단히

인생의 叡智를 추구하는 현대 중국의 ‘良識의 철학자’ 林語堂이 일찍이 “내가 임마누엘 칸트를 읽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석 장 이상 더 읽을 수 있었을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논리적 사고가 過度의 발달을 成遂하고, 전문적 어법이 극도로 분화된 필연의 결과로서, 철학이 정치·경제보다도 훨씬 후면에 退去되어, 平常人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철학의 측면을 통과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기묘한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서, 사실상 오늘에 있어서는 교육이 있는 사람들도, 대개는 철학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는 대표적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김진섭, 「생활인의 철학」에서)

■ 답

‘그러므로’부터 ‘부정하기 어렵다’까지의 문장은 주제가 뚜렷하지 않다. 임어당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 부분이 문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주제는 ‘사실상’ 이하의 부분이다. 따라서 임어당과 관련된 부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이것을 주제와 연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철학과 철학자가 생활의 知覺을 완전히 상실하여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현대 중국의 ‘良識의 철학자’인 林語堂이 일찍이 “내가 임마누엘 칸트를 읽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석 장 이상 더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논리적 사고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전문적 어법이 극도로 분화된 철학 때문에 현대인이 철학과 별로 상관없게 되었음을 지적한 말이다.

■ 연습

아래 문장은 우리 나라 헌법 전문이다. 밑줄 친 주제어를 설명하는 서술어를 찾으면서 이 문장을 간결한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대한민국 헌법 前文에서)

■ 답

위 문장의 골격은 ‘대한 국민은 무엇을 다짐하면서 무엇을 개정한다’이다. 즉 주제어는 ‘대한 국민’이고, ‘다짐하면서’와 ‘개정한다’가 주제어를 설명하는 핵심 서술어이다. 나머지 서술어는 주제어를 직접 서술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특히 ‘3·1운동으로……이바지함으로써’의 253자는 서술어 ‘다짐

하면서'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이런 문장은 주제어를 설명하는 말이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짜증이 나기 쉽고, 글의 참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럼 이 문장을 몇 개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나누어 보자.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리고 우리는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다 함으로써 안으로는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이념과 정신을 담아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보태기

일본 현대 문학의 '작가 정신'을 대표하는 마루야마 겐지(丸山健二, 1945-)는 작품을 쓰기 전에 통신사에서 모르스 부호를 두드리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통신 언어는 극도의 축약을 요구하는 터라 자연스럽게 거기서 간결한 글을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유명한 작가가 된 뒤에 쓴 수필집에서 그는 '간결한 문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 주저 없이 다소 인색한 문체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백 매로 끝낼 작정이었던 소설이 몇백 매나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몇백 매라

니 너무 길다 싶어 줄이고 줄여 백 매로 하였는데, 그 후에도 일 단 쓸 만큼 다 쓴 다음 깎아내고 줄이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마루야마 겐지, 「소설가의 각오」에서)

평소에 간결한 문장에 익숙한 그였지만 소설을 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글이 길어지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래서 그는 글을 다 쓴 뒤에 그것을 축약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글의 축약은 모든 소설가에게 퇴고(推敲) 이상의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는 일일 것이다.

높임말

한국어로 대화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높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른 어법이나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쉽게 용납되지만, 높임법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대화가 거부되거나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한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려는 외국인은 한국어의 높임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한국어의 높임법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이들을 주눅들게 한다. 언어 생활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높임법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1.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

한국어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높임법이 사용된다. 첫째는 문장의 주어가 되는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고, 둘째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며, 셋째는 어휘 자체를 높이는 어휘 높임법이다.

a: 선생님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b: 어머님께서 가시니 아이도 따라가는구나.

c: 진지 드시는 할아버지의 연세는 어떻게 되나요?

d: 성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a의 ‘오시면’, b의 ‘가시니’, c의 ‘드시니’에 사용된 ‘-시-’가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인 주체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은 어미 앞에 ‘-시-’를 붙여 나타내므로 문장에 따라서는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c와 d에는 주체 높임법이 들어 있지 않다.

a의 ‘좋겠습니다’, b의 ‘따라가는구나’, c의 ‘되나요’, d의 ‘주세요’에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높임법이 들어 있다. a, c, d에 들어 있는 ‘-습니다’, ‘-나요’, ‘-세요’ 등은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고, b의 ‘-는구나’는 상대방을 낮추는 표현이다. 상대방을 높이는 등급에 따라서 가장 높이는 표현부터 가장 낮추는 표현까지 구별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높임의 등급’에서 설명하겠다.

c의 ‘진지’, ‘드시니’, ‘연세’는 각각 ‘밥’, ‘먹으시니’, ‘나이’의 높임말이다. 또 d의 ‘성함’, ‘말씀’은 각각 ‘이름’과 ‘말’의 높임말이다. 이처럼 특정한 어휘를 사용할 때에 높임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휘 높임법이라고 한다. 어

휘 높임법은 주어를 높이는 경우에는 주어와 관련된 어휘에 높임말을 쓰고, 상대방을 높일 경우에는 상대방과 관련된 어휘에 높임말을 사용함으로써 주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과 호응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d: 선생님이 진지를 먹으신다.

e: 연세가 많은 사람을 도와 주어라.

f: 택에 있으면 데리러 가겠습니다.

d에서 ‘진지’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밥’ 대신에 쓴 높임말이다. 그렇다면 일관되게 ‘먹으신다’도 높임말 ‘잡수신다’로 갈음해서 써야 한다. e의 경우도 ‘나이’ 대신에 높임말 ‘연세’를 썼다면 ‘사람’ 대신에 ‘분’을, ‘주어라’ 대신에 ‘드려라’를 써야 제격이다. f에서는 ‘택’을 썼으니 ‘있으면’은 ‘계시면’으로, ‘데리러’는 ‘모시러’로 바꾸어 써야 제격이다. 이처럼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 그리고 어휘 높임은 서로 호응이 되도록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2. 높임의 등급

주체를 높이는 경우에는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면 되지만, 상대를 높이는 경우에는 높이는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어미가 달라진다.

a: 잘 하십시오(잘 합니다) — 합쇼체(-體)

b: 잘 하소(잘 하오) — 하오체(-體)

c: 잘 하게(잘 하네) — 하게체(-體)

d: 잘 해라(잘 한다) — 해라체(-體)

a는 상대를 아주 높이는 표현이고, b는 상대를 예사로 높이는 표현이다. 이에 비해서 c는 상대를 약간 낮추는 말로 쓰이고, d는 평교간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하는 말투이다. a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두루 쓰는 말이다. 자기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라도 격식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b는 자기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을 조금 높여 대접하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 어법을 사용하면 결례가 된다. c는 자기보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 사람을 낮추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대를 약간 배려하는 뜻이 포함된다. 사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에게도 이 어법을 쓸 수 있다. d는 상대가 자기보다 현저하게 나이나 지위가 낮거나, 허물없이 사귀는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 제약 없이 아랫사람에게 이 어법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등처럼 자주 접촉하여 매우 가까운 인간 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아니면 자칫 아랫사람의 반감을 사기 쉽다. 따라서 또래끼리가 아니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랫사람의 경우에, 공식적인 자리나 인간 관계가 아직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사람이 d의 어법을 사용하면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사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이 되었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는 윗사람이 격식을 갖춘 높임법보다는 d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높임법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유용하면서도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어법은 모두 격식체라고 해서 원래 한국어의 높임 등급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어법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 격식체보다 아래와 같은 비격식체가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e: 그렇게 해요./여기 좀 봐요./함께 가나요? — 해요체(-體)

f: 그렇게 해./여기 좀 봐./함께 가나? — 해체(-體)

격식체에 비해서 비격식체는 엄격하게 나이와 지위를 가리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를 선호하므로 앞으로 한국어의 높임법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 같다. 과거에는 극단적인 높임법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편하게 높임의 의미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높임에는 e와 같은 ‘해요체’가 두루 쓰이고, 낮춤으로는 f와 같은 ‘해체’가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이런 비격식체는 격식체에 비해서 품위가 낮

고 상대를 소홀하게 대접한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이거나 품위 있는 자리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3. 겸양

높임법 가운데에는 주체나 상대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를 겸양이라고 한다.

g: 저를 좀 보옵소서.

h: 잠깐 말씀을 올리겠사옵니다.

g의 ‘저’는 ‘나’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명사이고, ‘보옵소서’에 사용된 ‘-옵-’은 말하는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겸양 어미이다. h의 ‘-사옵-’도 겸양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h의 ‘말씀’은 높일 사람의 말을 나타낼 경우에는 높임말이고, 자기 말을 나타낼 경우에는 겸양어이다. 겸양 표현은 높임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g를 높임법과 함께 쓴다면 ‘저를 좀 보시옵소서’처럼 쓸 수 있다.

4. 높임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1) 방송 언어에서의 높임법

원래 높임법은 당사자끼리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방송 같은 공개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높임법을 당사자의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언어 행위이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경우라고 해도 두 사람만의 언어로 끝나지 않고 그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방송 언어에서의 높임은 일반적인 높임과 구별해야 한다.

a: 텔런트 김시민 씨가 나와 계십니다.

b: 민지야, 네가 정말 그랬니?

c: 형이 그랬잖아?

d: 내가 언제 그랬니?

위의 어투는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a는 40대의 사회자가 30대의 다른 사회자에게 같은 30대인 텔런트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 이때 두 사회자가 양해한다면 이 표현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시청자들 중에는 40대와 50대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은 사회자가 30대를 가리

켜 ‘나와 계십니다’라고 극진한 높임법을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냥 ‘나오셨습니다’라고 해도 될 것을 ‘나와 계십니다’라고까지 해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 쉽다.

b는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어투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적절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방송에는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어린이가 있고 그들과 함께 방송을 듣는 어른들도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이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숙제 다 해왔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너희들, 숙제 다 해왔니?” 하고 말하는 것의 차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교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c와 d는 두 사람만의 사적인 대화에서나 극중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대담이나 오락 방송에서는 반드시 삼가야 할 어법이다. 마치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방송 언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극도의 높임이나 낮춤을 나타내는 어법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 무분별한 높임

요즘은 각종 서비스를 전화로 받을 수 있다. 전화 고장 신고, 핸드폰 이용 요금 문의, 철도나 비행기 좌석 예약 등 대부

분의 문의와 신청을 전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전화로 문의를 하면 어김없이 상담을 받는 여성은 이쪽에 과도한 높임법을 쓴다. 아래와 같은 전화 응대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눈여겨보기 바란다.

a: 그렇게는 안 되십니다. 기한이 오늘까지시거든요. 오늘 지나시면 연체료가 추가되십니다.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되십니다. 지금 접수가 되시면 내일부터 효력이 나시기 때문에 하루 분의 연체료는 추가되십니다.

위의 전화 응대는 무조건 상대에게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시-’만 쓰면 높임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빚어낸 극단적인 현상이다. 이런 언어가 전화 응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의 진행자나 출연자의 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b: 몇만 장이 팔리신 줄 아십니까?

c: 여성분들 굽이 부러지셔서 다니시는 것 봤거든요.

d: 옷 색상이 참 고우시네요.

일단 ‘-시-’를 붙여 상대를 높여 주면 손해는 없다는 생각으로 아무 데나 ‘-시-’를 붙이거나, ‘여성분’, ‘고객분’, ‘아줌마분’, ‘부모님분’ 같은 말을 써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조건 높임말을 쓰는 풍조가 범람하고 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제삼자에게 높여 말하는 태도이다.

e: 저는 살림을 부인에게 다 맡기고 있습니다.

f: 바깥양반은 술을 싫어하세요.

e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른 경우이고, f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바깥양반’이라고 부른 경우이다. 이 두 경우 모두 높임법에 어긋난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일 때에 쓰는 어휘이고, ‘바깥양반’은 남의 남편을 높일 때에 쓰는 어휘이다. 그런데 자기 아내나 남편을 가리킬 때에 쓰면 자기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높이는 것이 되고 만다. 자기의 아내나 남편은 물론이고, 자기 부모까지도 남의 앞에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법이다. 아래의 경우는 더욱 고약한 높임법이다.

g: 제가 김아무개 신부님입니다.

h: 제가 원효 스님이외다.

‘신부님’, ‘스님’ 따위는 상대가 부를 때에 쓰는 높임말이므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신부님’은 ‘신부’라고 하면 된다. ‘스님’은 마땅히 대체할 어휘가 없다. 꼭 쓴다면 ‘승려’가 나을 것 같다.

3) 압존법 해체의 문제

주체가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높지만 말을 듣는 사람보다 낮을 경우에는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주체를 높이

지 않는 어법이 있다. 이것을 압존법(壓尊法)이라고 하는데, 현실 언어 생활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좀 거북한 면이 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도착을 할아버지에게 알리는 경우에 다음의 어떤 높임법을 사용해야 할까?

a: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방금 오셨습니다.

b: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왔습니다.

a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그대로 존대법에 사용한 경우이고, b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여 존대법을 사용한 경우이다. 전통적인 어법은 b처럼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이 옳고 이런 어법을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법은 아들의 처지에서 보면 언제나 높임의 대상이던 아버지를 갑자기 낮추어야 하는 고민을 안겨 주는 어법이다. 특히 압존법이 나타나는 빈도에 비해서 안 나타나는 빈도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압존법에 의해서 존대할 사람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언어 감각에도 잘 맞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언제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압존법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을 테지만, 현대 가족 구조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어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c: 사장님, 김 전무님은 안 계십니다.

d: 사장님, 김 전무는 없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전무보다 높은 사장에게 전무의 부재를 알리는 어법으로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b를 쓰면 평소에 입에 붙은 ‘전무님’을 ‘전무’로, ‘계시다’를 ‘있다’로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무에게 괜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전무가 듣는다면 전무의 기분은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압존법에 연연해서 d처럼 써야 할까? 역시 압존법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때로는 c처럼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압존법에 어긋나는 어법을 듣더라도 사장은 전무를 자기 앞에서 높였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전무를 이 정도 높인다면 자기는 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건설적이고 진취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조건 압존법을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라든지, 거의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전무를 사장에게 말할 경우에는 압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e: 아버님, 아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f: 영철 씨세요? 예, 그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g: 사장님, 김 전무는 자리에 없습니다.

e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말이고, f는 남편의 동료에게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며, g는 이어나 상무가 사장에게 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처럼 압존법은 도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주체 사이에 여러 관계를 생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도착을 손자에게 묻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 민호야, 아범 왔니?

b: 민호야, 아버지 왔니?

c: 민호야, 아버지 오셨니?

a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통적인 어법으로 자기 아들을 낮추어 말하는 어법이고, b는 ‘아범’을 손자의 처지에서 ‘아버지’로 바꾸어 부른 것이며, c는 손자의 처지를 감안하여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높여 준 어법이다. 만일 손자가 어리다면 c처럼 말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높임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청소년기 정도)라면 b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a는 며느리에게나 할 수 있는 어법이다.

4) 높임의 중복

동사가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에 각 동사에 모두 높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 가운데 하나에만 높임법을 적용해도 되

는지 몰라 곤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¹⁾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 용언에만 높임법을 적용하면 된다.

- a: 선생님께서 책을 찢어 버리셨다.
- b: 부장님께서 나를 도와 주셨다.
- c: 아버지는 온몸으로 어려움을 막아 내셨다.
- d: 할머니는 책을 읽고 계신다.

a의 ‘선생’, b의 ‘부장’, c의 ‘아버지’, d의 ‘할머니’가 한 행위는 ‘찢어’, ‘도와’, ‘막아’, ‘읽고’이지만 여기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지 않고 보조 용언에만 붙였다. 이는 본동사와 보조 용언은 비교적 한 덩어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사가 나열된 경우에는 높임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 a1: 선생님께서는 책을 찢으시며 우셨다.
- b1: 부장님께서 나를 도우시느라고 고생하셨다.
- c1: 아버지는 온몸으로 어려움을 막으시다 돌아가셨다.
- d1: 할머니는 책을 읽으시다가 주무셨다.

이처럼 동사의 단순한 나열인 경우에는 각 동사에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여서 높임을 표현한다. 그러나 앞의 동사

1) 본용언과 보조 용언: ‘밥을 먹어 버렸다’, ‘불이 꺼져 간다’, ‘밥을 먹고 싶다’에는 용언이 ‘먹어 버렸다’, ‘꺼져 간다’, ‘먹고 싶다’처럼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앞의 것을 본용언이라고 하고, 뒤의 것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약간의 의미를 보태어 주는 기능을 한다.

에 높임법을 생략하더라도 높임의 취지가 크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2: 선생님께서는 책을 찢으며 우셨다.

b2: 부장님께서 나를 돕느라고 고생하셨다.

c2: 아버지는 온몸으로 어려움을 막다 돌아가셨다.

d2: 할머니는 책을 읽다가 주무셨다.

따라서 동사의 나열에서는 높임의 중복을 피하여 가장 뒤에 있는 동사에만 높임을 적용해도 잘못이 없다.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동사 가운데에서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별도의 어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a3: 아버지는 빵을 잡수며 웃으셨다.

b3: 할머니는 평상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지셨다.

c3: 선생님은 물을 다 드시고 일어서셨다.

위의 문장에서 ‘잡수며’ 대신에 ‘먹으며’, ‘주무시다’ 대신에 ‘자다가’, ‘드시고’ 대신에 ‘마시고’를 쓴다면 결례가 된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잡수다’, ‘할머니-주무시다’, ‘선생님-드시다’처럼 높임법이 연상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높임말을 쓰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결례가 됨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높임을 나타내는 접사와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겹치는 경우에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생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할 것이다.

e: 김 선생님께서 뛰어오신다.

f: 김 선생님이 뛰어오신다.

g: 김 선생께서 뛰어오신다.

e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와 ‘뛰어오신다’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선생님께서’를 ‘선생님이’ 또는 ‘선생께서’처럼 쓰면 어떻게 될까? f의 경우나 g의 경우가 그 예인데 이런 높임법이 허용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경우도 허용된다. 그러나 ‘뛰어오신다’는 언제든지 ‘뛰어온다’처럼 쓸 수 없다. 주체 높임의 핵심은 서술어에 있는 어미 ‘-시-’에 있기 때문이다.

■ 연습

아래 문장에 쓰인 높임말 가운데에서 틀린 것을 바로잡으세요.

완허 스님, 거기에 없다고 하거든,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알아보아라.(이윤기, 「손가락」에서)

■ 답

‘완허 스님’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그의 언행에는 높임말을 써야 한다. ‘없다고’를 ‘안 계신다고’로 고치면 된다.

높임법과 관련하여 문단에는 시인 김관식(1934-1970)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그는 ‘객지 벗 10년’이라고 해서 선배 문인들에게도 보통 ‘군(君)’이라고 부르고, 웬만해서는 ‘형(兄)’이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으며, 때로는 아예 자기 나이를 10년 올려서 1924년생으로 행세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가 4년 연상인 방옥례를 아내로 맞은 것은 1915년생인 서정주와 동서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소문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월탄 박종화와 백철을 ‘군(君)’이라고 불렀던 사건이다. 당시 박종화는 대부분의 문인들이 아호로만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김관식은 박종화를 “박 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증언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소설가 강홍규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문학상 시상식에서 박종화의 축사가 길어지자 김관식이 “이봐 박 군! 당신 축사가 너무 길어. 나도 한 마디 해야겠으니 그만 내려오지”라고 해서 식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자기보다 무려 33살이나 많은 어른에게 ‘군’을 붙였으니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 같다. 또 길가에서 평론가 백철을 만났을 때의 광경을 강홍규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백철은 김관식보다 24살 많은 어른이었다.

어느날 거리에서 백철이 김관식과 마주쳤다. 백철이 깜짝 놀라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김관식이 호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봐 백 군!”

백철이 혼비백산 꿈무늬를 뺐다.

“이놈, 백가야!”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백철은 뛰다시피 달아났고 그 뒤를 김관식이 기가 승해서 따라가며 소리질렀다.

“이놈 백가도 못 되는 흑가야!”(강홍규, 『관철동시대』에서)

시인 성기조의 증언에 따르면 김관식은 장기영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출판기념회장에까지 나타나서 “장 군, 자네가 글을 써?”라고 일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장기영도 김관식보다 18살 위였다. 김관식은 연장자와 높임법을 함께 조롱한 유일한 문인이라고 할 만하다. 높임법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인간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게 되는지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시제

시제(時制)란 말을 하는 사람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난 시간의 앞뒤를 제한하는 것이다. 말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동작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말하는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나 동작은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우리의 과거 문헌이나 작품에서도 현재, 과거, 미래 시제는 두루 사용되었다.

a: 가중에 불측한 변이 있으나 낭군이 반드시 첩의 모해라 하실 듯하기로 처음에 감히 발설치 못하였거니와 낭군은 친어버이라 나면 이르고 들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은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으나, 내 또한 친어미 아닌 고로 짐작만 하고 잠잠하더니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기로 몸이 불편한가 하여 들어가 본즉 과연 낙태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쳐 수습치 못하여 황망하기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크나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리오. (『장화홍련전』에서)

b: 열다섯 살에 얻은 서방은 첫날밤에 잠자리의 급상한(急傷寒)

에 죽었고 열여섯 살에 얻은 서방은 당창병(唐瘡病)에 여의었다. 열일곱 살에 얻은 서방 용천병에 죽고, 열여덟 살에 얻은 서방은 벼락에 맞아 죽어 버리었다. 그 이듬해 열아홉 살에 얻은 서방은 천하 대적으로 포청으로 떨어지고 스무 살에 얻은 서방은 비상을 먹고 죽어 버리니 서방이 퇴가 나고 송장 치기에 신물이 난다. (『변강쇠전』에서)

a는 계모 허 씨가 아들 장쇠를 시켜 쥐를 잡아 튀한 다음 피를 발라서 장화의 잠자리에 넣어 놓고 제 남편에게 장화의 낙태 사실을 고해 바치는 장면이다. 과거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 대목과 현재형으로 말한 대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b는 웅녀가 많은 남편들을 여원 내력을 설명한 대목이다. 모두 과거의 남편들 이야기이므로 과거형을 사용해야 할 것이지만, 군데군데 현재형이 나타나 있다. 이처럼 시제를 인식하면서도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시제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 시제가 영어에서처럼 문법 요소로 강하게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의미 요소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서로 알 수 있다면 구태여 시제를 나타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을 했다. 그 일이 과거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구별만 되면 시제의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a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날 아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건 현재형을 쓰건 모두 과거로 인식될 수 있다. b도 옥녀의 과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현재형을

쓰더라도 과거 이야기로 인식되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인식은 신소설이나 현대 소설에서도 수시로 나타난다.

c: 부인은 자기 남편이 아닌 줄 깨닫고 사나이도 제 계집 아닌 줄 알았더라. 부인은 겁이 나서 간이 서늘하고 남자는 선녀를 만난 듯하여 흥김겹김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숨소리는 크고 목소리는 아니 나온다.(이인직, 「혈의 누」에서)

d: 두 사람은 칠성문을 나섰다. 길가에는 쓰러져 가는 집들이 있었다.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지나가는 손님도 있어서 술도 팔고 떡도 팔더니 지금은 장날이 아니면 사람 그림자도 보기가 어렵다. 문 밖에는 문짝 모양으로 만든 소위 ‘평상’이란 것을 놓고 그 위에 다 떨어진 벚집 거적을 폈다. 어떤 낡디 낡은 탕건을 쓴 노인이, 이 더운 때에 때 묻은 무명옷을 입고 할 일 없는 듯이 평상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하면서 두 사람의 지나가는 양을 본다. 그 노인의 얼굴은 붉고 눈에 빛이 있으며 매우 풍채가 늠름하다. 형식은 그가 수십 년 전 조선이 아직 옛날 조선으로 있을 때에 선화당(宣化堂) 안에서 즐겁게 노닐던 사람인 줄로 알았다.(이광수, 「무정」에서)

c는 부인과 사나이가 서로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아내가 아닌 것을 알아본 뒤에 부인과 사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대목이다. 여기의 사건은 모두 과거의 일이다. 따라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혼용되고 있다.

d에도 어떤 경우에는 과거 시제가 쓰였고 어떤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관찰자의 서술 시점에서 이

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는 과거형을 썼고, 그때까지 계속된 상태는 현재형을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설이 사실이 아닌 ‘꾸민 이야기’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 글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제를 문법 요소로 인식하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어에서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1. 현재 시제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면 동작이 현재 진행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형이 반드시 동작의 현재성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국어에서 현재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 a: 아이가 눈을 뜬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다.
- b: 바람이 몹시 분다. 거기에다 소나기까지 퍼붓는다.
- c: 동생이 자꾸 밥투정을 한다.
- d: 그는 언제나 일찍 일어난다.
- e: 나는 내일 이곳을 떠난다.

위의 다섯 가지 예문이 모두 현재형으로 적혀 있지만 현재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a는 지금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낸다. 순수하게 현재의 동작임을 나타낸 것이다. b는 동작이 일

정한 시간 동안 지속됨을 나타낸다. 현재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c는 같은 행동이 현재 반복됨을 나타낸다. 밥투정하는 동작이 몇 번에 걸쳐 일어났지만 그것을 모두 하나의 동작으로 보고 서술한 것이다. d는 현재의 습관을 나타낸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일어나는 동작은 없지만 과거의 동작을 습관으로 바꾸어 현재화한 것이다. e는 앞으로 있을 동작을 현재화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형이라고 해도 현재 일어나는 상황만 가리키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아래와 같은 표현이다.

f: 우리는 말을 끊었다. 그는 설령탕을 그릇째 받들고 머리를 숙여 천천히 들어가면서 국물을 마셨다. 나도 말없이 떠넣는다. 국 그릇을 꼭 잡고 있는 봉한의 손가락들은 새의 발처럼 보인다. 그 손톱 끝에 가늘게 낀 때가 선명하다.(황석영, 『오래된 정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과거형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행위가 과거형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았지만, 곧바로 현재형으로 바뀌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형 뒤에 오는 현재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시제 인식은 문법 요소이기는 하지만 문법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의미 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시제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태여 과거 시제를 쓰지 않더라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작가의 필요에 따라서 현재형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위의 글은 ‘나’의 행위를 좀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형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어학자들은 이런 형태의 시제 사용을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역사 소설을 현재형으로 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작가가 명백하게 자기 의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시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을 뿐이고, 자칫 작가 자신이 본래의 의도를 망각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시제의 혼란이 고스란히 독자들의 작품 이해에 해를 끼치게 된다.

‘-고 있-’과 현재 진행

현재형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고 있-’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고 있-’의 형태를 자주 사용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현재형으로도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형태를 사용한다. 왜 그럴까?

g: 그는 노래를 부른다.

h: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1. -다: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는 종결 어미(간다, 본다, 핀다, 세운다)
(‘ㄹ’ 벗어난 활용 동사 어간에도 붙는다: 분다, 몬다, 빈다)
2. -는다: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는 종결 어미(먹는다, 잡는다, 찾는다)
3. -는: 모든 동사의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보는, 피는, 먹는, 부는)

g는 현재형으로 그가 지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문장의 의미는 그의 직업이 가수라는 뜻이 강하다. 현재 노래를 부르는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에 h는 그가 현재 노래를 부르는 동작을 하는 중임을 나타낸다. 동사에 따라서는 현재 형이 이처럼 현재 동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작이 현재 이루어지는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 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앞에 제시한 ‘바람이 분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충분히 현재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있다’처럼 ‘-고 있-’의 형태를 쓸 필요가 없다. ‘-고 있-’의 형태는 꼭 현재 진행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과거(‘-고 있었다’)나 미래(‘-고 있을 것이다’)에도 쓰인다. 그리고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형태는 동작의 반복이나 습관, 동작이 완료된 상태나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i: 아이가 울고 있다.

j: 그는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k: 부인이 빨간 구두를 신고 있다.

l: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고 있-’을 쓰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아래 예문의 경우가 그 예이다.

m: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 프리미엄을 주고 다시 분양받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o: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q: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r: 김 대통령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의 예문에 쓰인 ‘-고 있-’의 구문은 현재 진행형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였다. m은 ‘생각합니다’로 충분한데도 굳이 현재 진행형을 쓴 경우이다. ‘생각한다’에 현재 진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n은 ‘셈입니다’로, o는 ‘예상됩니다’로, p는 ‘주목됩니다’로 충분하다. 이처럼 동사에는 현재 진행형을 쓰지 않아도 진행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고 있-’의 형태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q와 r처럼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을 마치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진행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위기를 맞았습니다’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 위기를 맞는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를 상상할 수 없다. 위기는 닥치면 그 즉시 ‘위기를 맞은’ 동작이 완료되고 그 이후 위기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는 잘못된 현재 진행형이다. ‘알려지고 있습니다’도 ‘알려졌습니다’로 써야 한다. 일단 알려지면 알려지는 상태는 완료되는 것이지 그 동작이 일정 기간 진행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거형으로 쓸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 연습

다음 문장에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함께 쓰였습니다. 어느 시제를 고쳐야 할지 검토해 보세요.

인기척이라곤 없다. 내심 의아해하며 거실로 올라선다. 수원에 서 떠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둘까 하다가 그만두었던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이런 날씨에 외출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박현경, 「섬 안에 섬」에서)

■ 답

‘없다’와 ‘올라선다’가 현재형이므로 ‘때문이었다’를 ‘때문이다’로 고쳐야 한다. 서술 시점이 모두 현재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동작은 모두 과거로 표현되어 있으므로(‘그만두었던’, ‘생각했기’ 따위) 문제가 없다.

■ 연습

아래 예문에서 사용된 현재 시제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세요.

그날 세포리스에서 디베라로 향하는 천부장의 행차는 끝내 나 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약 오백명이나 되는 정비된 로마 군대가 세포리스에서 디베라 가도에 까닭 모를 시위 행군을 하였다. 사반과 야일이 가까와진 것은 이때부터이다. 뒤이어 혈맹

단이 조직되고, 이름도 시몬에서 야일로 뒤바뀌어진 그는, 동시에 사반이 가장 아끼는 기간 단원이 되어 겐으로는 겐계사의 선인 행세를 하고 속으로는 사반의 부관격으로 활약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야일은 사반의 일거일동에 이르도록 지금까지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김동리, 「사반의 십자가」에서)

■ 답

이 문장의 모든 시점은 과거이므로 모든 서술어에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이다’는 ‘이때부터였다’로 바꾸어야 한다. ‘뒤이어 혈맹단이 조직되고’는 독립한 문장의 성격이 강하므로 서술어를 과거 시제로 하여 ‘조직되었고’로 바꾸는 것이 좋다.

■ 연습

아래 문장에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어미 ‘-고’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세요.

- (1) 내일은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2) 음모의 실체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3) 버스가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내려 땅을 밟아 보았다.
- (4) 의자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 (5)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고 있다.
- (6) 그곳에는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답

(1) ‘예고되다’는 한 동작으로서 예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예고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2) ‘봬니다’를 쓰는 것이 간결하다. (3) ‘머물다’는 동작이 계속되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구태여 진행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머무는’으로 쓰는 것이 좋다. (4) ‘자다’도 동작이 계속되는 동사이므로 ‘자고 있는데’보다는 ‘자는데’가 더 간결하여 좋다. (5) 공이 넘어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완료되는 것이므로 진행형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넘어갔다’라고 하여야 한다. (6) ‘거주하다’는 행위가 진행되는 동사이므로 구태여 진행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 ‘거주한다’라고 하면 된다.

2. 과거 시제

한국어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미는 ‘-었-(-았-/-쓰-)’이다. 어떤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과거 시제이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의미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재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때로는 과거의 진행, 과거의 반복,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태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 a: 어제 친구와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 b: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
- c: 한참 기다렸지? 아니 10분 정도밖에 안 기다렸어.
- d: 시간만 나면 술을 마셨어.
- e: 그때야 신을 안 믿었지.

a는 동작이 과거에 있었음을 나타낸 문장이고, b는 한 동작이 완료했음을 나타낸다. 지금 시점에서 그 동작이 끝나 그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c는 과거의 일정한 시간 동안 동작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며, d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한 동작을 나타낸다. e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1. -었- : 끝음절의 모음이 ‘오’, ‘야’ 이외의 용언(집었다, 죽었다, 재웠다, 졌다)
(‘ㅂ’ 변칙 활용을 하는 다음절 용언(괴로웠다, 주웠다, 쉬웠다, 즐거웠다))
(끝음절의 모음이 ‘으’인 용언(슬펏다, 기뻏다, 예뻏다))
2. -았- : 끝음절의 모음이 ‘오’나 ‘야’인 용언(눅았다, 좁았다, 보았다, 고왔다)
(끝음절의 모음이 ‘으’인 용언(답갔다, 잠갔다, 모았다))
3. -ㅁ- : 끝음절이 ‘야’나 ‘어’로 된 용언(갔다, 섰다, 잤다)
4. -ㄴ- : 끝음절이 모음으로 끝난 동사(간去, 선立, 배운學, 자란長, 때린打, 만난逢)
(‘ㄹ’ 변칙 활용을 하는 동사(간磨, 산生, 든入, 빈祈, 주운得))
5. -은- : 끝음절이 자음으로 끝난 동사(먹은, 잡은, 찾은, 녹은, 늘은, 들은)
- * -더- : 과거 회상을 나타내므로 자연히 과거 시제가 포함된다.(먹더라, 가더라)

‘-었-’을 쓰지 않더라도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미 ‘-더-’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 시제가 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과거 시제가 드러날 뿐 과거 시제로 보지는 않는다.

f: 동생이 거기서 혼자 놀고 있더라.

g: 예전에는 얼굴이 그리도 곱더니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구나.

대과거 ‘-었었-’의 쓰임새

과거 시제의 형태 가운데에서 ‘-었었-’을 쓰는 경우가 있다. 흔히 대과거라고 부르는 형태인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형태가 한국어에 고유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기피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과거는 ‘-었-’으로 표현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었었-’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었었-’이 고유한 의미 기능을 가진 어미로 본다. 따라서 ‘-었었-’의 고유한 의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쓴 ‘-었었-’만 문제가 될 뿐, 제대로 사용된 ‘-었었-’은 한국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었었-’의 고유한 의미 기능은 무엇일까? 다음 예문을 보면서 검토해 보자.

a: 우리를 보자 그는 재빨리 도망갔었어.(도망갔어)

b: 동생이 나를 찾아왔었어.(찾아왔어)

c: 혼자 프랑스에 갔었어요.(갔어요)

d: 아침은 굶었었지.(굶었지)

a는 과거의 시점에서 도망간 일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금은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도망갔어’를 사용하면 현재 시점에서 도망가고 없음을 나타낸다. b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동생이 자기를 찾아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동생이 자기 앞에 없어도 된다. 반면에 ‘찾아왔어’를 쓰면 지금 동생이 자기 앞에 찾아와 있음을 나타낸다. c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프랑스에 갔다 왔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뒤에 여럿이 프랑스에 갔을 수도 있다. 반면에 ‘갔어요’를 쓰면 지금 혼자 프랑스에 가고 여기에 없음을 나타낸다. d는 과거의 어느 시기에 아침을 굶은 경우를 말한다. ‘굶었지’라고 하면 말하는 날에 속한 아침을 먹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었었-’은 현재까지 동작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의미가 강하다. 즉 과거 시점에서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과거형은 현재 시점에서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었었-’은 한국어의 과거 시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형태이다.

대과거형과 과거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관형사형으로 표현을 바꾸는 경우이다. 위의 네 사례를 각각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 형태를 바꾸어 보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a1 : 우리를 보자 재빨리 도망갔던 사람.(도망간 사람)

b1 : 나를 찾아왔던 동생.(찾아온 동생)

c1 : 혼자 프랑스에 갔던 여자.(간 여자)

d1 : 아침을 굶었던 아이들.(굶은 아이들)

과거형에서 쓰인 ‘-었-’은 관형사형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은/-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과거형에서 쓰였던 ‘-었었-’은 ‘-있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의미도 ‘-있던’은 대과거형의 의미와 통하고, ‘-은/-ㄴ’은 과거형의 의미와 통한다. 따라서 대과거형은 과거형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습

아래의 예문에 쓰인 대과거 ‘싶어했었다’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세요.

나의 뺨은 지금 시들었지만 너와 함께 그 해변에 가기 전까지는
붉고 생기가 돌고 윤이 나서 너도 내 뺨에 손바닥을 대보고 싶어
했었다.(신경숙, 「해변의 의자」에서)

답

한국어에서는 두 사건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형과 대과거형이 쓰이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선후 관계는 어순과 어미 또는 부사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과거형과 대과거형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 해변에 가기 전까지는’이라는 부사어가 서술어의 시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싶어했었다’처럼 대과거를 쓸 필요가 없다. ‘싶어했었다’처럼 대과거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붙고, 생기가 돌고, 윤이 나고, 싶어하고’의 모든 동작은 ‘시들었지만’보다 더 과거의 사건이 된다. 따라서 ‘싶어했었다’를 ‘싶어했다’로 고쳐야 한다.

■ 연습

아래의 예문에 쓰인 대과거 ‘했었더면’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요새 또 부쩍 바람이 났구나 하면서 윤구는 전에 용돈이 달리면 아무 때고 와서 좀 달라졌다고 한 현재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게 잘 했다 싶었다. 매달 정해 놓고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시에 찾아와 돈을 청구하니 그의 말대로 했었더면 더 돈거래가 엉망이 됐을 게 아닌가.(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 답

‘했었더면’은 ‘했더면’으로 고쳐야 한다.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으로서 과거 시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법이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을 가정하여 다른 조건이 어떻게 됨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따라서 가정법에 사용되는 시제는 ‘-었었-’ 같은 대과거를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었었-’은 현재와 관련이 없는 과

거의 일로서 과거에 완료되고 과거에만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형태이므로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일어난 것처럼 가정하는 가정법 문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 연습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바꾸어 보세요.

대홍은 방에 들어와서도 옆구리에 왼손을 찌른 채 엉거주춤하고 섰는데① 두루마기 속에서는 무엇이 푸드득거린다.

“그게 뭐요?” 하고 오봉이가 물으니까,

“이놈에 것이 왜 이리 버둥거려” 하고 꼬집어내는 것은 커다란 수탉이었다.② 대홍이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안마당으로 내어 던지는 것을 보고,

“계란 춘부장 하나가 또 대명을 갓군” 하고 방안의 청년들은 깔깔 웃는다.(심훈, 『영원의 미소』에서)

■ 답

①은 ‘서 있는데’로 바꾸고, ②는 ‘수탉이다’로 고치면 된다.

이 글은 현재 시제로 전개되어 있다. 따라서 지문의 모든 서술어를 현재 시제로 바꾸어야 한다. ①은 ‘서는’의 과거형으로 볼 수도 있고 ‘서 있는’의 준말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서 있는’의 준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제상 문제가 없지만 ‘서 있는’을 ‘섰는’으로 줄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 있는’으로 써야 한다. ②는 현재형으로 고쳐야 한다. ‘끄집어내는’이 현재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사용된다. 아래의 경우가 그것이다.

- a: 내일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 b: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 c: 선수들이 곧 도착할 거야.

위의 예문들은 모두 추정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아직 실행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므로 미래 시제로 보는 것이다. ‘-겠-’, ‘-리-’, ‘-ㄹ 것’ 등은 모두 미래의 사실을 추측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데도 사용된다. 아래의 경우가 그것이다.

- a1: 지금쯤 그곳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 b1: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리라.
- c1: 선수들이 벌써 도착했을 거야.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미래 시제를 위하여만 사용되는 어미는 없고 다만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미래 시제 가운데에서 화자(話者)의 의지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예이다.

d: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앞에서 사용된 어미 ‘-겠-’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겠-’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로 쓰이기도 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로도 쓰이는 어미이다. ‘-겠-’이 단순히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인 때이고, ‘-겠-’의 의지의 의미가 되는 경우는 의지로 할 수 있는 동사에 붙었을 때이다.

e: 내일 비가 내리겠다.

f: 곧 회장님이 도착하시겠습니까.

d는 화자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겠-’이 의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e와 f는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겠-’은 단순한 추측이나 추정 의미를 나타낸다.

어미 ‘-겠-’의 오용 사례

어미 ‘-겠-’을 추측이나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d: 곧 여섯 시가 되겠습니다. / 달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e: 일기도를 보시겠습니까. / 그리고 ○○에서 맛있는 음식을 잡

수시겠습니다.

f: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그분의 이름은 김종수가 되겠습니다.

d의 두 문장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해당하는 일
이므로 추측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겠-’을 쓰지 않는다. ‘곧 여섯 시가 됩니다/될 것입니
다’, ‘달은 서쪽에서 뜹니다/ 뜰 것입니다’로 표현해야 한다.

e의 두 문장도 ‘-겠-’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제삼자의
행위에 ‘-겠-’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예측하는 의미
가 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했다.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일기를 예보하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
인데, 자기가 일기도를 보여 주면서 시청자에게 ‘보시겠습니
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화자가 추정하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기도를 내보이면서 말하는 경우에는 ‘일기
도를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되고, 일기도를 아직 보이지
않은 상태라면 ‘일기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에서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겠습니다’는 관광 안
내자들이 관광객을 음식점에 안내하면서 흔히 쓰는 말이다.
여기서도 화자가 추정하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겠-’
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에서 맛있는 음식을 잡
수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에서 맛있는
음식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옳다.

f의 두 문장도 화자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겠-’을 쓰면 안 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분

의 이름은 김종수입니다'처럼 확정하여 말해야 한다.

위의 세 경우는 모두 화자가 아는 것을 마치 추측하는 것처럼 말한 경우이다. 진리, 사실, 화자가 이미 아는 행위 등은 화자가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겠-'을 쓰면 안 된다.

4. 시제의 일치

한국어에서는 어미에 따라서 동작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제를 잘못 사용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다.

a: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b: 비가 내리니 수목들이 생기를 되찾았다.

c: 그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위의 세 예문을 보면 뒤따르는 동작에 과거 시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선 동작도 과거의 일로 이해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에서는 앞선 사건의 시제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형태상으로는 현재 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붙이지 않은 형태이다), 뒤따르는 사건에다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붙여서 앞선 사건의 시제까지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겹문장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d: 그는 스키를 탔고, 나는 썰매를 지쳤다./(그는 스키를 타고, 나는 썰매를 지친다.)

위의 경우에는 두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어색해진다. 독립된 두 사건을 나열하는 경우여서 각 사건에 과거 시제를 붙인 것이다. 만일 한 동작이 현재형이면 다른 동작도 현재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어에도 이처럼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 내가 도착했을 때에는 모두 떠나고 없었다.

f: 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지 않았다./(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지 않는다.)

g: 어제 비행기를 탔다면 지금쯤 로마 거리를 구경하고 있겠지./(지금 비행기를 탄다면 내일쯤 로마 거리를 구경하게 되겠지.)

e와 f는 동사의 관형사형에 시제가 들어 있다. 이 경우에는 관형사형의 시제와 서술어의 시제를 일치시켜야 제격이 된다. g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서술어의 시제를 일치시켜야 할 뿐 아니라 앞선 동작과 뒤따르는 동작의 시제도 호응시켜야 한다. ‘어제’는 과거이므로 ‘탔다면’처럼 과거형을 써야 하고, ‘지금’은 현재이므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다.

아래 글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시제가 일치하지 못하여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경우이다. 시제의 일치는 한 문장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다.

울타리와 기와집 사이는 채마밭이다. 그 채마밭을 질러서 머슴 구천이가 지나가는 것이였다. 냉담한 귀녀의 눈이 구천이의 옆 모습을 따라가다가 눈길을 거두며 실땀이 꼬리를 치는 것 같은 미미한 웃음을 머금는다. 귀녀는 신발을 신고 치맛자락을 걷으며 안채를 향해 돌아 나간다.

무, 배추를 심은 채마밭이 아슴아슴한 저녁 안개에 싸여 들어가고 있고, 부스스한 옷매무새의 김 서방 댁이 부엌을 들락거리며 부산을 떨고 있다. 닭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닭들은 배추잎을 쪼아먹고 있었다.

땅바닥에 눈을 떨구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당산 누각 앞에까지 올라간 구천이는 자신의 발부리를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다시 느릿한 보조로 누각에 올라간 그는 난간을 짚으며 걸터앉는다. 달 뜨기를 기다리는가? 마을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최 참판 댁 기둥귀에 내걸어 놓은 육각등이 뿌옇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박경리, 『토지』에서)

위 글의 첫 문단에는 ‘채마밭이다’, ‘머금는다’, ‘나간다’ 등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과 ‘것이였다’처럼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섞여 있다. 작가가 장소에 관한 것은 현재도 그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현재형을 썼다고 볼 수 있고, ‘구천’의 행동은 과거형으로 하고 ‘귀녀’의 행동은 현재형으로 한 이유는 ‘구천’의 행동에 근거하여 ‘귀녀’의 행동 변화를 묘사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무너지게 된다. ‘닭들은 배추잎을 쪼아먹고 있었다’에서 과거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문장에서는 ‘구천’의 행동을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로 묘사했고, 주변 상황은 과거로 묘사했다. 작가가 시제를 너무 소홀히 다룬 것 같다.

연습

아래 글을 읽고 밑줄 친 동사의 시제가 맞는지 검토하세요.

내가 델러웨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층으로 새로 이사 온 젊은 사내 때문이었다.① 이층에는 그 동안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데 필요했던 암실과 작업실이 있었다.② 하지만 살림 살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취미 생활 때문에 놀리기에는 아까운 감도 없지 않았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기에 나는 세를 놓기로 했었다.③ 암실과 작업실을 지하로 옮긴 나는 장판과 도배를 새로 했고, 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생활 정보지에 냈었다.④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간단한 이삿짐을 가진 한 사내가 들어왔다.⑤(박성원, 「델러웨어의 창」에서)

답

이 글은 과거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가 쓰였다. 그런데 ③과 ④에는 대과거가 쓰였다.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 대과거는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 ⑤의 사건에 비해서 ③과 ④의 사건이

앞섰다고 생각해서 대과거를 쓴 것 같은데 한국어에서는 대과거가 과거보다 더 앞선 사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선후 관계는 문장에 사용된 어미로 판단한다. 따라서 ③은 ‘했다’로, ④는 ‘냈다’로 고쳐야 한다.

■ 연습

아래 각 문장을 보고 잘못된 시제를 사용한 문장을 골라 시제를 바로잡으세요.

- (1) 그가 꿈에 보았던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었다.
- (2) 눈이 내리는데 그는 길을 떠났다.
- (3) 날이 어두워지자 일꾼은 서둘러 일을 끝냈다.
- (4) 숙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 (5) 쉽게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했다.

■ 답

(1), (4), (5)의 시제에 문제가 있다. (1)은 ‘보았던’을 ‘본’으로 고쳐야 하고, (4)는 ‘생각하고 있으면’을 ‘생각하면’으로 고쳐야 하며, (5)는 ‘같지만’을 ‘같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 연습

아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바로잡으세요.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늙은 부부였다. ① 경적 소리에 놀란 그들은 곧 몸을 피하려고는 했지만 너무나도 놀라 경황이 없

있던 것 같다.② 그들은 갑자기 서로 손을 부둥켜 쥐고 뒤통거리며 곧장 앞으로만 뛰어 달아나는 것이다.③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것을 다시 집으려고 뒷걸음친다.④ 하마터면 그때 차는 그들을 치일 뻔했던 것이다.⑤ 이것이 그때 일어났던 일의 전부다.⑥

불과 수십 초 동안의 광경이었고 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이 그들을 뒤에 두고 달리고 있었다.⑦ 운전수는 그들의 거동에 처음엔 웃었고 다음에는 화를 냈다.⑧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⑨ 이제 는 아무 표정도 없이 차를 몰고만 있을 뿐이다.⑩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었다.⑪ 그리고 그 잔영(殘影)이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다.⑫(이어령, 『이것이 한국이다』에서)

■ 답

이 글은 시제를 엄두에 두지 않고 쓴 글 같다. 번호를 붙인 서술어의 시제를 검토해 보자. 먼저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 서술어는 ①, ③, ④, ⑤, ⑦, ⑧, ⑨, ⑩, ⑪, ⑫ 등이다. 그런데 ③, ④, ⑩의 서술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모두 과거형으로 고쳐야 한다. ③의 ‘달아나는 것이다’는 ‘달아났다’ 또는 ‘달아나는 것이었다’로, ④의 ‘뒷걸음친다’는 ‘뒷걸음쳤다’로, ⑩의 ‘있을 뿐이다’는 ‘있었다’ 또는 ‘있을 뿐이었다’로 고쳐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쓴 서술어는 ②이고, 현재 시점에서 쓴 서술어는 ⑥이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다만 ⑦의 ‘달리고 있었다’는

‘달렸다’로 적는 것이 더 좋다. ⑩의 ‘물고만 있을 뿐이다’는 시제를 잘못 쓴 것 외에 부사어 ‘이제는’도 잘못 사용한 것이다. 과거 시제에서는 ‘이제는’ 같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쓰면 안 된다.

이 글에서 ⑪과 ⑫를 과거 시제로 한 것은 의외이다. 현재 시점에서 ‘기억할 수 있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여기를 과거 시제로 했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②처럼 글을 쓰는 시점에서 생각한 것을 현재형으로 쓴 것과 호응시킨다면 ⑪과 ⑫도 현재형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맺음말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내 능력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한국어 바로 쓰기를 역설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한국어에 관한 작은 생각을 이야기하겠다.

한국어는 아직 야생 상태의 언어이다. 야생 상태의 언어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서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에 이른 언어, 곧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편적 가치관에 맞게 그 말을 다듬고 발전시킨 흔적이 별로 없는 언어를 뜻하는 말이다. 한국 역사상 수많은 지식인과 문인들이 한국어를 써 왔지만, 그들의 사회적 언어 활동이 한국어의 발전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아직 야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문명사는 '갈고 다듬음'의 역사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처음 것을 좀더 낫게 갈고 다듬어 문명을 일구어 왔다. 칼, 도끼, 창, 물레, 지게, 수레, 옷, 집 등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利器)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도 처음 만들

어진 것보다 더 성능이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하고, 더 품위 있게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인간의 지식과 안목은 언제나 이처럼 그의 창조물들을 조금씩 더 수준 높게 만들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연장을 만들거나 더 우수한 성능으로 발전시킨 종족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갔고, 그 연장의 시대가 지나면 그 종족의 영화도 소멸해 갔다. 불을 만든 사람들, 처음으로 돌 연장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 석기 시대를 마무리한 청동기인들,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마무리한 철기인들은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말과 활과 창으로 전쟁을 하던 시대에는 위대했던 로마인, 몽골인, 아라비아인, 중국인, 만주인들이 총과 대포의 시대에는 힘을 잃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총과 대포의 시대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영국인, 프랑스인, 러시아인들이 대량 정보의 시대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장을 더 좋은 성능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연장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연장이 소수의 눈썰미 있는 사람이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 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불을 만들었던 사람은 결코 많은 지식이 없어도 되었고, 강한 활이나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

있다. 그러나 원동기를 만든 사람들이나 전화기를 만든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에 비해서 좀더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고,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을 더욱 광범위하게 습득한 사람들이다.

21세기 정보 사회에서 앞서 갈 사람들은 대체로 각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이 거침없이 유통되는 사회에서 지식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는 사람의 머리에서 새로운 연장이 탄생할 것이며, 그 연장으로 인류 사회는 다시 개편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온 국민에게 아주 잘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온 국민은 성능이 더 좋은 연장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장이 언어이다. 이 연장이 무디고 거칠고 부정확하다면 그 언어로 이루어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는 정확성과 정교함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고 그런 지식으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는 것은 불완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설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언어인 한국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언어로 다듬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 바로 쓰기 연습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러시아 정부에서 모국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순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조간 신문의 외신 기사

를 보면서 나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내가 3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노력해 왔던 한국어 바로 쓰기 연구와,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펴던 실천적인 사회 운동으로서의 한국어 바로 쓰기 운동의 소중한 결실인 이 책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를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언어의 경우, ‘바로 쓰는 것이 아름답게 쓰는 것이다’라는 한 문장이다. 더욱 줄인다면 ‘바른 문장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연습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분들은 거듭거듭 풀어 보면서 정확하고 정교한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고 다듬는 일’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더 잘 사용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은 ww.baronmal.com입니다.

한국인은 자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 '은'(는)과 '이'(가)의 의미를 구별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저자의 한국어에 관한 문제 제기는 이처럼 한국어가 처한 당대의 현실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저자의 기본적인 인식은 한국인의 언어 생활이 발전하기는커녕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인의 한국어 오용이 결국 한국인의 지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폐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쳐야 할까? 저자는 오직 철저한 '학습'에 의해서만이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는 그가 3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노력한 한국어 연구와, 그가 펴고 있는 실천적인 사회 운동으로서의 한국어 바로 쓰기 운동의 소중한 결실이다. 따라서 이 책은 딱딱한 규범적인 문법책이 아니라 적절한 예문들과 연습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를 학습하고 그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산유화」를 텍스트로 하여 조사 '에'와 '에서'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고, 김소월이 그 조사들을 정확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국어를 얼마나 훌륭하게 시적 언어로 승화시켰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55-57쪽)

그의 명제는 이렇다. '바로 쓰는 것이 아름답게 쓰는 것이다.' 곧 '바른 문장이 아름답다.'

값 9,000원



0 3 7 1 0



9 788972 913108

ISBN 89-7291-310-3